



MYART AUCTION

MARCH 05, 2026

(주) 마이아트옥션 제59회 메이저 경매

발 행 처 (주) 마이아트옥션

발 行 2026년 3월 5일

사 진 플래시큐브 스튜디오 | 남기용

디 자 인 원더디자인 | 전지원

Copyright© 2026 MYART AUCTION Inc.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은 (주)마이아트옥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 40,000

* 이 도록은 정회원에게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 이 도록의 오탈자 및 오류를 알려주시면 바로 잡겠습니다.



MYART AUCTION 59th

제59회 마이아트옥션 메이저 경매

MAJOR AUCTION

2026.03.05 THU 4PM

LOCATION

마이아트옥션하우스 2전시장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62-5, B1

PREVIEW

2026.02.23.MON - 03.04.WED

10AM ~ 6:30PM

LOCATION

본관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62-5, B1, 5F

회원가입

(주)마이아트옥션에서 진행되는 모든 경매는 경매약관에 의거하여 진행되므로, 응찰 희망자는 (주)마이아트옥션 경매 약관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프리뷰를 통해 작품의 상태를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경매 응찰을 위해서는 정회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 정회원 연회비 : 10만원) 정회원은 유료이며, 마이아트옥션에서 발행되는 모든 인쇄물이 발송됩니다.

응찰방법

서면, 현장, 전화 응찰, 비공개 응찰이 가능하며, 서면응찰과 전화응찰은 경매 당일 오후 2시까지 응찰 등록 신청서를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금액 응찰 시 우선순위는 서면, 현장, 전화 순입니다.

비공개 응찰의 경우**[비공개 응찰의 자격]**

마이아트옥션 정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마이아트옥션이 요청하는 응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공개 응찰의 진행]

◆ 표시가 된 물품은 입찰 방식으로만 응찰하며
응찰자는 프리뷰 기간 내에 마이아트옥션으로부터 응찰서를 교부받아
입찰금액을 직접 작성하고 봉인하여야 합니다. 최소 입찰금액은 낮은
추정가를 적용합니다.
(낙찰 후에는 구매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매 수수료 및 대금 결제

구매수수료는 낙찰가의 15%(부가세 별도)입니다.

낙찰자는 낙찰가와 구매수수료를 합한 총 구매대금을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사에 결제해주시길 바랍니다.

농협 317-0009-8112-11 (주)마이아트옥션

작품상태 및 보증

모든 작품은 출품된 상태 그대로 판매되며, 당사에서 구매하신

작품에 대한 보증에 내용은 경매일 기준으로 3년간 유지되며,

당사에서는 작품보증서를 발부합니다. 작품의 보증내용은

(주)마이아트옥션 경매약관 제14조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증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시, 보증기간인 3년내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청구 후 관련분야 전문가 2인 또는

전문기관 2곳으로부터 서면 형식의 의견을 구한 후 모든 의견이 일치할
시에 원상회복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개인이 서화 및 골동품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양도소득세 제외

생존하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 양도시,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작품의 양도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시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낙찰 철회 시 위약금

낙찰자는 낙찰을 철회할 수 없으며 부득이 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철회의사를 통보해야 하고, 위약벌로

낙찰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 위약벌의 약정은 당사와 위탁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도록에서 제공하는 작품 설명(Caption) 자료의 기준과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화를 포함하여 도자, 목기, 공예품 등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없는 작품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작가명

아호, 성명, 한자명, 단 외국 작가는 원어

생물년

0000- 는 현재 생존, 0000-? 는 몰년미상

작품명

작가가 정한 이름이나, 화제나 작품의 내용을 참고한 자료

제작연도

작품에 포함된 정보 또는 도록 등에 근거한 자료

형태

출품된 작품을 꾸민 방법

재질 및 재료

작품의 바탕 및 제작 재료

크기(cm)

평면 세로×가로 (표구 면이나 액자를 제외한 실제 작품 크기)

입체 높이[고고]×입지를[구경口徑]×밀지를[저경底徑] (도자기)
높이×세로×가로 (목기)

기타 얕고 긴 경우는 길이,
굴곡이 많은 경우는 높이×최대길이,
여러 점인 경우는 대표적인 작품

추정가

당사가 미술 시장의 동향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

작품해설, 탈초·번역

「작품수록처」, 「참고문헌」 등은 작품의 출처를 밝히기 위한 자료

전(傳)

작품의 경향(필치, 채색, 구도)으로 보아 특정 작가의 작품으로
추정하는 경우나 작품의 제작부터 판매 그리고 전시기록, 도록 등의
출처(Provenance)가 분명한 경우, 소장인, 감장인, 제발, 배관기 등
내력이 분명한 경우나 관지 인장이 있는 경우라도 전(傳)으로 표기될 수
있으며, 이는 추정은 가능하나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탈초, 번역

특별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만 하며, 일반적인 경우는 하지 않습니다.
탈초, 번역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대행할 수 있으며,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작가 및 작품명 가나다순

회화·서예

강세황 姜世晃 1713-1791	27, 28	삼국지연의도 2폭	47	가구·공예
김경여 金慶餘 1596-1653	21	삼백육십주현산천도리	37	나비형연봉장식촛대
김기창 金基昶 1913-2001	6, 7	조선인대행렬기 대전	29	나전배갯모 3쌍
김득신 金得臣 1754-1822	17, 31	책거리 8폭병풍	46	나전주흑칠모란당초문함
김옥균 金玉均 1851-1894	51	평양성도 8폭	49	나전주흑칠팔도문약상
김은호 金殷鎬 1892-1979	10	한매서작·설죽황학	43	'대청가경팔년'명능화판
김정호 金正浩 1804?-1866?	36	해좌전도	35	'대황제하사'명곡병운검
김정희 金正喜 1786-1856	13, 14, 23, 24	호렵도 8폭병풍	48	만자문붓걸이
김준근 金俊根 ?-?	33			문갑
남계우 南啓宇 1811-1890	39			사각만자문구족반
노수현 盧壽鉉 1899-1978	5			석제개구리형연적
민경갑 閔庚甲 1933-2018	3, 4			십이각구족반
박노수 朴魯壽 1927-2013	2	백자구형해시계	78	쌍학흉배관복 일괄
박정희 朴正熙 1917-1979	50	백자약호	62	압록강재감
백두용 白斗鏞 1872-1935	38	백자철화담벙각병	76	악통
송시열 宋時烈 1607-1689	21	백자철화용문호	77	여의두문경상
스튜어트 컬린 1858-1929	34	백자청화국화문유개주자	82	원형편복문촛대
신숙주 申叔舟 1417-1475	19	백자청화동화복송아형유개주자	83	은입사송하호문팔걸이
옹수곤 翁樹崑 1786-1815	15	백자청화모란문병	81	은입사화로
이광사 李匡師 1705-1777	22	백자청화모란문소병	61	은제주전자
이누즈카 후미 犬塚文 ?-?	30	백자청화봉학문병	80	은제운이문화병
이명기 李命基 1756-1813 이전	18	백자청화불수감문호	84	은제표형주전자
이방운 李防運 1761-1823 이후	41	백자청화성좌문무릎연적	57	은제향합, 은제어형통 2점
이방자 李方子 1901-1989	9	백자청화수복국화문화형연적	55	은제화병
이상범 李象範 1897-1972	8	백자청화운룡문호	79	이화문표주박
이정 李霆 1554-1626	26	백자청화죽죽문팔각연적	56	인물장식기마형토기
이하옹 李是應 1820-1898	25	백자청화초문선형연적	54	인장 2과, 인장함
이한철 李漢喆 1812-1893 이후	44	백자청화초문유병	63	청동작
이황 李滉 1501-1570	20	백자청화초화문화장기 3점 일괄	60	포도원송이문일월연
장승업 張承業 1843-1897	32, 45	백자청화칠보문필세	58	현판: 단구무괴아심
장우성 張遇聖 1912-2005	1	백자청화포도문시명필통	59	현판: 심석
정선 鄭敍 1676-1759	40	백자호	72, 73, 74	현판: 조효
증언 證彦 ?-?	12	분청사기박지조화어문편병	70	
허필 許必 1709-1768	40	분청사기상감모란포류학문장군	71	
		분청사기상감이문병	69	
		분청사기철화삼엽문장군	67	
		분청사기철화삼엽문장군	68	
		청자상감여지문발	66	
		동의보감 25책 완질: 개정판	52	청자상감운학문발
		문방우도	53	청자철화퇴화선문합
		사명대사 진영	11	흑유편병

작자미상

노옹독조	42	분청사기철화삼엽문장군	67	
동도회첩	16	청자상감여지문발	66	
동의보감 25책 완질: 개정판	52	청자상감운학문발	65	
문방우도	53	청자철화퇴화선문합	64	
사명대사 진영	11	흑유편병	75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및 도록 후면에 게재된 경매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ART 1

회화·서예

繪畫·書藝

PAINTING·CALLIGRAPHY

Lot.001 - 053

001

월전 장우성 1912-2005
月田 張遇聖 Chang WooSung

수선화 水仙花 Narcissus

1978
액자 Framed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Color on Paper
58.5×69cm

₩ 1,000,000-3,000,000



遙知玉節金幢會 멀리서 알겠노라, 옥부절과 금색 깃발이 만나는 곳이
只在蓬萊淺水間 오직 봉래산 얕은 물가에 있음을.

戊午春 무오(1978) 봄
月田寫 월전이 그리다.

[인문] 月田, 張遇聖印, 白水老石室

본 작품은 월전 장우성이 수선화를 그린 것으로, <수선화>, <등꽃>, <매화> 등은 월전 장우성이 수묵채색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화체들이다. 같은 수선화 주제의 그림은 여러 점이 전해지지만 세부적인 그림 형태와 화체는 다르다.

화체는 중국 청대 화가 운수평(惲壽平, 1633-1690)이 <삼우도三友圖> 등 그림에서 수선화를 그리며 지은 시의 한 구절이다. 수선화의 우아하고 고고한 모습을 금과 옥으로 된 신선들의 깃발이 모여있는 모습으로 비유하였다. 흰 수선화의 꽂잎과 노란 꽃술, 초록색의 잎이 조화를 이루며 화사하고 물가의 평온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음영을 구사한 채색과 여백을 살려 입체적이며 깊이있는 화면을 표현하였다.

002

남정 박노수 1927-2013
藍丁 朴魯壽 Park Nosu

산수도 山水圖 Landscape

1979
액자 Framed
종이에 채색 Color on Paper
70.5×69cm

₩ 1,500,000-4,000,000



鶴性松心合在山 학의 성정과 소나무의 마음을 지녔으니 산에 있음이 마땅하다.
己未春 기미년(1979) 봄
藍丁畫 남정 그리다.

[인문] 魯壽, 藍丁

003

유산 민경갑 1933-2018
酉山 閔庚甲 Min GyeongGap

매화와 천도 梅花, 天桃 Plum Blossoms and Peach

액자 Framed
종이에 채색 Color on Paper
28.5×35.5cm

₩ 800,000-3,000,000



004

유산 민경갑 1933-2018
酉山 閔庚甲 Min GyeongGap

까치 鵲 Magpie

1979
액자 Framed
종이에 채색 Color on Paper
69.2×69.2cm

₩ 2,000,000-4,000,000



005

심산 노수현 1899-1978
心汎 蘆壽鉉 No SuHyeon

지선축수 芝僊祝壽 Birds and Flowers

1944
액자 Framed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Color on Paper
27×24cm

₩ 1,500,000-3,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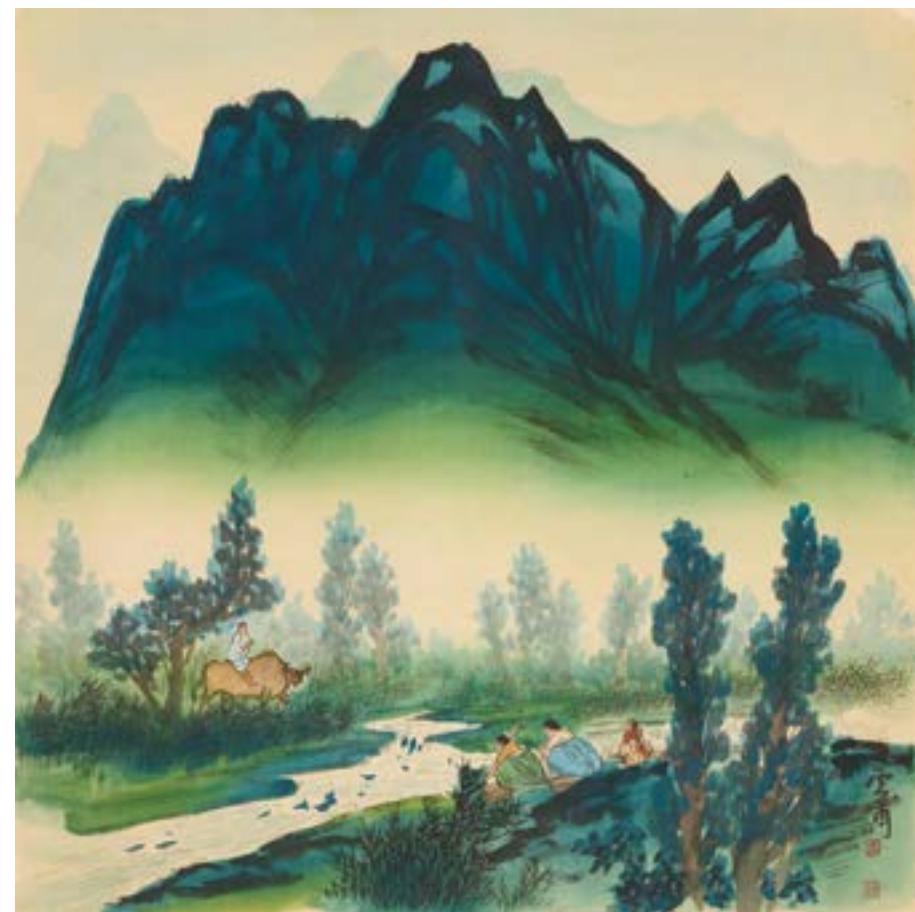
006

운보 김기창 1913-2001
雲甫 金基昶 Kim GiChang

빨래 洗濯 Laundry

액자 Framed
비단에 채색 Color on Silk
65×64.5cm

₩ 2,500,000-7,000,000



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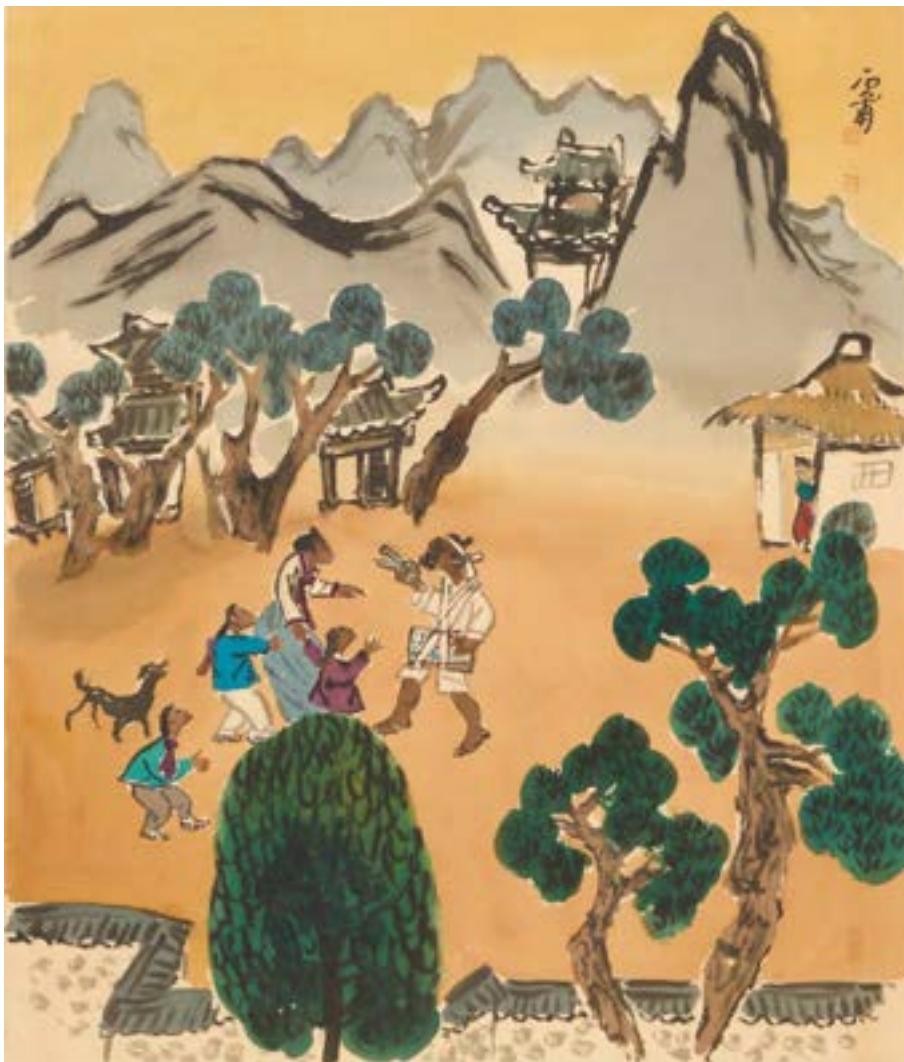
운보 김기창 1913-2001

雲甫 金基昶 Kim GiChang

엿장수 糖販子 The Taffy Vendor

액자 Framed
비단에 채색 Color on Silk
72.5×62cm

₩ 3,000,000-8,000,000



008

청전 이상범 1897-1972

青田 李象範 Yi SangBom

춘경산수도 春景山水圖 Landscape

1962
액자 Framed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Color on Paper
58.5×91cm

₩ 8,000,000-15,000,000



009

가혜 이방자 1901-1989

佳惠 李方子 Lee BangJa

칠보단학흉배 七寶單鶴胸背

Rank Badge with Seven Treasures and Crane Moti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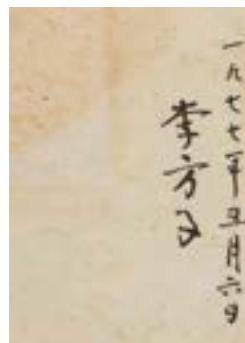
1977.5.6

액자 Framed

칠보 Cloisonné enamel

19×16cm

₩ 1,000,000-3,000,000



<후면>

一九七七年五月六日 1977년 5월 6일
李方子 이방자

010

이당 김은호 1892-1979

以堂 金殷鎬 Kim EunHo

미인도 美人圖 Painting of a Beauty

액자 Framed

비단에 채색 Color on Silk

117×50cm

₩ 3,000,000-10,000,000

以堂寫 이당 그리다.

[인문] 金殷鎬印, 以堂



[참고도판]

이당 김은호, <여인도>, 199.8×53.3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동원2536).

사명대사 진영

四溟大師真影
Portrait of Great Master Samyeong

액자 Framed
비단에 채색 Color on Silk
100×74cm

₩ 20,000,000-40,000,000



敎號泗溟大匡輔國崇祿大夫兼領議政松雲堂大禪師真影
교호 사명 대광보국승록대부 겸 영의정 송운당 대선사 진영

본 작품은 사명 유정(四溟 惟政, 1544-1610)의 진영真影을 그린 것으로 조선 후기 유행하였다. 사명 유정은 임진왜란 때 의승병義僧兵으로 참전하여 왜적 토벌에 앞장섰으며, 임진왜란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포로 송환에 힘쓰는 등의 업적을 세웠다. 사명 유정은 17세에 신목회상信默和尚에게 출가하여 18세에 봉은사奉恩寺에서 선과禪科에 학격하였다. 이후 49세 되던 1592년에 유점사榆岾寺에서 모리 가쓰노부[毛利勝信, ?-1611]의 침략군과 조우하여 그들을 타일러 돌려보냈지만 계속된 침략으로 인해 150명의 승병과 함께 참전하였다고 전한다.

본 작품은 우측 상단 화기에 ‘敎號泗溟大匡輔國崇祿大夫兼領議政松雲堂大禪師真影 교호 사명 대광보국승록대부 겸 영의정 송운당 대선사 진영’이라 적었다. 사명 유정은 의좌상으로 화면 좌향하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얼굴은 수염이 비교적 간소화되었으며, 지물은 왼손에는 주장자, 오른손은 염주를 들고 있다. 가사는 문양이 없이 표현되었으며, 바닥은 화문석으로 표현하였다. 상호 표현, 오정색의 어깨 장식, 주장자와 염주 등의 표현으로 보아 19-20세기 진영의 특징이 드러난다.

[참고문헌]

박주영, 「四溟 惟政(1544-1610) 真影 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미술사전공 석사학위논문, 2018.



증언 ^{?-?}

證彥 JeungEon

금강권보살, 금강애보살 金剛拳菩薩, 金剛愛菩薩
Vajrapani Bodhisattva, Vajraraga Bodhisattva

배점 Mount on Panel
종이에 채색 Color on Paper
각 126×66cm

₩ 15,000,000-30,000,000

본 작품은 화면의 우측 화기를 통해 각각 금강권보살과 금강애보살을 그렸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보살은 조선 후기 『작법귀감作法龜鑑』, 『천지명양수륙재의범음산보집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 『영산대회작법절차靈山大會作法節次』, 『요집要集』 등 의식집에서 주로 등장하는 보살들이다. 『천지명양수륙재의범음산보집』의 내용을 보면 ‘팔금강과 사보살께 예를 올리는 법’에서 금강권보살, 금강색보살, 금강애보살, 금강어보살을 청하는 방법을 적고 있다. 본 작품의 화기에서 각 보살을 봉청奉請하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의식집에 의거한 수륙재 등의 의식에서 도량을 장엄하는 불화로 그려진 것으로 생각된다.

작가를 의미하는 금어金魚에는 증언證彥이 기록되어 있다. 증언은 19세기 후반 전라도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한 화승으로, 1893년 백양사 관류암 관음전에 봉안된 <삼세불도>, 정토사 청류암에 봉안된 <신중도>를 수화승으로 조성하였다. 따라서 본 작품은 19세기에 조성된 도량장엄용 불화로 생각된다.



奉請金剛拳菩薩 금강권보살을 받들어 청합니다.

施化兼清岳萬河發願文

證明 化南大年 증명
金魚 證彥 금어 증언

奉請金剛愛菩薩 금강애보살을 받들어 청합니다.

施化兼清岳萬河發願文

추사 김정희 1786-1856

秋史 金正喜 Kim JeongHui

관음경운 觀音經云 Poem

액자 Framed

종이에 먹 Ink on Paper

18×1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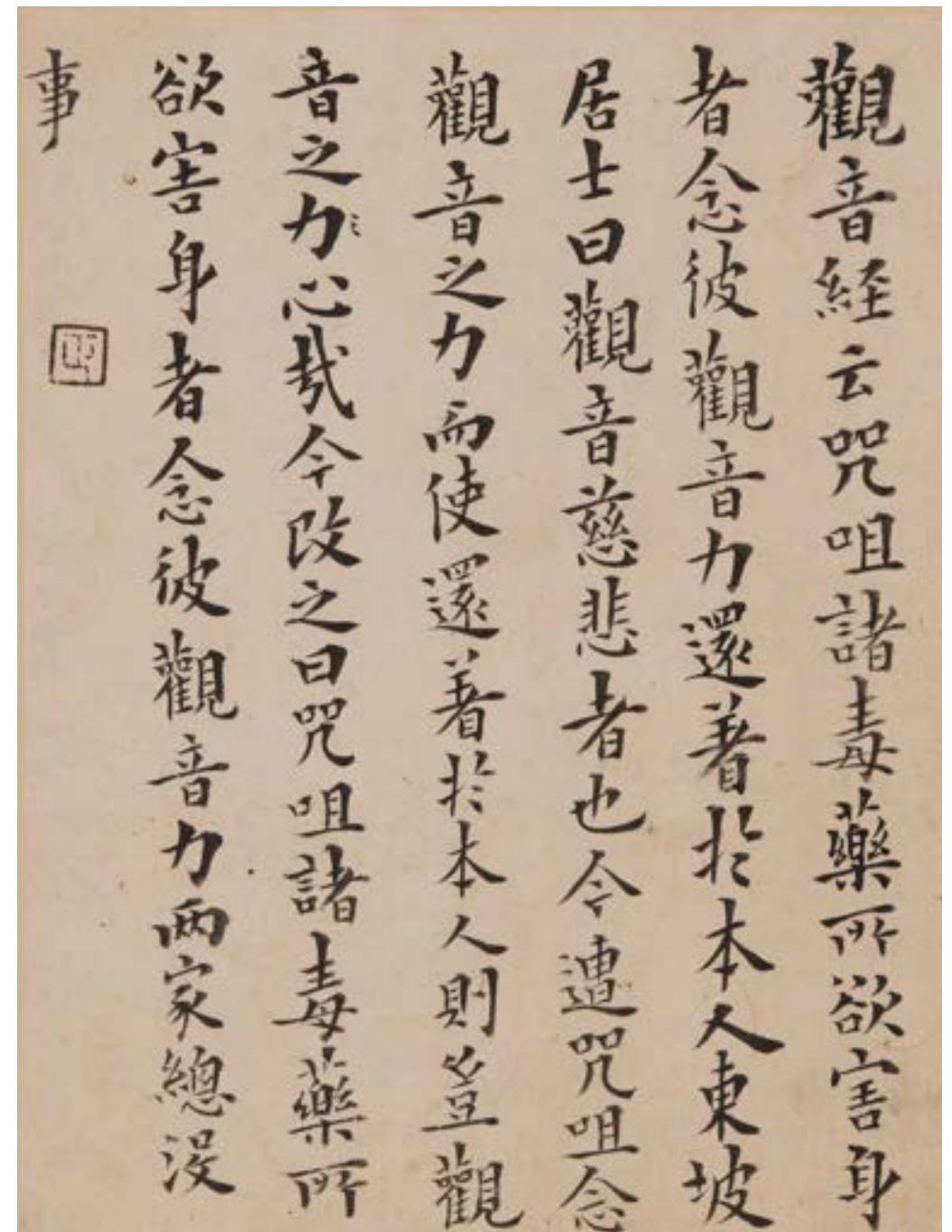
₩ 7,000,000-15,000,000

관음경운, 咨呴諸毒藥, 所欲害身者, 念彼觀音力, 還著於本人. 東坡居士曰, 觀音慈悲者也. 今遭呴呴, 念觀音之力, 而使還著於本人, 則豈觀音之心哉. 今改之曰, 咨呴諸毒藥, 所欲害身者, 念彼觀音力, 兩家總沒事.

《관음경观音經》에 이르기를, “독약으로 저주를 걸어 남의 몸을 해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저 관음의 힘을 염불하면 해치려던 본인에게 해가 돌아간다.”라고 하였다. 동파거사 東坡居士가 말하기를, “관음은 자비로운 분이다. 지금 저주를 만나서 관음의 힘을 염불하여 피해가 본인에게 돌아가게 만든다면 어찌 관음의 마음이겠는가. 지금 바꾸고자 하니, 독약으로 저주를 걸어 남의 몸을 해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저 관음의 힘을 염불하면 두 사람 모두 원한이 풀리리라.”라고하였다.

[인문] 正

이 글은 송宋 소식(蘇軾, 1037-1101)의 《동파지림東坡志林》 권2에 수록되어 있다.



추사 김정희 1786-1856

秋史 金正喜 Kim JeongHui

간찰 簡札 Letter

1834

액자 Framed

종이에 먹 Ink on Paper

32×51cm

₩ 8,000,000-15,000,000

完城 琴江 謝牘 금강에서 답장함

省式謹封 생식근봉

金書房 靜史 回傳 전주 김서방 정사께 회전함

國哀普切罔極, 小大維勻, 腾尾冉冉, 遠想懸懸, 卽承惠械, 從審歲寒, 靜履晏勝, 慰瀉如水. 第青燈趣味, 自課兒能得幾分佳況, 庸是更溯. 不佞抱痛窮山, 尤無陽界想, 而近又省候, 感症頻愆, 焦撓度日, 無足遠聞耳.

俯惠珍種照收, 認出情存, 審荷厚注, 且謝且謝. 新冀忘略伴似. 莞領是企, 餘冀文字吉利, 迓新增祺, 姑留不宣式.

甲午臘月廿五日, 正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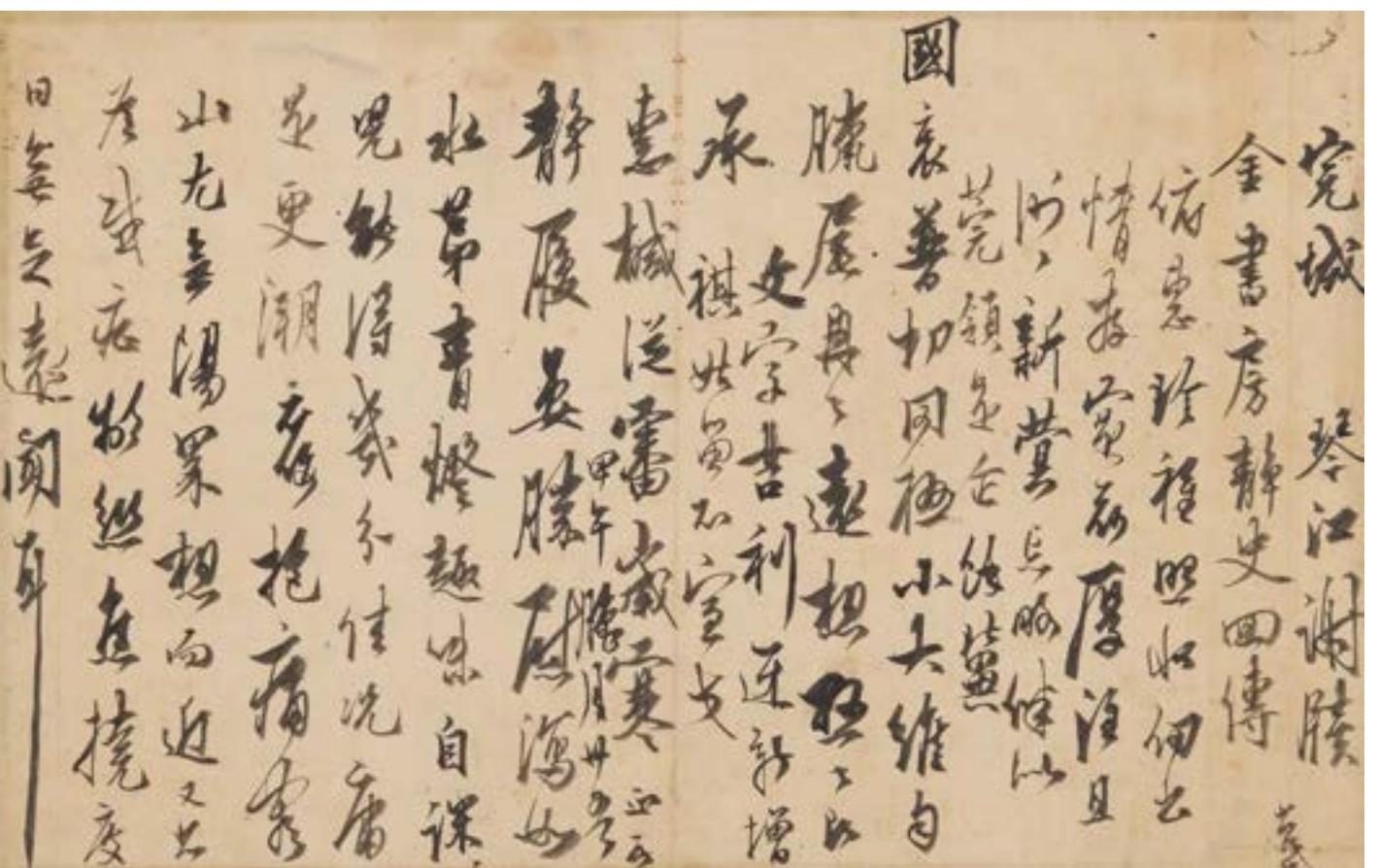
국상國喪에 온 나라의 망극한 심정이 고관이나 백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설달의 끝자락이 뉘엿뉘엿 흘러 멀리서 그리움이 간절하던 차에 보내주신 편지를 막 받고서 설달 추위에 조용히 계시는 생활이 평안하심을 알게 되었으니, 시원스레 위안이 되었습니다. 다만 푸른 등불 아래의 취미가 아이들 가리키며 얼마나 좋은 근황을 누리시는지 이것이 더욱 궁금합니다.

자[不佞]는 고통을 안은 채 깊은 산중에서 세상을 살아갈 생각이 더욱 없는데, 근래 또 어버이의 환후가 감기에 자주 걸리시기 때문에 애를 태우며 날을 보내니, 멀리 알려드릴 것이 못됩니다.

보내주신 진귀한 물건은 숫자대로 잘 받았으니, 정에서 우러나와 깊은 관심을 받은 것이니, 매우 감사합니다. 새해 달력을 약소하나마 올리오니, 웃으며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문자 생활이 길하시고, 새해를 맞아 더욱 복을 받으시기를 빌며, 이만 편지의 격식을 갖추지 않습니다.

갑오년(1834) 12월 5일, 정정이 조아립니다.

본 작품은 근신 중인 김정희가 1834년 12월 25일에 전주의 김서방에게 보낸 답장이다. 상대방의 편지를 받고 위안이 되었다는 것, 자신은 세상을 살아갈 애착이 없는데다 어버이가 감기에 자주 걸려 걱정이라는 것, 보내준 물건을 잘 받아 매우 감사하다는 내용이다. 이 당시 김정희는 윤상도(尹商度, 1768-1840)의 옥사로 인해 생부 김노경(金魯敬, 1766-1837)이 4년 전에 고금도古今島에 유배된 것에 대한 억울함을 격쟁擊錚하다가 의금부에 붙잡혔는데, 얼마 뒤에 풀려나 서울의 성동구 금호동 부근에서 근신중이었다. 피봉의 '금강琴江'이란 금호동을 가리키면서 김정희의 별호이기도 하다.



홍두산인 옹수곤 1786-1815

紅豆山人 翁樹崑 Weng Shukun

간찰 簡札 Letter

1813년 경

액자 Framed

종이에 먹 Ink on Paper

16×54.8cm

₩ 2,000,000-5,000,000

雲卿庚兄足下, 久違雅範, 驳溯良深, 遙訂鱗鴻, 幸無阻滯, 報拜寵函, 備承厚眷, 又蒙惠寄, 多珍種種領謝, 知紫霞
□函, 已達台覽. 今春沈斗室提學歸去, 亦曾肅泐乙函, 又附於紫霞札內保. 洪面嶽顥山李大圭稚圭柳貞碧李仁溪諸
友, 可能時相過從否. 文社詩壇名流唱和之雅集, 幸乙錄示, 無負遠人之望, 兄書邇來, 筆路大進, 可喜可賀. 擦篋
得家藏宋四賢天冠山帖石本一弓, 此便寄上, 祈覆瓿觀耳, 專此肅陳, 統希垂照. 臨書馳切, 不宣.

庚弟翁樹崑拜啓.

尊甫老先生萬安, 閣潭迪吉, 不備.

手製臨帖筆二枝墨二粒蟬聯箋十番汗呈, 啓存是荷.

운경雲卿 경행(庚兄, 동갑 형) 족하께.

오래도록 모습을 뵐지 못해 그리움이 매우 깊었는데, 멀리서 잉어와 기러기가 전해준 서찰이 다행스레 막힘이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편지를 받고서 두터운 관심을 두루 받았고, 또 보내준 물건을 받으니, 여러 가지 진귀한 물건을 받아 감사합니다. 또 자하紫霞¹⁾ 어른에게 보낸 편지가 이미 도착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을 봄에 심두실沈斗室²⁾ 제학이 귀국하는 편에 또한 일찍이 공손히 편지를 썼고, 또 자하에게 보내는 편지에 부쳤습니다. 흥연악(면악 흥기설, 面嶽 洪起燮, 1776-1831), 흥과산(洪顆山, ?-?), 이대규(李大圭, 1738-1812), 이치규(李稚圭, ?-?), 유정벽(정벽 유최관, 貞碧 柳最寬, 1788-1843], 이인계(李仁溪, ?-?) 등 여러 벗들과 때로 서로 어울리십니까. 문사文社와 시단詩壇의 명류名流들이 시를 창작하는 고상한 모임에 대해 부디 자세히 적어 보여주시어, 멀리서 고대하는 사람의 희망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요즈음 형의 편지를 보면 뜻을 크게 진보하였으니, 기쁘고 경하스럽습니다.

상자를 뒤져 집안에 소장된 송나라 4현의 《천관산첩天冠山帖》³⁾ 탁본첩 1권을 이번 인편에 부쳐 올리오니, 항아리 덮개로 쓰면서 보십시오. 이만 줄이오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편지를 마주하니 마음이 달려 갑니다. 이만 줄입니다.

경제庚弟 옹수곤翁樹崑이 아립니다.

부친 노선생께서 두루 평안하시고, 온 가족들이 길하시기를 빌며 이만 줄입니다.

손수 만든 임모첩, 볶 2자루, 먹 2개, 선련전蟬聯箋 10권을 보내오니, 웃으며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인문] 星原啓事

1) 자하紫霞는 신위(申緯, 1769-1845)의 호로 1812년 진주겸주청사陳奏兼奏請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2) 심두실沈斗室은 두실 심상규(斗室 沈象奎, 1766-1838)를 가리키며, 1812년(순조12) 10월에서 이듬해 3월에 걸쳐 성절사聖節使 정사正使로서 연경燕京에 다녀왔다.

3) 천관산첩天冠山帖은 천관산은 강서성 귀계貴溪에 있는 산인데, 원(元, 1271-1368) 조맹부(趙孟頫, 1254-1322)가 일찍이 이곳에서 천관산 24경을 읊은 시를 지어 귀계의 풍광을 읊어 첨으로 만들었다. 이 첨이 청(淸, 1616-1912) 전영(錢泳, 1759-1844)에 의해 판각되었는데, 조맹부의 글씨가 아름다워 많은 사람들의 애호를 받았다.

본 작품은 옹방강(翁方綱, 1733-1818)의 아들 옹수곤(翁樹崑, 1786-1815)이 1813년 경에 조선의 조용진(曹龍振, 1786-?)에게 보낸 편지이다.

서두에서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그리움과 편지와 선물을 받은 반가움을 표하였다. 중반부에서는 자하 신위 및 두실 심상규 등에게도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적었고, 조용진이 조선의 지인들과 두루 교유하고 있는지 소식을 물었다. 후반부에서는 조선의 시인 묵객들의 고상한 모임에 대해 자세히 알려줄 것과 집안에 소장된 《천관산첩天冠山帖》탁본을 보낸다는 내용이다. 말미에는 여러 가지 선물 목록이 실려 있다.

조용진은 본관이 창녕昌寧, 자는 운경雲卿이다. 조운대(曹允大, 1748-1813)의 아들로 1823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 시강원, 사헌부 등의 내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조운대가 1811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동지사의 정사正使로 연경에 다녀왔는데, 이때 조용진 또한 연행燕行을 하여 옹수곤과 교유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동도회첩

同道會帖

Album of the Gathering of Like-minded Companions

1634

첩 Scrapbook

종이에 먹 Ink on Paper

35.2×20cm

₩ 5,000,000-10,000,000



<동도회첩동도회帖>은 경상도 출신의 관원과 유생들이 1634년 5월에 장원서掌苑署에서 모여 술잔을 나눈 모임을 기록한 첨이다. 모임의 계기는 1633년에 세자책봉 주청사의 부사副使로 연경에 다녀온 김영조(金榮祖, 1577-1648)를 축하하기 위함인데, 이를 통해 그간 침체되었던 경상도 출신 인사들의 친목 모임을 부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있었다.

참여 인원은 모두 35명으로 고관은 참석하지 않았고, 중하급 관료와 진사, 생원 등이 주를 이룬다. 첨의 제목과 내제는 모두 '동도회첩'으로 동일하다. 내용의 맨 앞에는 참석자의 좌목座目이 실려 있는데, 관직-성명-자자-출생년도-거주지의 순으로 되어 있다. 뒷부분에는 한사 강대수(寒沙 姜大遂, 1591-1658)가 1634년 7월에 초서로 쓴 서문이 실려 있는데, 강대수의 문집 《한사문집寒沙文集》 권5에 <동도회첩서동도회帖序>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吾嶺人仕于京者，爲同道會，古事也。於今宦遊，落落無幾，視古殆十之一，而鞅掌從事，簪盍甚罕，茲會之不講也久矣。談者介焉。今年夏，奏請副使金公孝仲，準事旋槎，率土所同慶，而相愛之私相慶，亦情也。同道如干人，相與約會于掌苑署，執爵而賀金公，時蕤賓之十一日也。外官之來奉賀箋也，上舍自泮至也，坐用齒，循鄉黨也。慰遠行而叙阻澗，修古事而存厚誼，甚盛舉也。咸曰此會不可不識，屬余掌其事，遂鳩造此帖，且記其顛末云。
崇禎甲戌初秋上澣，晉陽姜大遂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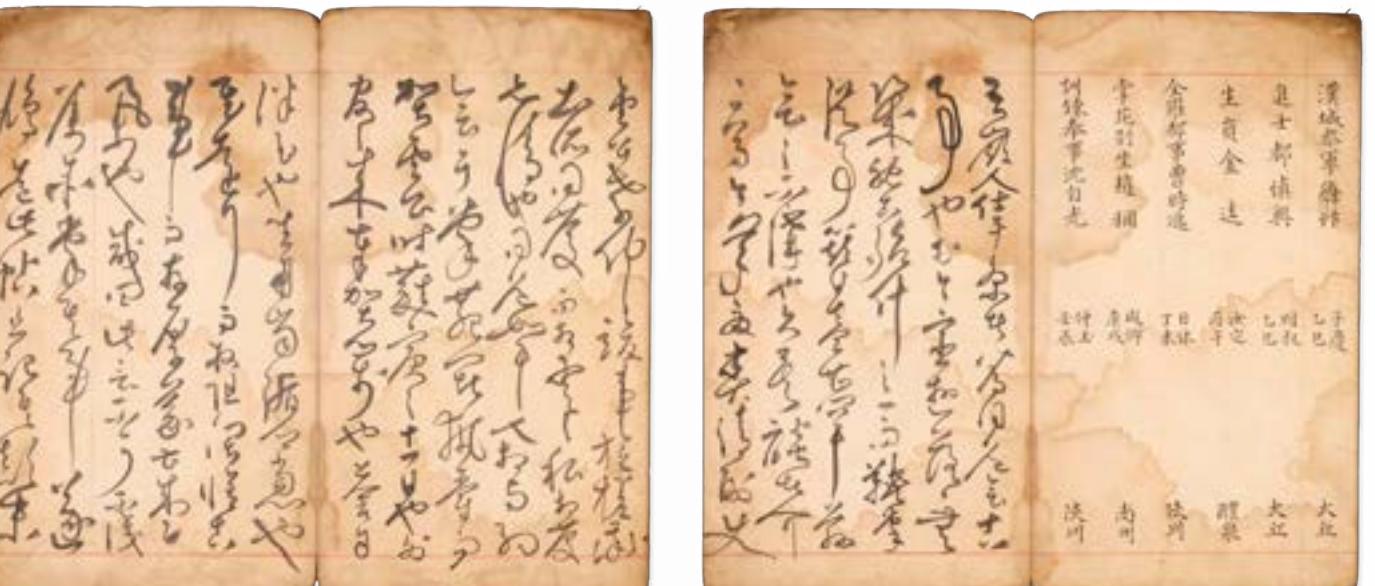
우리 영남 사람들이 서울에서 벼슬을 하며 동도회동도회를 만든 것은 오래된 일이다. 지금 벼슬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지 않아 옛날에 비하면 거의 10분의 일에 불과한데, 벼슬살이에 바빠서 함께 모이는 일도 매우 드물니, 이 모임이 강구되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으므로 담론하는 사람들이 유감스럽게 여겼다.

올해 여름에 주청 부사奏請副使 김공 효중金公孝仲¹⁾이 일을 완수하고 돌아오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사스럽게 여겼으니,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 서로 경하해줌은 또한 심정에 맞는 일이다.

같은 도에 사는 약간의 사람들이 장원서掌苑署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술잔을 잡고 김공에게 축하를 하니, 때는 유빈(蕤賓, 5월)의 11일이었다. 외관外官들이 와서 하전賀箋을 올리고, 상사上舍들이 성균관에서 이르자, 나이 순서대로 자리를 정하니 향당鄉黨의 예법을 따른 것이다. 먼 여행길을 위로하고 격조했던 회포를 펴면서 옛 사적을 따라서 두터운 우의를 다지니, 참으로 성대한 일이었다. 모두가 말하기를 “이 모임을 기록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나에게 그 일을 맡기기에 그리하여 이 첨을 만들고 그 전말을 기록하노라.

송정崇禎 갑술년(1634) 초가을 상한, 진양晉陽 강대수姜大遂가 기록하다.

1) 김공 효중金公孝仲은 김영조(金榮祖, 1577-1648)를 가리키며 효중은 그의 자자이다. 본관은 풍산豐山, 호는 망와忘窩이다. 김대현金大賢의 아들이며, 김성일(金誠一, 1538-1593)의 사위이다.



017

금재 김득신 1754-1822

競齋 金得臣 Kim DeukSin

앵전연가 鶯囀燕歌 Birds and Flowers

액자 Framed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Color on Paper

30.5×34.3cm

₩ 40,000,000-70,000,000

鶯囀千絲柳 앵무새는 천가닥 버들에서 조잘대고
燕歌萬點桃 제비는 만 송이 복사꽃에서 노래하네

競齋 금재

[인문] 賢輔



[수록처]

1. 東方畫廊, 『韓中古書畫名品選』2, 1987, p.55.
2. 仁友會, 『秘玩古美術精品展』, 1994, p. 95.

화산관 이명기 1756-1813 이전

華山館 李命基 Lee MyeongGi

경작도 耕作圖 Scene of Cultivation

족자 Hanging Scroll

비단에 수묵담채 Ink and Color on silk

86.7×30.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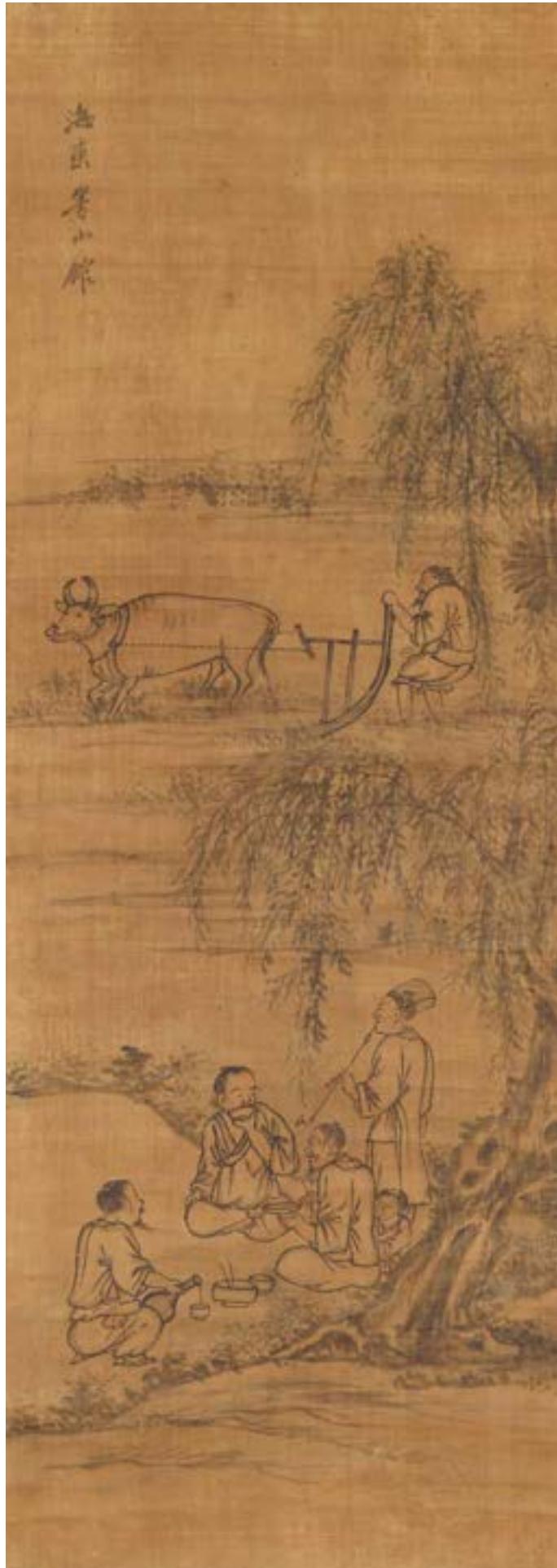
₩ 35,000,000-60,000,000

海東華山館 해동 화산관

화산관 이명기(華山館 李命基, 1756-1813 이전)은 조선 후기에 활동한 화가로, 정조 어진 제작에 참여하는 등 초상화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한 궁중 화원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동시에 풍속화도 남기며 궁중과 민간 회화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이명기의 풍속화는 김홍도, 신윤복으로 대표되는 조선 후기 풍속화의 흐름 속에서, 과장된 장면보다는 일상의 한 장면을 차분하게 포착하는 데 집중하며 화면 속 인물들은 생활 속 자연스러운 동작과 관계 속에서 배치된다. 궁중회화에서 비롯된 정확한 선묘와 절제된 필법과 수묵담채의 채색은 과도한 장식성을 배제하고, 장면의 사실성과 품격을 동시에 확보한다.

본 작품은 이명기의 풍속화 특징을 잘 보여준다. 전경에는 사람들이 경작하다 나무 아래에서 새참을 먹고 쉬고 있다. 네 명의 남성이 대각선 구도로 배치되어 있고 아래 남성들은 삼각 구도로 앉아 있는데 대접을 들고 음식을 먹는 정면의 남자, 젓가락을 친 옆모습의 남성, 그의 등 뒤로 아들로 추정되는 어린아이, 뒤통아 앉아 술을 따르고 있는 사람을 자연스러우면서 단정한 필치로 표현하였다. 팔 소매를 걷고 음식을 먹고 있는 남자들과는 달리 긴 담뱃대를 피며 먼 곳을 응시하는 남자는 사방관을 쓰고 깔끔하고 반듯해 보이는 복식으로 보아 일을 감시하는 관리자로 추측해본다. 원경에는 흐드러져 있는 버드나무 옆으로 소를 끌며 열심히 경작하는 일꾼의 모습도 보인다. 다각도의 시선이 평면적인 화면에 생기를 준다. 이명기는 장면 속에 감정을 개입시키기보다 일정한 관찰자적 시점을 유지하며, 관람자가 그림을 읽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거리감의 균형은 서민적 해학을 전면에 내세운 동시대 풍속화와는 다른 작가의 개성을 형성한다.

화산관 이명기의 풍속화는 어진 화원으로서의 확실한 화경화格을 지닌 작가의 비공식적 화업을 보여주는 희소한 작품군이다. 미술사적 위치로는 조선 후기 풍속화의 스펙트럼을 확장하는 사례로 궁중회화와 풍속화 사이의 연결고리를 보여주며 또한 조선 후기 사회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작품으로서 주목할 가치를 지닌다.



[참고도판]

전 이명기 필 <풍속도>, 조선, 97.3×30.9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덕수 1012).



희현당 신숙주 1417-1475

希賢堂 申叔舟 Shin SukJu

만학추풍 萬壑秋風 Poem

족자 Hanging Scroll

종이에 먹 Ink on Paper

26×25.3cm

₩ 30,000,000-50,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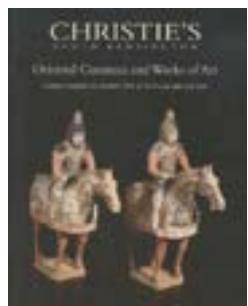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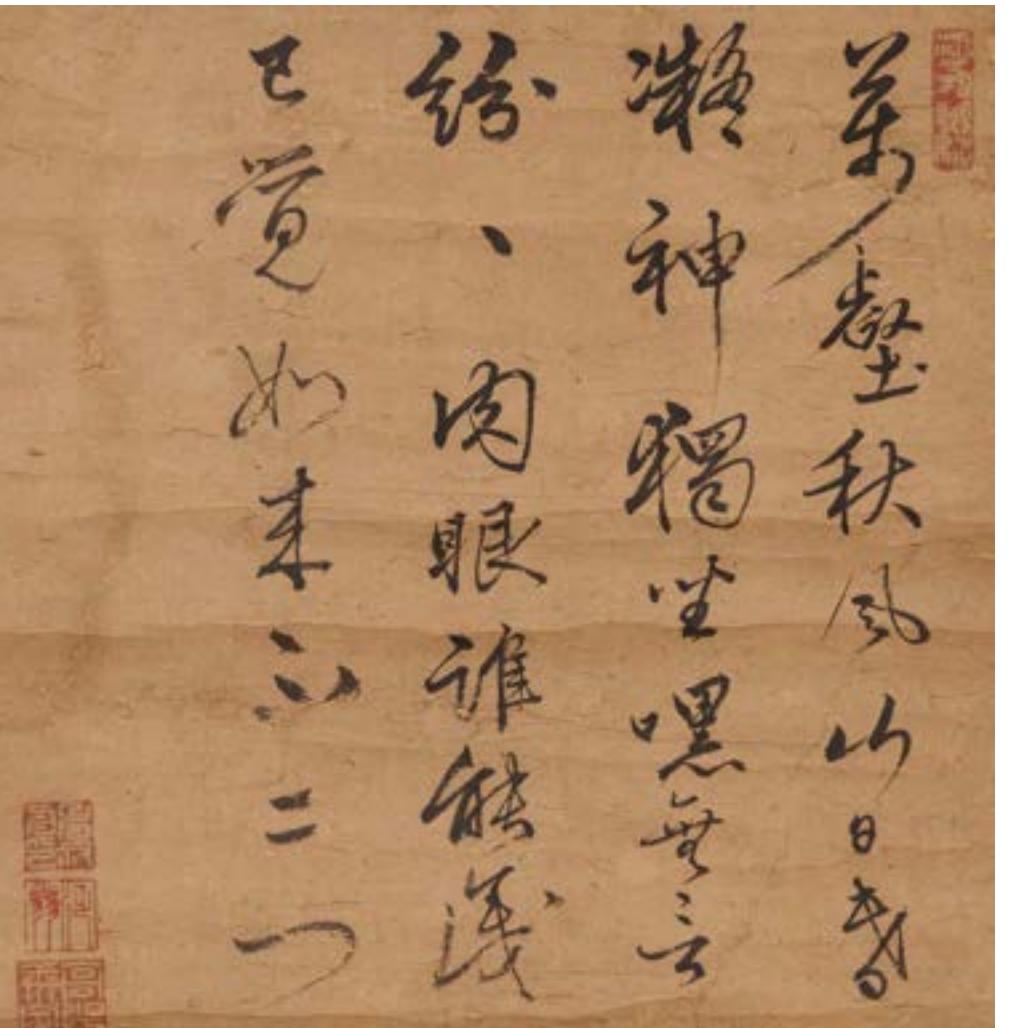
신숙주(申叔舟, 1417-1475)의 자는 범옹泛翁, 호는 희현당希賢堂, 보한재保閑齋, 본관은 고령高靈,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1438년 22세로 진사시에 장원급제하고, 이듬해 문과에서 3등으로 합격하였다. 1441년부터는 세종(世宗, 재위 1418-1450)의 명에 따라 집현전에서 일했으며, 이후 성삼문 등과 함께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와 반포에 적극 노력하였다. 또한 문종(文宗, 재위 1450-1452)대에는 『고려사高麗史』와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편찬에도 참여하였다.

신숙주는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킨 이후 정난공신靖難功臣 2등에 책봉되었다. 1455년 수양대군이 세조(世祖, 재위 1455-1468)로 즉위한 직후에는 도승지都承旨에 임명되었으며, 이후 영의정領議政에 이르렀다. 신숙주는 세종대 한글 창제 공적에 더불어 농업과 축산업에 대한 서적 편찬에도 관여하였으며, 세조대 외교, 국방 등에 공을 세웠고, 성종(成宗, 재위 1469-1494)대까지 영의정을 역임하였다.

萬壑秋風日晉 온 골짜기 가을바람 불어 산속 해는 어둑한데
凝神獨坐嘿無言 정신을 모아 홀로 앉아서 묵묵히 말이 없네
紛紛肉眼誰能識 분분한 속세 안목으로 누가 능히 알라
已覺如來不二門 석가여래의 불이문¹⁾를 이미 깨달았음을

[인문] 江□晚□, 申叔舟印, 泛翁, 高陽世家

1) 불이문不二門은 불이법문不二法門의 약칭으로 상대적 차별을 끊어 절대 평등한 세계를 가리키는 말이다. 생성과 소멸, 선과 악, 나와 남, 색과 공, 언어와 문자까지 초월해야 절대 평등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출품 이력]

Christie's, London, Oriental Ceramics and Works of Art, 1996, Lot 84.



퇴계 이황 1501-15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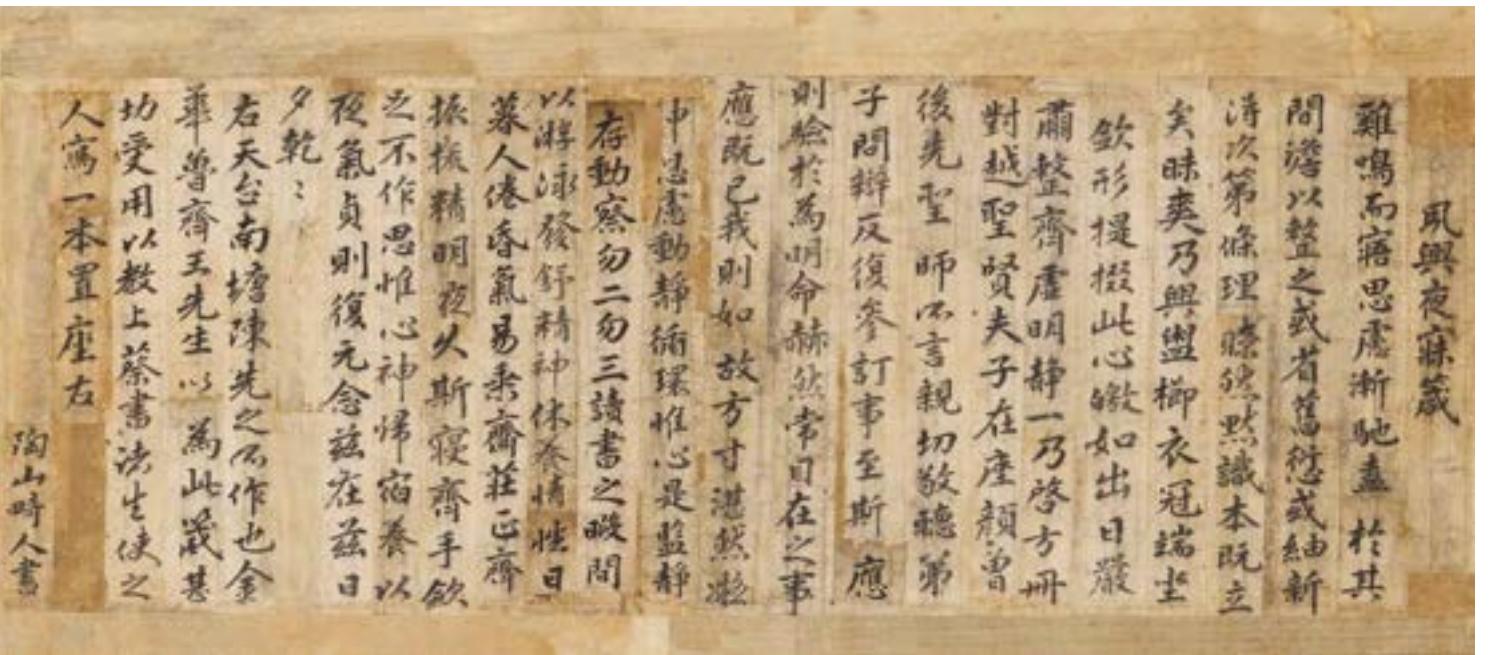
退溪 李滉 Lee Hwang

숙홍야매잠 夙興夜寐箴 Poem

액자 Framed
종이에 먹 Ink on Paper
45×100cm

₩ 25,000,000-50,000,000

<숙홍야매잠夙興夜寐箴>은 송宋 진백(陳柏, ?-?)이 지은 4언의 운문이다. 진백의 자는 무경茂卿으로, 남당南塘 선생으로 불렸다. 노재 왕씨魯齋王氏로 알려진 왕백(王柏, 1197-1274)이 이 글을 읽고 감명을 받은 나머지 상채上蔡의 서원書院에서 이 잠을 가지고 제생諸生을 가르치는 한편 좌우명으로 삼으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조선의 성리학자들 역시 이 잠을 중시하였는데, 이황은 선조(宣祖, 재위 1567-1608)에게 올린 《성학십도聖學十圖》에 이 잠을 채록한 바 있으며, 노수신(盧守慎, 1515-1590)이 이황 및 김인후(金麟厚, 1510-1560)와 서신을 왕복하면서 질의문답을 거친 끝에 자세히 정리한 해설이 《소재집鯀齋集》〈내집內集〉에 수록되어 있다.



夙興夜寐箴

我則如故 나는 예전처럼 변함이 없이
方寸澹然 방촌을 맑은 물처럼 유지하며
凝神息慮 정신을 모으고 생각을 쉬어야 한다

動靜循環 동과 정이 순환하는 중에
惟心是監 오직 나의 마음을 돌아볼지니
靜存動察 고요할 땐 존양하고 움직일 땐 성찰하여
勿貳勿參 둘이 되거나 셋이 되어선 안 되리라
讀書之餘 글을 읽다가 여가 생기면
間以游泳 이따금 한가로이 나들이도 하여
發舒精神 정신을 발산해 펴기도 하며
休養情性 쉬면서 성정을 길러야 하리라

夙興而寤 닦 읊에 잠에서 깨어나면
思慮漸馳 사려가 점차 내달리게 되니
蓋於其間 어찌 그 사이에서
澹以整之 담담한 마음으로 정돈하지 않으랴
或省舊愆 지난날의 허물을 반성도 하고
或紬新得 새로 얻은 실마리를 풀어보기도 하여
次第條理 차근차근 조리에 맞게 되면
瞭然默識 명료하게 묵묵히 알게 될 것이다

本既立矣 이처럼 근본을 세운 뒤에
昧爽乃興 동이 트면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盥櫛衣冠 세수하고 빗질하고 옷과 관을 정돈하여
端坐斂形 단정히 앉아 의모를 단속해야 하리라
提掇此心 이 마음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皦如出日 떠오르는 태양처럼 밝게 만들어
嚴肅整齊 엄숙한 자세로 가지런히 바로잡아
虛明靜一 텅 비고 고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乃啓方冊 이에 비로소 서책을 펼치고서
對越聖賢 성현의 말씀을 마주 대해야 하니
夫子在坐 부자께서 자리에 앉아 계시고
顏曾後先 안자와 증자가 앞뒤로 서 있도록
聖師所言 성인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親切啟聽 간절한 마음으로 공경히 듣고
弟子問辨 제자들이 묻고 토론한 말을
反復參訂 반복해서 연구해야 하리라

事至斯應 일이 닥쳐 응수할 때에는
則驗于爲 하는 일마다 징험을 하며
明命赫然 밝은 명이 성대히 빛나도록
常目在之 항상 눈길을 주어야 한다
事應既已 응수하는 일이 끝나면

右天台南塘陳先生之所作也. 金華魯齋王先生, 以爲此
箴甚切受用, 以教上蔡書諸生, 使之人寫一本置座右.
이상은 친태天台의 남당南塘 진선생陳先生이 지은 글이
다. 금화金華의 노재魯齋 왕선생王先生은 이 잠箴이 매
우 절실하여 활용할 만하다고 여겨 상채上蔡 서원의 제생
들을 가르쳤고, 그들로 하여금 각자 1본씩 베껴서 좌석 곁
에 두도록 하였다.

夙興夜寐箴

雞鳴而寤思慮漸馳盡於其

間澹以整之或省舊愆或紬新
清次第條理瞭然默識本既立對越聖賢夫子在座顏曾
肅整齊虛明靜一乃啓方冊後先聖師不言親切啟聽弟子
間辨反復參訂事至斯應

則驗於爲明命赫然常目在之事

應既已我則如故方寸澹然澈

中忘慮動靜循環惟心是監靜

存動察勿二勿三讀書之暇間
以游泳發舒精神休養情性日

慕人倦春氣易素齋莊正齋

振拔精明夜火斯寢齋手飲
之不作思惟心神暢宿養以夜氣貞則復元念茲在茲日
夕乾:右天台南塘陳先之所作也. 金華魯齋王先生以爲此
箴甚切受用, 以教上蔡書諸生, 使之人寫一本置座右.
이상은 친태天台의 남당南塘 진선생陳先生이 지은 글이
다. 금화金華의 노재魯齋 왕선생王先生은 이 잠箴이 매
우 절실하여 활용할 만하다고 여겨 상채上蔡 서원의 제생
들을 가르쳤고, 그들로 하여금 각자 1본씩 베껴서 좌석 곁
에 두도록 하였다.

송애 김경여 1596-1653

松崖 金慶餘 Kim GyeongYeo

우암 송시열 1607-16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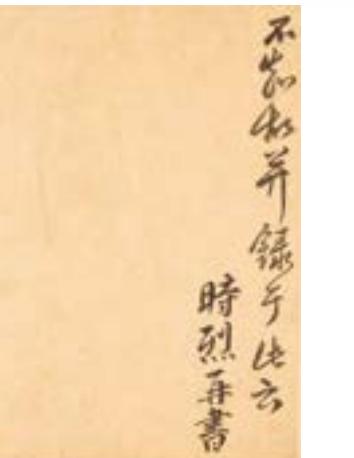
尤庵 宋時烈 Song SiYeol

송애유소첩 松崖遺疏帖 Album of Songae's Memorial Petitions

첩 Scrapbook

종이에 먹 Ink on Paper

39×27cm



₩ 20,000,000-40,000,000

《송애유소첩松崖遺疏帖》은 송애 김경여(松崖 金慶餘, 1596-1653)¹⁾가 조정에 올린 상소문과 비답, 아들에게 준 경계의 글, 송시열이 송애를 기린 글 등을 모아 만든 첩이다. 글은 대부분 《송애집松崖集》에 수록되어 있다.

첩의 맨 앞에는 김경여가 임종 직전인 계사년(1653) 5월 12일에 효종 임금에게 올린 상소가 실려 있다. 내용은 오늘날 무너진 강상綱常을 회복하여 대의大義를 밝히는 것이 급선무인데, 이를 위해서는 임금이 큰 뜻을 세워 학문에 힘쓰고, 현자를 친하게 대하고 소인을 멀리해야 하며, 인재는 다른 곳이 아니라 지금 임하林下에서 발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송시열의 글에 따르면, 김경여는 죽음이 닥쳐오자 송준길(宋浚吉, 1606-1672)의 아들 송광식(宋光栻, 1625-1664)을 불러 유소遺疏 수백 언을 기초起草하게 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이 상소는 송광식이 쓴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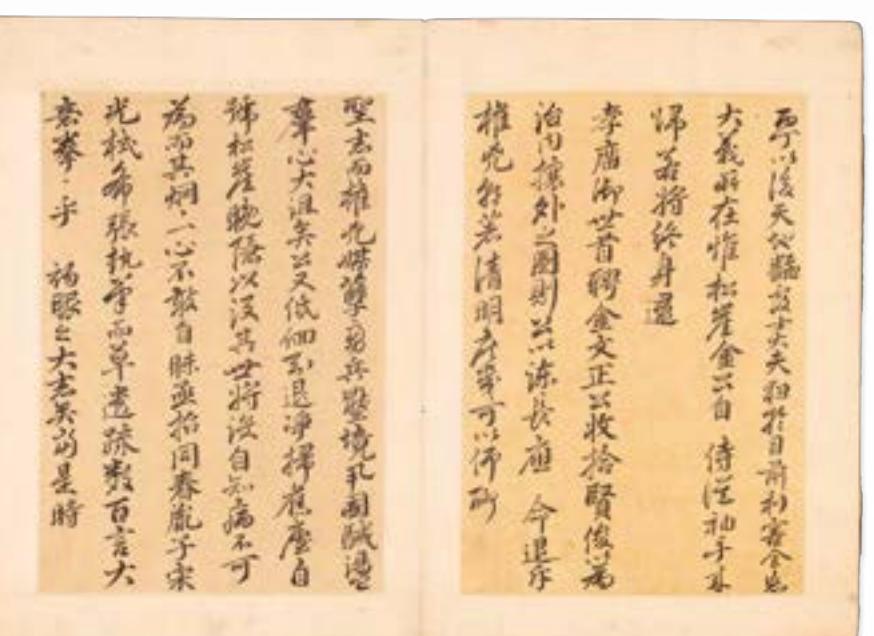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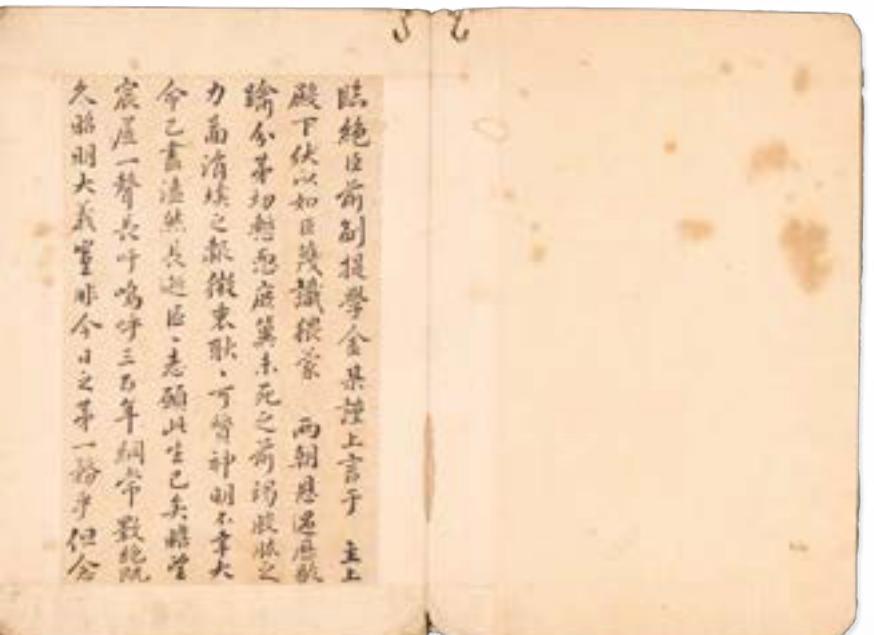
다음에는 1653년 5월 16일에 효종이 김경여의 상소를 가상하게 여기면서 내린 비답이 큰 글씨로 적혀 있는데, 사관史官이 쓴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는 '시수아示粹兒'라는 제목의 글이 실려 있는데, 맏아들 김진수(金震粹, 1622-1673)에게 집안의 제반 사항을 송준길, 송시열에게 물어서 처리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다. 글씨는 송규정(宋奎禎, ??)을 시켜 쓴 것이다.

다음 노란색 종이에 적은 글은 송시열이 을축년(1685) 6월 상순에 쓴 발문이다. 송애 김경여가 효종의 인정을 받다가 간신들의 핍박을 받아 초야에 묻혀 지내게 된 내력, 이 첩이 만들어진 과정과 자신의 느낌을 서술한 내용이다. 송시열의 친필이다.

마지막에 붙은 '우발又跋'이란 제목의 글은 송애 김경여가 정신과 기운이 명료한 상태로 임종하던 광경, 신독재 김집(慎獨齋 金集, 1574-1656)이 송애의 임종에 대해 군자가 바르게 생을 마치는 도리로 칭송하였다 내용의 추가 발문이다. 송시열의 친필이다.

1) 김경여의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유선由善, 호는 송애이다. 김장생(金長生, 1548-1631)의 문인으로 송준길·송시열과 친교가 두터웠다. 정언正言·지평持平 등을 지내고, 병자호란 때 인조를 호종하여 남한산성에 피란하였다. 이듬해 청나라에 항복한 뒤에는 조정에 나가지 않고, 고향 회덕懷德으로 돌아갔고 조정에서 여러 차례 대간臺諫에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1649년(효종1) 대사간이 되어 김자점(金自點, 1588-1651)의 잘못을 탄핵하였으며 이듬해 충청도 관찰사가 되어 군사력 배양에 힘썼다. 이어 부제학·부提學에 임명되었으나 병으로 사퇴하였다. 문집에 《송애집松崖集》이 있다.



022

원교 이광사 1705-1777

圓嶠 李匡師 Lee Guang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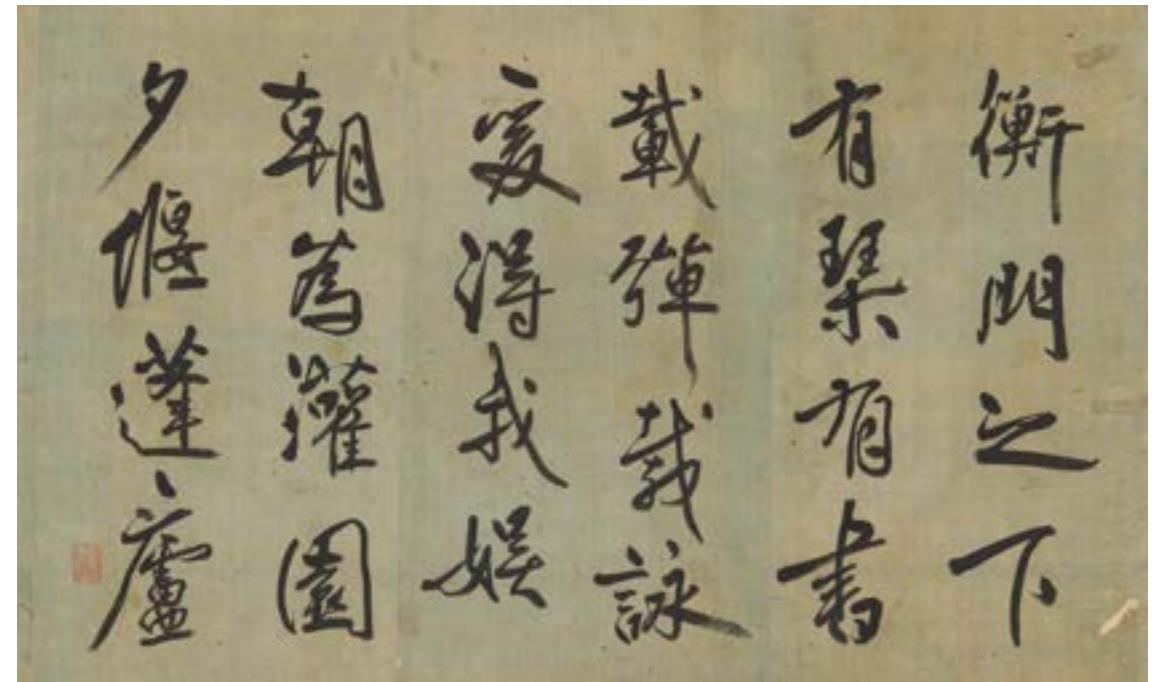
답방참군 答龐參軍 Poem

액자 Framed
비단에 먹 Ink on Silk
29×47.7cm

₩ 1,500,000-3,000,000

衡門之下 지게문 아래에
有琴有書 거문고도 있고 책도 있네
載彈載詠 거문고를 타고 시를 읊조리며
爰得我娛 내 즐거움으로 삼는다네
朝爲灌園 아침에는 밭에 물을 주고
夕偃蓬廬 저녁에는 숙대 움막에 누워 잔다네

[인문] ○○



중국 동진(東晉, 317-420)의 시인 도연명(陶淵明, 365-427)의 <방참군에 답하다[答龐參軍]> 시의 구절이다. 소박한 일상 속에서 음악, 독서를 통해 마음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노동과 휴식을 이어가는 청빈하고 만족스러운 삶의 태도를 보여준다.

Lot.023

추사 김정희
秋史 金正喜 Kim JeongHui

완당선생자서 석노시첩
阮堂先生自書石磬詩帖 Poems



추사 김정희 1786-1856

秋史 金正喜 Kim JeongHui

완당선생자서 석노시첩 阮堂先生自書石磬詩帖 Poems

첩 Scrapbook
종이에 먹 Ink on Paper
32×18.2cm

₩ 100,000,000-300,000,000



阮堂先生自書石磬詩帖 完當선생자서 석노시첩

石磬 石磬
混虛見此好之, 仍以付之. 혼허스님이 이것을 보고 좋아하기에 이윽고 건네주었다.

[인문] 閔泳韶印¹⁾, 琴來

1) 민영소(閔泳韶, 1852-1917)는 조선 말기의 척신戚臣으로,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순악舜若, 호는 금래琴來이다. 민철호(閔哲鎬, 1829-?)의 아들로, 민규호(閔奎鎬, 1836-1878)에게 입양되었다. 1878년 정시문과에 급제, 조선조에서 판서에까지 올랐고, 대한제국 시기에는 궁내부 특진관, 종주원 의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으로부터 조선 귀족 자작 작위를 받았다.

荆梁舊貢皆磬形 · 양에서 옛날 공물로 모두 노磬을 바쳤으니
禹時以石爲兵無 우 임금 때에 돌로 무기 만든 일이 있었던가
肅慎石磬蓋仍禹 속신의 석노는 대개 우 임금과 연관인데
禹磬遂無傳中土 우 임금의 노는 중국땅에 전래됨이 없어졌네
鉅末左戈處得 거말이나 좌과¹⁾는 여기저기서 얻었으되
未觀鄂作羊告石 악작과 양고석²⁾은 보자를 못했도다
孔子之世亦無之 공자의 세상에도 이런 물건 없었으니
有隼帶磬人不知 수리가 노를 맞고 왔어도 사람들이 몰랐다네³⁾
此事荒渺最難證 이 일은 황당하여 가장 증명하기 어려운데
帶磬何以飛遠爲 노를 맞고 어떻게 먼 데를 날아올 수 있으랴
蓋馬山南一千里 개마산 남쪽으로 일천 리 지역에는
樂浪眞番互非是 낙랑이니 진번이니 서로 시비를 다투는데
山川圖記據無徵 산천의 그림과 기록에도 전혀 증빙이 없건만
又沿稱之肅慎氏 전설을 또 받아들여 속신씨라 일컬었네
大抵石斧與石鑿 대체로 돌도끼와 돌화살촉을
尋常得於青海曲 청해의 언덕에서 오다가 얻는데
斧乃似是異體形 도끼는 바로 지금과 같고 보의 문양과는 다르지만
鑿若分明出魚腹 화살촉은 분명 화살집에서 나온 것 같다
石性銳利當金剛 돌 성질이 금강과 맞설 만큼 예리하고
石紋作作量古綠 돌무늬는 켜켜이 일어 청동빛이 무리졌다
有三百枚或充貢 삼백 매가 있어 간혹 공물에 채웠는데
充貢而已非作用 공물에 채웠을 뿐 쓸모가 있는 건 아니었네
渤海大氏尹侍中 밤해 임금 대씨나 시종 윤관을 보더라도
未聞此斧此鑿收戰功 이 도끼 이 화살촉으로 전공 거둔 일 없었네
可笑當時烏雅束 가소롭다 그 당시 오아 화살촉 묶음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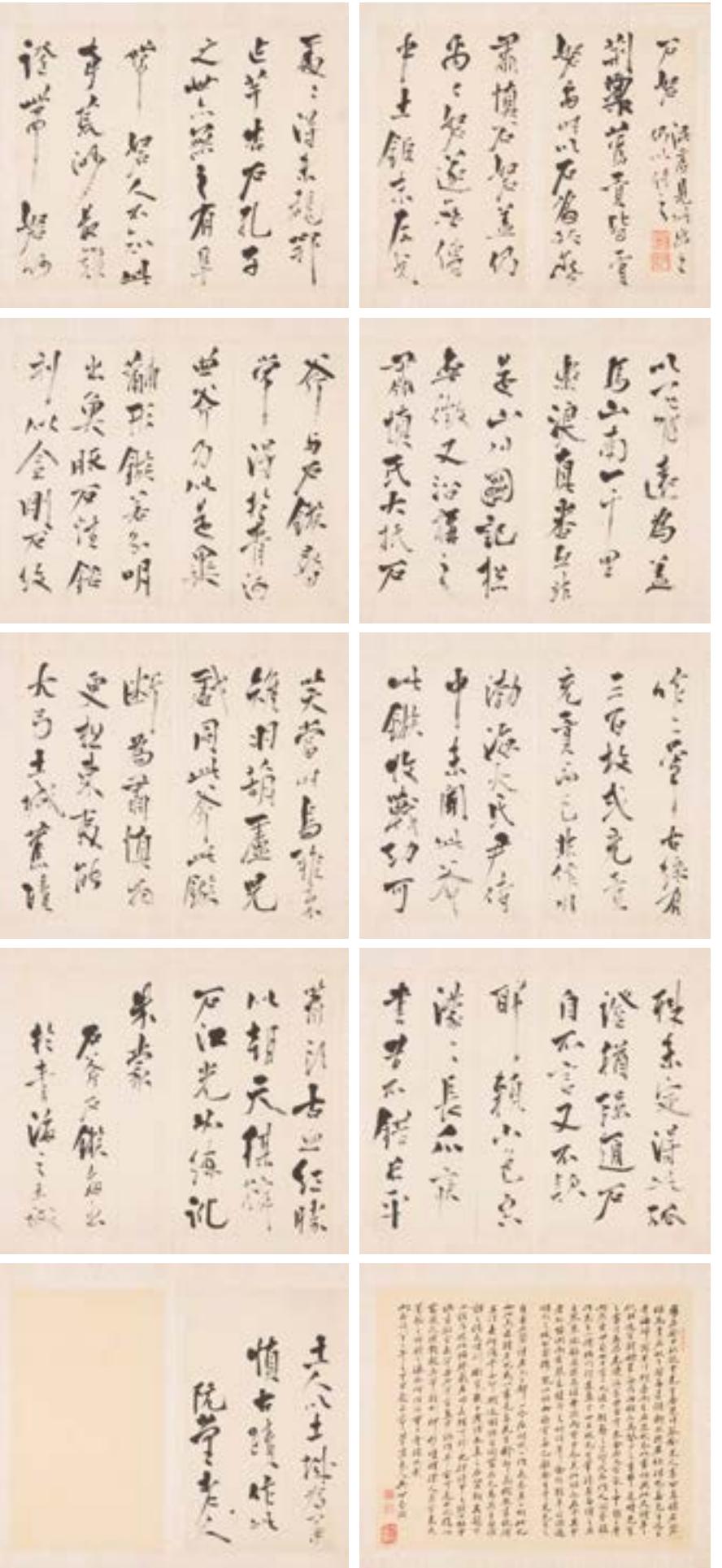
雉羽葫盧兒戲同 치우 호로⁴⁾ 따위는 애들 장난과 마찬가지라
此斧此鑿斷爲肅慎物 이 도끼 이 화살촉이 꼭 속신의 물건이라면
更想東夷能大弓 동이가 큰 활에 능했던 말이 더욱 상상되네
土城舊蹟殊未定 토성의 옛 자취는 아직 확정되지 못했거늘
得此孤訂猶強通 이를 얻어 증빙하면 오히려 억지변통이 되리
石自不言又不款 돌 스스로 말을 않고 또 관지마저 안했으니
耶賴山色空濛濛 야뢰산의 빛깔은 속절없이 아득아득하도다
長爪疾書昔不錯 긴 손톱으로 빨리 써도 어긋나지 않았고
長平箭頭古血紅 장평 땅의 화살머리에는 옛 피가 붉었는데
勝似朝天麒麟石 기린굴과 조천석⁵⁾이 그보다는 나으니
江光如練訛朱蒙 베 폭 같은 강빛에 와전된 주몽일세

石斧石鑿, 每出於青海之土城, 土人以土城爲肅慎古蹟, 作此.
阮堂老人.

석부Stone · 석족Stone 이 매양 청해青海의 토성土城에서 출토되는데, 토인土人們이
토성을 속신肅慎의 고적으로 여기므로 이 시를 짓는다.
완당노인.

※ 위의 시는 《완당전집阮堂全集》 권9에 <석노시石磬詩>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다. 민영소의 도장은 소장인으로 보인다.

- 1) 거말은 옛날에 쓰던 기물의 이름이고 좌과는 창의 일종이다. 《금석색금石索》에
상商나라 거말도距末圖가 있다.
- 2) 악작은 옛날 기물의 이름이고 양고석은 자세치 않으나, 《보재고금록簫齋古金
錄》의 “고거말古距末” 주에 “금전세자 유작거말용리상국今傳世者 惟愕作
距末用釐商國”이라 하였다.
- 3) 《사기史記》공자세가孔子世家에 “수리새가 진陳나라 조정 들에 모여 죽었는
데, 호시楷矢가 이를 돌촉에 꿰고 있었다. 화살은 길이가 한 자 여덟 치이다. …
중니仲尼가 말하기를 “수리새가 온 곳이 먼 데에서이니, 이는 속신의 화살입니다.
[有隼集于陳庭而死, 楷矢貫之石磬, 矢長尺有咫. 仲尼曰隼來遠矣, 此肅
慎之矢也.]”라는 기록이 있다.
- 4) 치우는 치우전雉羽箭이고, 호로는 당나라 등산거鄧山居가 독약을 화살에 발라
짐승을 쏘았는데 그 자리에서 넘어지므로 모호로毛葫蘆라 하였다.
- 5) 기린굴과 조천석은 평양 부벽루浮碧樓 아래에 있는 유적으로 부여扶餘 동명왕
(東明王, 재위 B.C 37-B.C 19)이 기린마를 타고 이 굴로 들어가 땅속으로부터
조천석으로 나와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이 있는데, 그 말굽자국이 지금도 둘
위에 있다고 한다.



[첩 말미에 붙어 있는 위창 오세창의 발문]

粵在癸丑秋，阮堂先生居果川，答余先人書曰，息慎石磬，頃爲李君收去，苦無遺儲，斷不於君秘惜也。蓋先生近自青海，歸寓果川，行橐尙有石器也。今此書帖與此尺牘，年代相近，字體酷肖，無乃此帖亦爲癸丑之書耶。是時先生之書法，益臻老境，涵蓄乎百千卷金石文字氣之中，越三年丙辰棄世，壽七十有一也。後十數載之丁卯戊辰，門人閔奎鎬作先生小傳，始刊行遺集于世。且收先生筆蹟者，多傳之其子琴來泳韶及孫忠植曾孫丙曾于今矣。此帖亦在乎其中者，故帖側尚有琴來雙印之映眸耳。余於數年前，偶過閔氏之城北書樓，斷此帖而歎賞無已。顧余生平見先生之自書石磬詩者，凡三部。一今在開城，一作長卷者，一則此也，而此其最精者也。或以書尾無先生鈐印爲歎，然書既確且佳矣，何傷乎無印歟。近聞帖自閔家出，已易其主，亟探訪之，倩友借到，瀏覽幾日，考諸本集之石磬，則其題下小註，乃從此帖謄載者明矣，殊可珍也。但詩中之距末，帖中誤書鉅字矣。芊告石芊字，集中誤作羊字，可是正也。復以家藏尺牘，對較其筆韻，則神彩雙耀，撲人眉宇焉。大墨輪之所轉轉湊合，何往非重重奇緣也哉。

丙辰後八十二年之丁丑長至節，葦滄老人吳世昌識。

[인문] 吳世昌印, 葦滄老夫, 七十四丁丑年

지난 계축년(1853) 가을에 완당선생께서 과천에 계시면서 나의 부친께 보낸 답장에, “식신息慎의 석노石磬의 며칠 전에 이군李君이 가지고 가서 남은 것이 조금도 없으니, 결단코 군에게 숨기거나 아까워해서가 아닐세.”라고 하였다. 아마도 선생께서 근래 청해青海로부터 돌아와서 과천으로 돌아가 거처하였는데, 행낭 속에 아직도 석기石器가 남아 있었던 듯하다. 지금 이 서첩과 이 척독은 연대가 서로 가깝고 글자체도 몹시 닮았으니, 혹시 이 서첩 또한 계축년에 쓴 글씨가 아니겠는가. 이 당시 선생의 서법은 더욱 노숙한 경지에 이르러 백전 권의 금석문자기金石文字氣 가운데서 함양되었고, 그로부터 3년 뒤인 병진년(1856)에 세상을 떠나시니 수명은 71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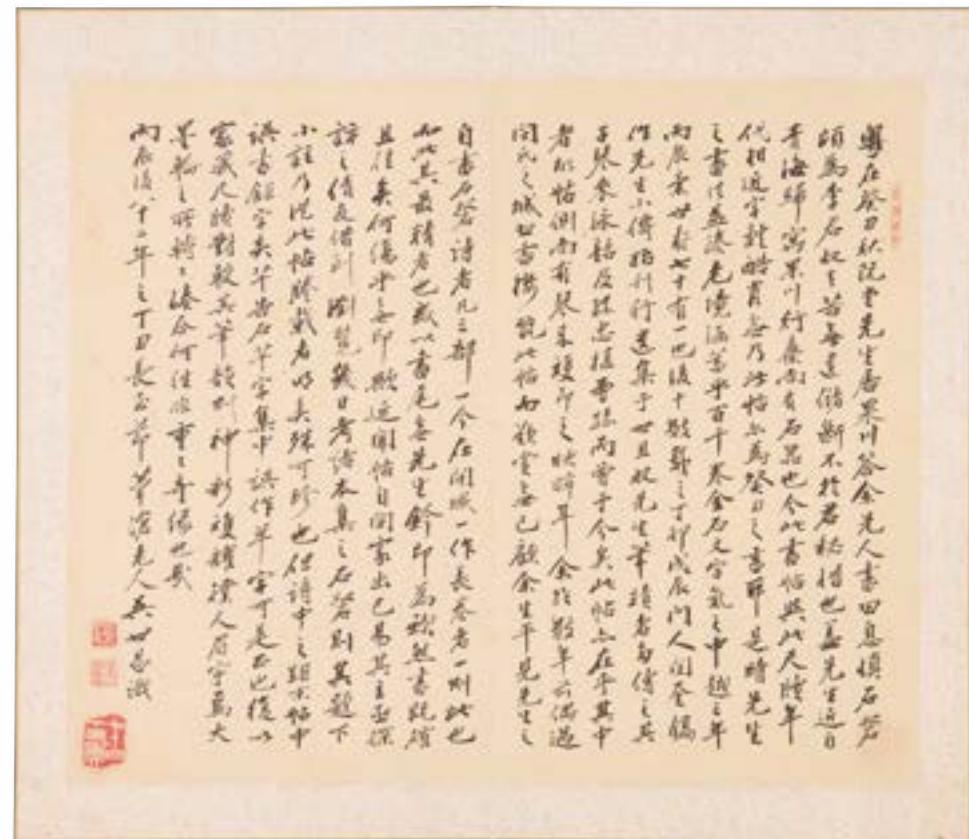
그 뒤 십수 년이 지난 정묘년(1867)과 무진년(1868)에 문인 민규호閔奎鎬가 선생의 소전小傳¹⁾을 지어 처음으로 선생의 유집遺集을 간행하여 세상에 전하였고, 또 선생의 필적을 모아서 대부분 그의 아들 금래琴來 민영소閔泳韶 및 손자 민충식閔忠植, 증손 민병증閔丙曾에게 전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이 첨 또한 그 가운데에 있던 것이므로 첨 옆에 찍은 금래의 도장 2방이 지금까지 사람들의 눈에 비치게 된 것이다.

나는 몇 년 전에 우연히 민씨의 성북서루城北書樓를 찾아가서 이 첨을 완상하며 감탄해 마지않았다. 그런데 내가 평생 선생께서 손수 쓰신 석노시石磬詩를 본 것이 모두 3부인데, 하나는 지금 개성開城에 있고, 하나는 긴 두루마리로 된 것이었으며, 마지막 하나가 이것 인데 이것이 가장 정밀한 본이다. 후자가 서첩 끝에 선생께서 찍은 도장이 없는 것을 흠으로 여겼는데, 글씨가 확실하고 아름다우니, 도장이 없다고 무슨 흠이 되겠는가.

근래 들으니 이 첨이 민씨가에서 나와 이미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기에, 급히 널리 탐문하여 친구를 시켜 빌려다가 며칠 동안 대략 열람하고, 《완당집》에 실린 <석노시>와 비교해 고찰해보았다. 그 제목 아래의 소주小註는 바로 이 첨에서 베껴 수록한 것이 분명하므로 매우 귀중하게 여길 만하다. 다만 시 가운데 거말距末이 첨에서는 거鉅로 잘못 적혀 있었고, 간고석芊告石의 간芊 자는 《완당집》에서는 잘못하여 양芊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것은 바로잡은 것이다. 더 나아가 집에 소장된 척독으로 이 첨의 필적과 운치를 비교해보았더니, 정신과 광채가 함께 빛나서 사람의 이마를 칠 정도였다. 대목륜(大墨輪, 큰 먹의 바퀴)이 구르고 굴러서 한 곳으로 모인 셈이니, 어느 것 하나 기이한 인연이 얹히지 않은 것 이 없다.

병진년에서 82년 뒤 정축년(1937) 동짓날, 위창노인葦滄老人 오세창吳世昌이 기록하다.

1) 소전小傳은 《완당집阮堂集》 권수 卷首에 실린 <완당김공소전阮堂金公小傳>으로 김정희의 행적을 개괄한 전기傳記이다.



추사 김정희 1786-1856

秋史 金正喜 Kim JeongHui

행서대련 원문노견 行書對聯 遠聞老見 Calligraphies

족자 Hanging Scroll
종이에 먹 Ink on Paper
각 159.5×30cm

₩ 100,000,000-200,000,000



远聞佳士輒心許 멀리서 훌륭한 선비의 소문을 들으면 금방 마음을 터놓고,
老見異書猶眼明 늙어서도 기이한 글씨를 보면 오히려 눈이 밝아진다네.

[인문] 實事求是, 金正喜印, 阮堂

이 시는 남송南宋의 시인 육유(陸游, 1125-1210)의 '先少師宣和初有贈晁公以道詩云, 奴愛才如蕭穎士, 婢知詩似鄭康成, 晁公大愛賞, 今逸全篇, 今讀晁公文集, 泣而足之'이라는 긴 제목의 시에 나오는 구절이다. "선소사先少師께서 선화宣和 연간 초에 조이도 공에게 시를 주시며 '하인은 재주가 소영사(蕭穎士, 707-758) 같아 사랑스럽고, 하녀는 정강성(정현, 鄭康成, 127-200)의 여종처럼 시를 안다'고 하였는데, 조공이 이를 크게 감상하였다. 지금은 그 시 전편이 전하지 않으나, 이제 조공의 문집을 읽고 눈물을 흘리며 나머지를 보충하여 짓는다."라는 뜻이다.

이 시는 송宋의 학자 조설지(晁說之, 1059-1129)를 추모하며 그의 학문과 인품을 기리기 위해 지어진 만시輒詩이다. 여기서 이도以道는 조설지의 자식이다.



[참고도판]

추사 김정희, <행서대련 원문노견>, 종이에 먹, 32.5×135cm, 호암미술관 소장.



025

석파 이하응 1820-1898

石坡 李愬應 Lee HaEung

석란도 4폭 石蘭圖四幅 Orchids

1897

액자 Framed

비단에 수묵 Ink on Silk

각 128×31.5cm

₩ 25,000,000-50,000,000

<1폭>

[인문] 德音不假

<2폭>

[인문] 與善人居如入芝蘭之室

<3폭>

[인문] □□應□□□生君子□

<4폭>

丁酉荷下八十老石生作

정유년(1897) 연꽃 아래서 80세 노석이 그리다.

[인문] 大院君章, 石坡, □□硯墨筆紙



단은 이정 1554-1626

灘隱 李霆 Lee Jeong

묵죽도 墨竹圖 Bamboo

액자 Framed
비단에 수묵 Ink on Silk
92×62cm

₩ 70,000,000-150,000,000

[인문] 灘隱, 石陽正霆

단은 이정(灘隱 李霆, 1554-1626)은 대나무 그림으로 명성이 높다. 본관은 전주全州, 세종의 넷째 아들 임영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의 증손으로 왕실 자손이다. 특히 묵죽화에서는 유덕장柳德章·신위申緯와 함께 조선시대 3대가로 손꼽힌다. 묵란과 묵매에도 솜씨를 보였고, 시와 글씨도 뛰어났다.

이 작품은 이정의 노련한 필치의 대나무 그림 면모를 잘 보여준다. 앞쪽 대나무는 진한 먹으로 칠하고, 뒤쪽에는 얇게 담묵으로 그림자처럼 표현하였고 대나무의 잎사귀의 길고 짧은 모습에 변화를 주어 화면에 깊이감을 더하였다. 이 작품과 유사한 그림으로 국립 중앙박물관 소장 <묵죽도>[참고도판]가 있다. 이정의 대나무 그림 중 가장 원숙한 경지를 보여주는 묵죽 그림으로 이정이 69세에 공주 월선정에서 그린 그림이다. 진한묵과 담묵의 운용으로 정적과 동적인 감각을 함께 느낄 수 있다.



[참고도판]

단은 이정, <묵죽도>, 1622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027

표암 강세황 1713-1791

豹庵 姜世晃 Kang SeHwang

국화 菊花 Chrysanthemum

액자 Framed
종이에 수묵 Ink on Paper
23.3×13.8cm

₩ 10,000,000-20,000,000

[인문] 姜世晃印



표암 강세황 1713-1791

豹庵 姜世晃 Kang SeHwang

사군자 四君子 Plum, Orchid, Chrysanthemum, and Bamboo

1784

권자본 Scroll

종이에 수묵 Ink on Paper

글씨_27×116.5cm

그림_각 27×42cm

₩ 85,000,000-150,000,000

路自中峰上 길이 봉우리 중턱부터 올라가
盤回出薜蘿 구불구불 벽라 덩굴로 나오니
到江吳地盡 강에 이르자 오나라 땅은 끝나고
隔岸越山多 강 언덕 너머 월나라 산이 많네
古木叢青靄 늙은 나무에 푸른 구름 모이고
遙天浸白波 먼 하늘에 흰 파도가 스며드는데
下方城郭近 그 아래로 성곽이 가까워
鍾磬雜笙歌 종과 풍경소리가 피리소리에 섞이네¹⁾

東郡趨庭日 동쪽 고을에서 아버님을 뵙던 날에
南樓縱目初 남쪽 성루에서 멀리 눈길을 주었는데
浮雲連海岱 뜬 구름은 바다와 태산에 이어졌고
平野入青徐 너른 평야는 청주와 서주로 들어갔네
孤嶂秦碑在 외로운 장산에는 진시황의 비석이 있고
荒城魯殿餘 황량한 성에는 노공왕의 영광전이 남아
從來多古意 평소에 회고의 심정이 많기도 하여
臨眺獨躊躇 눈길을 머문 채 홀로 서성이네²⁾

南陵水面漫悠悠 남름의 수면은 넘실넘실 넓기도 한데
風繁雲輕欲變秋 바람 세차고 구름 가벼우니 가을이 되려하네
正是客心孤迥處 참으로 나그네 마음이 외롭고 허전할 때인데
誰家紅袖憑江樓 누 집 아리따운 아가씨가 강누각에 기대섰나³⁾

甲辰秋日, 豹翁書於會坊之無限景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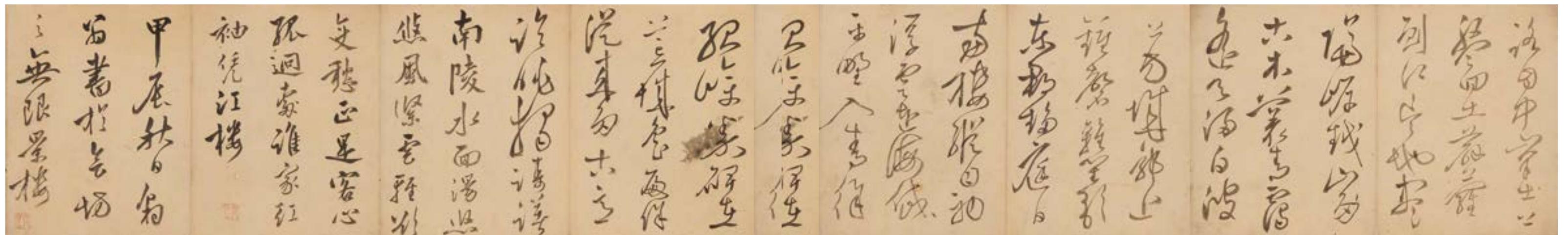
갑진년(1784, 정조8) 가을날, 표옹이 회현방의 무한경루에서 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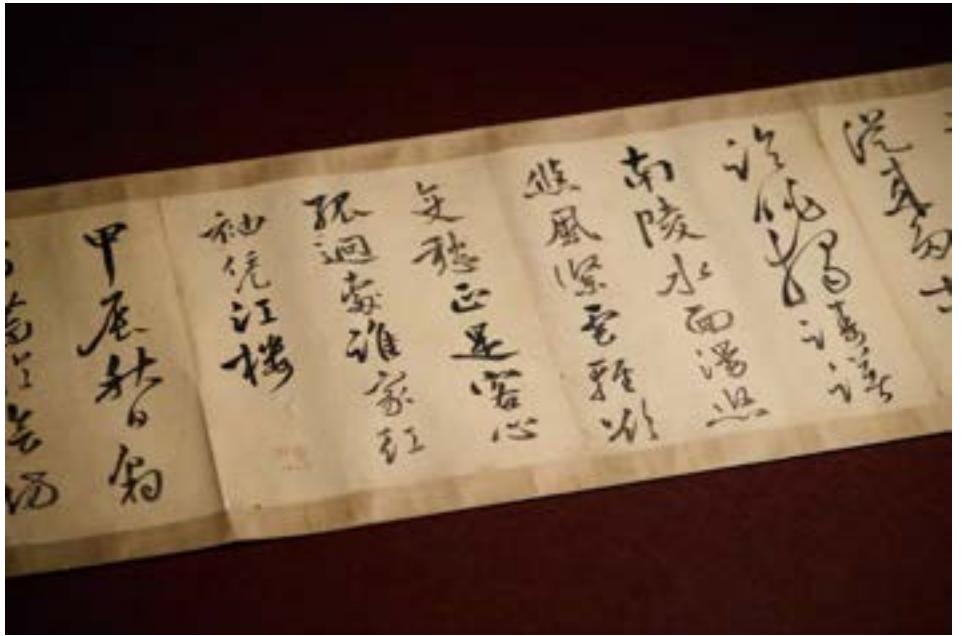
1) 당나라 승려 처목(處默, ?-)의 <성과사聖果寺>라는 시를 초서로 쓴 것이다.

2) 당나라 두보(杜甫, 712-770)의 <연주의 성루에 올라[登兗州城樓]>라는 시를 초서로 쓴 것이다.

3) 당나라 두목(杜牧, 803-852)의 <남릉도중南陵道中>이라는 시를 초서로 쓴 것이다.

[인문] 光之





[수록처]
『幽玄齋選 韓國古書畫圖錄』, 1996, No.79.



[참고도판]
강세황, 《연대농호첩 燕臺弄毫帖》, <梅蘭菊竹매난국죽>, 조선 18세기, 26×22cm, 영남대학교박물관 소장.



조선인대행렬기 대전

朝鮮人大行列記 大全
Guidebook to the Procession of Joseon Envoys

1748
책 Book
종이에 목판 Woodblock print on Paper
21.5×15.4cm

₩ 30,000,000-60,000,000



본 작품은 연향延享 5년(1748, 영조24) 2월에 조선통신사가 일본을 다녀오는 과정 및 선단, 통신사 행렬, 도로, 관직명 등을 종합적으로 수록하여 목판본 1책으로 간행한 일본 서적이다.

표제는 ‘조선인대행렬기朝鮮人來朝物語’이고, 내제는 ‘조선인래조물어朝鮮人來朝物語’이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내용의 맨 앞부분에는 서문이 실려 있다. 다음으로는 사신 일행을 운송하는 담당자의 소속이 문양으로 표시된 각각의 배 그림이 6면에 걸쳐 실려 있다. 이어 조선인내조연대기朝鮮人來朝年代記가 1면에 수록되었는데, 역대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다녀간 연대 기록이다. 이어 조선인행렬차제朝鮮人行列次第가 실려 있어 본 책의 핵심 내용에 해당하는데, 참고로 이 당시 통신사의 정사正使는 홍계희(洪啓禧, 1703-1771), 부사副使는 남태기(南泰耆, 1699-1763), 종사관從事官은 조명채(曹命采, 1700-1764)였다. 24면에 걸쳐 화면을 3단으로 나눠 맨 아래에는 통신사의 행렬을 그림으로 실었고, 그 위 두 단은 행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원과 직급이 한자와 일본어로 자세히 적었는데, 정사, 부사, 종사관의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마지막에는 조선인이 일본에 다녀간 역사적인 내력 및 그 의미를 길게 서술한 글이 14면에 걸쳐 수록되어 있다.

맨 앞에 실린 서문을 보면 조선이 성립된 역사를 서술하면서 진구황후[神功皇后, 169-269]가 신라, 고구려, 백제를 공격해 일본에 복속하게 하였다고 하여, 삼한출병설화三韓出兵說話에 기반을 둔 일본 특유의 조선관을 내비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한편 삼국의 명칭을 일본식 음으로 적어놓고 있는 점도 특이하다.

이 책이 비록 목판본이지만 몇 가지 자료적 가치가 있다. 첫째, 무진년, 즉 1748년에 시행된 조선통신사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는 우리 역사서 및 기록에도 세세한 부분이 많이 누락 되었는데, 이를 보충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둘째, 일본인이 조선에 대한 인식의 형성 배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이 책에 대행렬기大行列記의 내력 부분에서 드러나는 조선관은 삼한출병설화를 비롯한 다분히 허구적인 전래 설화에 바탕을 둔 것들로 파악된다. 셋째, 통신사의 인원 구성 및 각종 기물을 상세히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 당시에 통신사 일행이 소지했던 깃발이나 물건으로부터 일본 측 호송선단의 구성 및 깃발문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료가 실려 있다.



[수록처]

『幽玄齋選 韓國古書畫圖錄』, 1996, No.409.

[참고도판]

<조선인대행렬기 대전>, 22.6×16.1cm, 종이에 목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구5203).

跋_ 이누즈카 후미 ?-?

犬塚文 Inuzuka Fumi

한인희마도권 韓人戲馬圖卷 Scroll on Masangjae (Horse Acrobatics)

1797
권자본 Scroll
종이에 먹, 채색 Ink and Color on Paper
27×323.7cm

₩ 100,000,000-300,000,000

본 작품은 칸엔[寛延] 원년(1748) 10대 조선통신사가 도쿠가와 막부의 9대 쇼군[將軍] 도쿠가와 이에시게[徳川家重, 1712-1761]의 취임 축하와 국서 전달을 위해 파견되었을 때 조선인이 전안마랄田安馬埒에서 펼친 마상재馬上才를 기록한 것이다. 작품의 밭문에는 현장을 목격한 후쿠시마[福島]가 처음 그림으로 남겼고, '나', 즉 이누즈카 후미[犬塚文, ?-?]에게 각 기술의 제목을 써달라 청했다고 전한다. 이를 차후 구고선생九臯先生이 다시 정밀하게 묘사하여 아들에게 전하였다. 오늘 날 전하는 본 작품은 밭문에서 '우리 선생'이라고 칭하는 구고선생의 아들이 그리고, 밭문은 칸엔[寛政] 9년(1797)에 이누즈카 후미가 기록한 것이다. 이 권은 조선의 뛰어난 기마술과 일본과의 교류를 동시에 전하는 자료로, 18세기의 동아시아의 외교의 현장 기록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韓人戲馬圖跋

夫馬者，雄姿壯志，而規行矩步，然泛駕覆車者，往往而在焉。故御者得其道，則罄控有妙，馳驅中節。今歲戊辰，朝鮮修聘，其六月三日，官命使彼國馬上才印文調李世蕃爲戲馬技於田安馬埒，大君埒側城樓觀之，宗室以下執政列侯，至諸有司諸番士，亦得與觀焉。其爲技也，進退有度，動止有節，追奔電靡流景，是御者之得其道者耶。然觀止之後，其觀者皆不縷形其技，鬚髮目睫間耳。獨福島國豊者，目究其狀，手畫其形，以爲一卷，請使余書其目各技之上。余者心醉於此靡，默記其形狀，而傳之後死者，獨吾先生之父君九臯先生有焉。審觀其形狀，精密其技，能悉圖畫之，以貽後昆，林祭酒作跋，贊稱其畫，於戲寫真之妙，固無俟贊也。此在先生間餘技，實可謂多材也。

先生嘗過飲門，人觀山子主人請畫，先生署之席上以賜之。乃此圖因彼圖而臨寫之，莫誤毫髮也。苟成矣，文敢載，但言竊奉贊之者爾。寛政丁巳冬十月初一日，犬塚文謹序。

한인희마도발

대저 말이란 모습이 웅장하고 뜻이 장대하며, 걸음걸이가 법도에 맞는다. 그러나 멍에를 뒤집고 수레를 엎어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러므로 말모는 자가 그 방도를 얻으면 말을 달리고 멈추는 데 신묘함이 있고, 달리고 멈는 것이 절도에 맞는다.

올해 무진년(1748)에 조선에서 수빙修聘하러 오자, 그 6월 3일에 관령으로 저들 나라의 마상재馬上才로 인문조印文調, 이세번李世蕃으로 하여금 전안마랄田安馬埒에서 마상기술을 실시하라고 명하였다. 대군大君 무네무라[宗村]는 마랄의 결 성루에서 관람하였고, 종실宗室 이하 집정執政과 열후列侯로부터 여러 유사遺事와 번사番士에들도 함께 관람할 수 있었다.

그 기술이란 나아가고 물러나는데 절도가 있고, 빠른 번개를 뒤따르고 흐르는 그림자가 흩어지듯 하였으니, 이것이 말모는 사람이 그 방도를 얻은 것인가. 그러나 행사가 끝난 뒤에, 관람한 사람들을 모두 그 기술을 자세히 형용할 수 없었고, 그저 눈초리 사이에 어렴풋이 기억할 뿐이었다. 유독 복도福島의 국풍國豐이라면 사람은 눈으로 그 형상을 궁구하고 손으로 그 형상을 그려서 1권의 책을 만들고서, 나에게 각 기술의 위에 제목을 써달라고 청하였다. 나는 이 기술에 대해 묵묵히 그 형상을 기억하고 있는데, 후세에 전하는 데에는 홀로 우리 선생의 부친 구고선생九臯先生이 계시다.

자세히 그 형상을 관찰하여 정밀한 그 기술을 능히 모두 그림으로 그려서 아들에게 남겨주자, 임제주林祭酒가 밭문을 지어 그 그림을 찬양하고 칭송하였다. 아, 사진(寫真, 사실대로 묘사)의 신묘함은 본래 찬양을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 이것은 선생에게 있어서 한가한 여기에 불과하니, 실로 재능이 많다고 일컬을 만하다. 선생께서 일찍이 문인 관산자觀山子를 찾아가 술을 마셨는데, 주인이 그림을 청하였다. 선생께서 자리에서 그려서 하사하시니, 바로 이 그림은 저 그림을 대본으로 임모한 것이므로 터럭만큼도 잘못된 곳이 없다. 그림이 이루어지자, 내가 감히 저속한 말로 가만이 찬양을 올린다.

관정寛政 정사년(1797) 겨울 10월 초1일, 이누즈카 후미[犬塚文, ?-?]가 삼가 서문을 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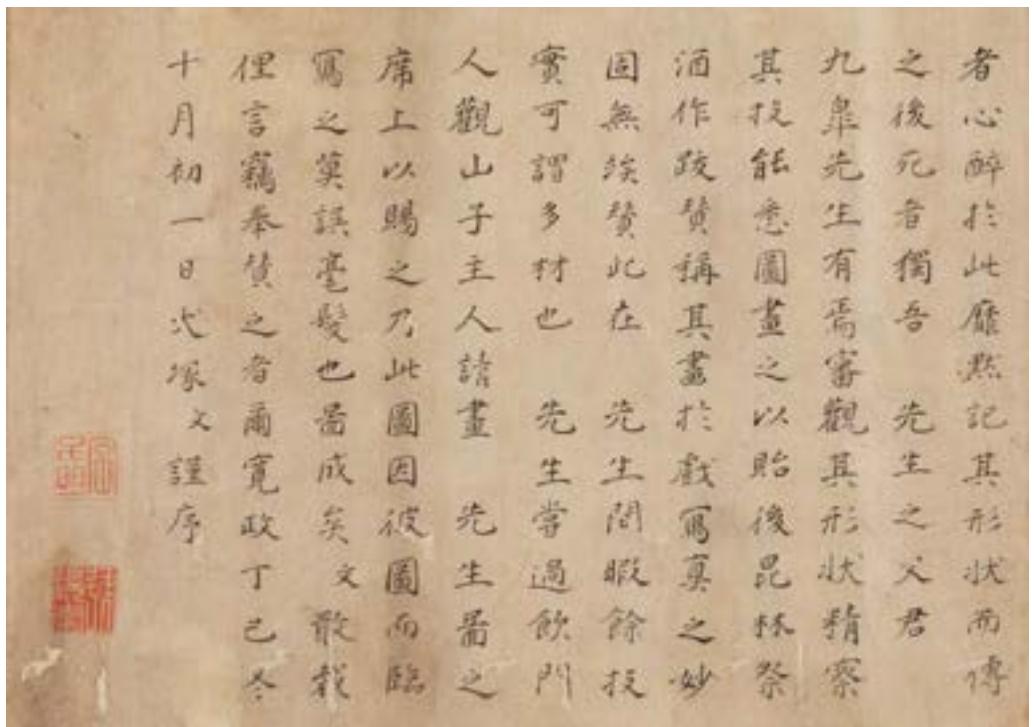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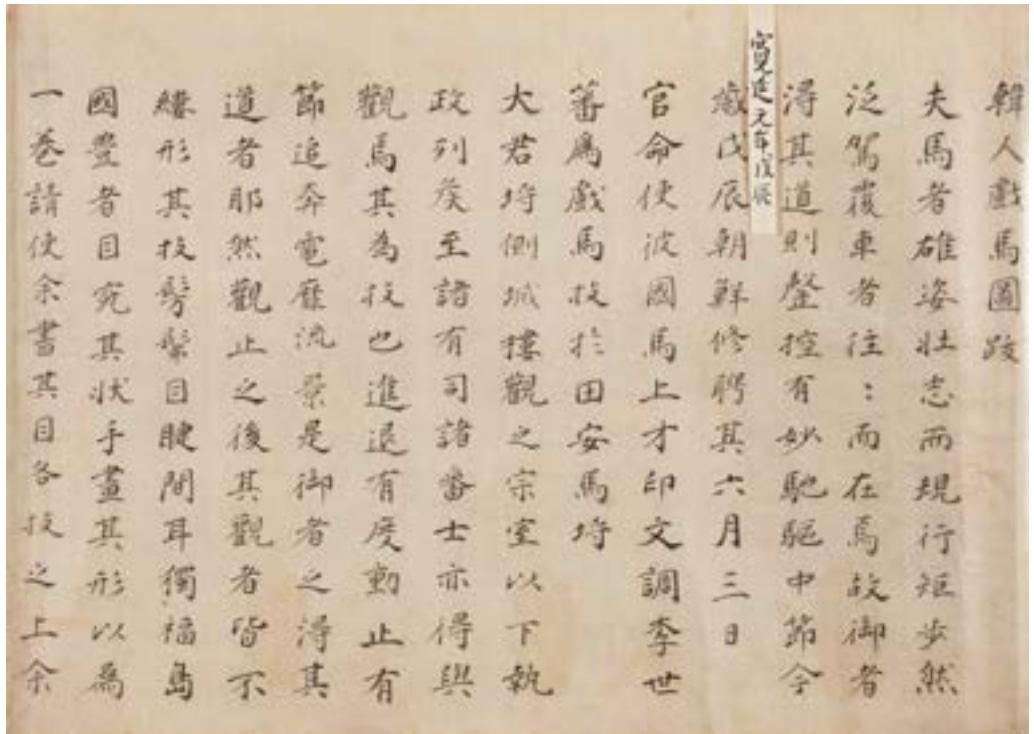
[인문] 字子明, 號滉南



韓人戲馬圖跋 한인희마도발



[수록처]
『幽玄齋選 韓國古書畫圖錄』, 1996, No.411.





鎧裏藏身



馬上仰卧



馬上倒立



雙騎馬

금재 김득신 1754-1822

競齋 金得臣 Kim DeukSin

해암용일도 海巖鷹日圖 Haw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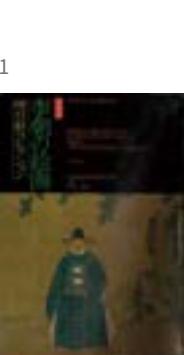
족자 Hanging Scroll
비단에 수묵채색 Ink and Color on Silk
115×49cm

₩ 100,000,000-200,000,000

秋霄老鶴蕭蕭坐 가을 하늘에 늙은 송골매가 외로이 앉아
思入長雲漭不窮 생각이 높은 구름에 들어가 아득히 끝이 없네

競齋 금재

[인문] 晴淨青山, 金得臣印



[수록처]

1. 富山美術館, 『李朝の繪畫: 坤月軒コレクション』, 1985, No.25.

2. 『幽玄齋選 韓國古書畫圖錄』, 1996, No.88-89, p. 57.

금재 김득신, <해암용일도海巖鷹日圖>, <송하호도松下虎圖>, 족자, 비단에 수묵채색, 각 115×49cm.

오원 장승업 1843-1897

吾園 張承業 Jang SeungYeop

팔가노안 대련 八哥蘆雁對聯 Magpie and Reeds and Wild Geese

족자 Hanging Scroll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Color on Paper
각 118×40.8cm

₩ 40,000,000-80,000,000



吾園 張承業 오원 장승업

[인문] 吾園, 張承業印

장승업(張承業, 1843-1897)은 조선 말기의 화원화가이다. 화조, 영모, 기명절지 등 다양한 화제에 능하였다. 본관은 대원大元, 자는 경유景猷, 호는 오원吾園, 취명거사醉瞑居士, 문수산인文畵山人이다. 당시 개화기 역관을 지낸 이응현(李應憲, 1838-?), 오경연(吳慶然, 1841-?) 등의 후원을 받아 활동하였다. 묵은 먹에 담채를 섞어 사용하여 날아오는 기러기, 동물들은 생동감 있게 묘사하였고, 과감하게 구사한 봇질은 장승업의 호방한 필묵법을 잘 보여준다.



吾園先生八哥蘆雁對幅 오원선생팔가노안대폭
壽琴堂珍賞 수금당진상
無號李漢福題 무호이한복제

본 작품은 무호 이한복(無號 李漢福, 1897-1940)이 구장 하였던 작품으로서
팔가노안대련 八哥蘆雁對聯 작품이다.



033

기산 김준근 ??

箕山 金俊根 Kim JunGeun

숙조도 宿鳥圖 Dozing Bird

배점 Mount on Paper
종이에 수묵 Ink on Paper
110×33cm

₩ 3,000,000-6,000,000



江妃獨立雪千山 강비¹⁾가 흙로 서니 온 산에 눈이로다
朝鮮國金俊根 조선국 김준근.

1) 강비江妃란 전설 속에 나오는 신녀神女로 어느 곳에 사는 사람인지 모른다. 강수江水와 한수漢水가에 나와 놀다가 정교보(鄭交甫, ??)를 만났는데 정교보가 그녀들이 신녀인 줄도 모르고 허리에 차고 있는 패옥佩玉을 달라고 청하자, 두 여인이 마침내 자기들이 찬 패옥을 풀어서 정교보에게 주었다고 한다. 『열선전 강비이녀列仙傳 江妃二女』 여기서는 외로운 새를 강비에 비유하고 매화를 눈에 비유한 것으로 보인다.

[인문] 箕山, 金俊根印

0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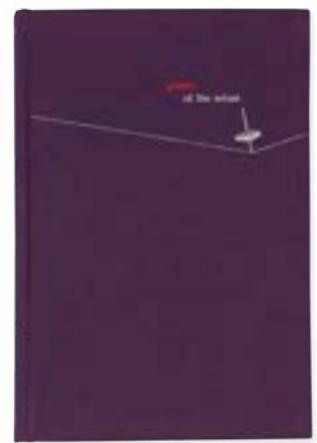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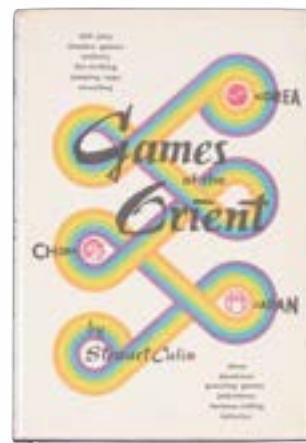
스튜어트 컬린 1858-1929

Stewart Cul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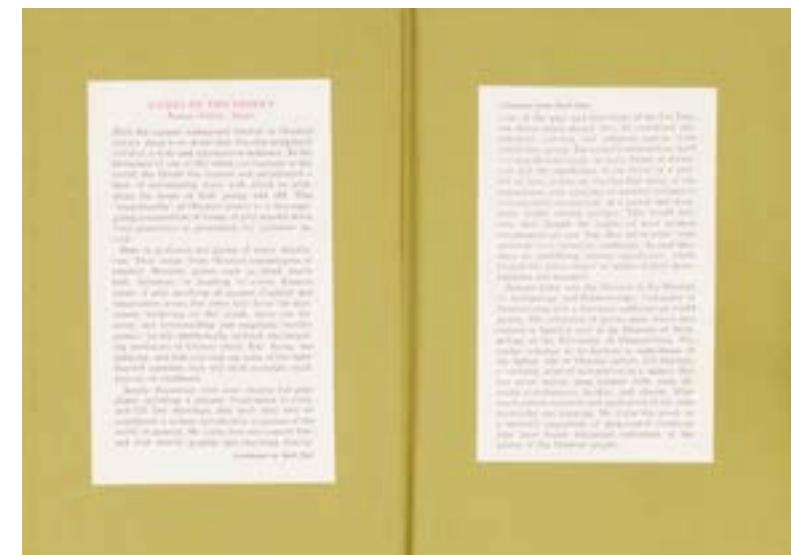
Games of the Orient: Korea, China, Japan

1958
책 Book
종이에 인쇄 Print on Paper
23.5×16.3cm

₩ 5,000,000-10,000,000



『Games of the Orient: Korea, China, Japan』은 19세기 말 미국의 민속학자이자 박물관 큐레이터였던 스튜어트 컬린[Stewart Culin, 1858-1929]이 동아시아의 놀이 문화를 비교 연구한 저술로, 한국·중국·일본의 전통 놀이를 중심으로 그 기원과 구조, 상징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서이다. 컬린은 놀이를 단순한 오락이 아닌 주술과 우주관에서 비롯된 문화적 산물로 인식하고,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놀이의 유사성과 그 공통된 원리를 밝히는 데 주목하였다. 그는 필라델피아와 시카고 등 국제 박람회를 통해 수집·전시한 동아시아 놀이 기구와 자료를 토대로 이 책을 집필하였으며, 특히 한국의 놀이를 핵심 사례로 삼아 중국과 일본의 사례를 함께 비교함으로써 19세기 말 동아시아 놀이 문화의 전체적 맥락을 조망하고자 했다. 『Games of the Orient』는 컬린의 놀이 연구 사상을 짐작으로 보여주는 저작으로, 근대 이전 동아시아 놀이가 지닌 철학적·의례적 의미와 물질문화를 서구 학계에 소개한 선구적 연구로 평가된다.



035

해좌전도

海左全圖

Map of the Eastern Provinces of Korea

액자 Framed

목판본에 채색 Hand-colored Woodblock Print on Paper
100×57.8cm

₩ 5,000,000-10,000,000



'해좌海左'는 중국을 기준으로 바다 동쪽을 가리키는 것으로 조선을 의미한다. 지도의 전체적인 윤곽은 정상기(鄭相驥, 1678-1752)의 <동국대전도東國大全圖>와 유사하여 산줄기와 물줄기, 자세한 교통로 등이 그려져 있다. 여백에는 백두산, 금강산, 설악산 등 10여 개 명산의 위치와 산수에 대한 간략한 설명, 섬, 백두산정계비白頭山定界碑, 초량왜관草梁倭館 등에 관한 기록이 실려 있다. 아울러 고조선古朝鮮, 한사군漢四郡, 신라 구주新羅九州, 고려 팔도高麗八道의 고을 수를 좌측 상부 여백에 기록하여 우리나라의 현재와 과거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했다. 동해 울릉도 옆에 독도[于山]까지 그려져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036

고산자 김정호

古山子 金正浩 Kim JeongHo

대동여지전도 大東輿地全圖 Great Map of Korea

액자 Framed

목판본에 채색 Hand-colored Woodblock Print on Paper
110×64.5cm

₩ 8,000,000-15,000,000



본 작품은 조선 후기의 한반도 전도로, 1861년에 간행된 목판본 22첩의 『대동여지도大東輿地全圖』를 축소·변형하여 제작한 판매용 날장 지도이다. 지도 명인 <대동여지전도大東輿地全圖>는 '중국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큰 나라, 곧 우리나라의지를 그린 전도'라는 뜻의 일반 명칭이다. 제작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지도 구성과 기호 체계, 여백의 문장 등을 근거로 김정호(金正浩, 1804-1866)의 작품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축척은 약 1:920,000이며, 크기는 약 110×65cm 내외로 걸어두거나 펼쳐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상단에는 예서체로 지도명이 표기되어 있고, 동해 쪽 여백에는 서문, 우측에는 조선의 지형과 지리적 특성에 대한 설명문이 수록되어 있다. 본 지도에는 울릉도를 포함한 섬까지 표현되어 있어, 국토에 대한 인식과 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삼백육십주현산천도리

三百六十州縣山川道里

Map of Korea

첩 Scrapbook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Color on paper

141×61cm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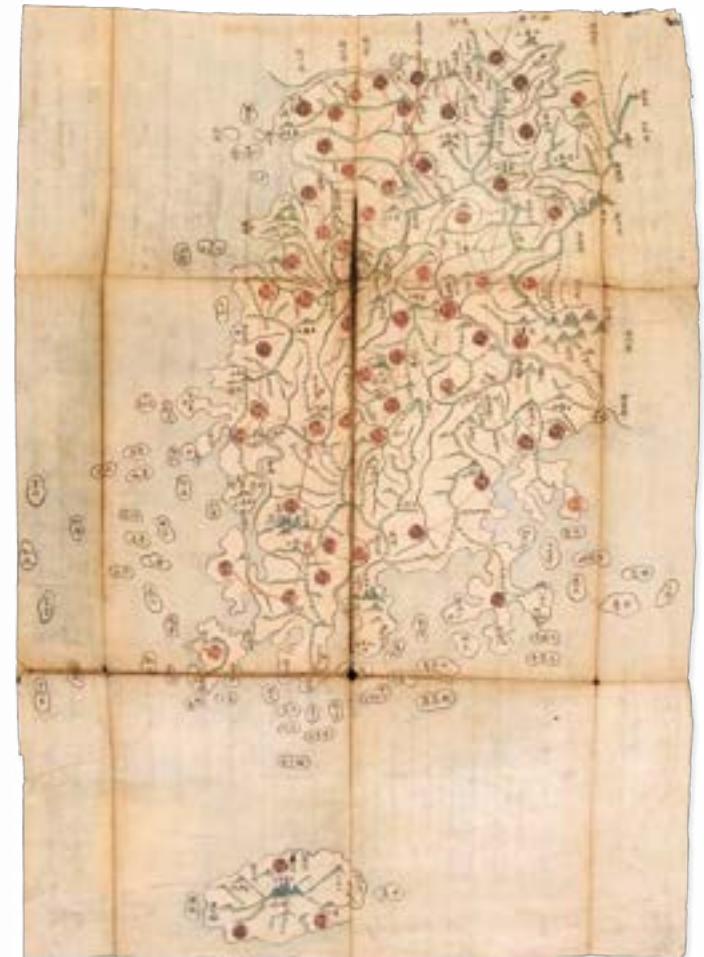
₩ 10,000,000-25,000,000



<삼백육십주현산천도리三百六十州縣山川道里>는 조선 후기 전국 360여 개 주·현의 산천과 도로, 거리[道里]를 척도 형식으로 정리한 전국 지도로, 신경준(申景濬, 1712-1781)을 중심으로 확립된 방안도법과 통일된 축척에 기초한 과학적 지도 제작 전통을 반영한다. 이는 중앙 정부가 지방 행정과 교통을 효율적으로 파악·통제하기 위해 각 고을의 지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 했던 시대적 요구 속에서 제작된 것으로, 『동국여지지도東國輿地之圖』와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로 이어지는 조선 후기 전국지도 체계의 중요한 전단계를 보여준다.



<함경남도咸鏡南道>



<전라도全羅道>





<강원도江原道>



<함경북도咸鏡南道>



<평안도平安道>



<황해도黃海道>



<경상도慶尙道>

심재 백두용 1872-1935

心齋 白斗鏞 Baek DuYong

해동역대명가필보 海東歷代名家筆譜

Album of Calligraphy by Renowned Korean Masters of Past Dynasties

첩 Scrapbook

목판본에 채색 Hand-colored Woodblock Print on Paper

각 29.5×20.5cm

₩ 5,000,000-15,000,000

《해동역대명가필보》는 심재 백두용(心齋 白斗鏞, 1872-1935)¹⁾이 우리나라 역대 이름난 필적 700여 점을 모아 1926년에 목판본 6권 6책으로 간행한 서적이다.

필적의 수록된 범위는 고조선 신지神誌 및 기자箕子부터 고종(高宗, 재위 1864-1919)대 현채玄采에 이르기까지 이므로 4천 년에 걸친 필적을 수록하였으나, 역사시대로 신라 김생(金生, 711-791)부터 조선말까지로 계산하면 실제적으로 1500년에 걸치는 기간이 수록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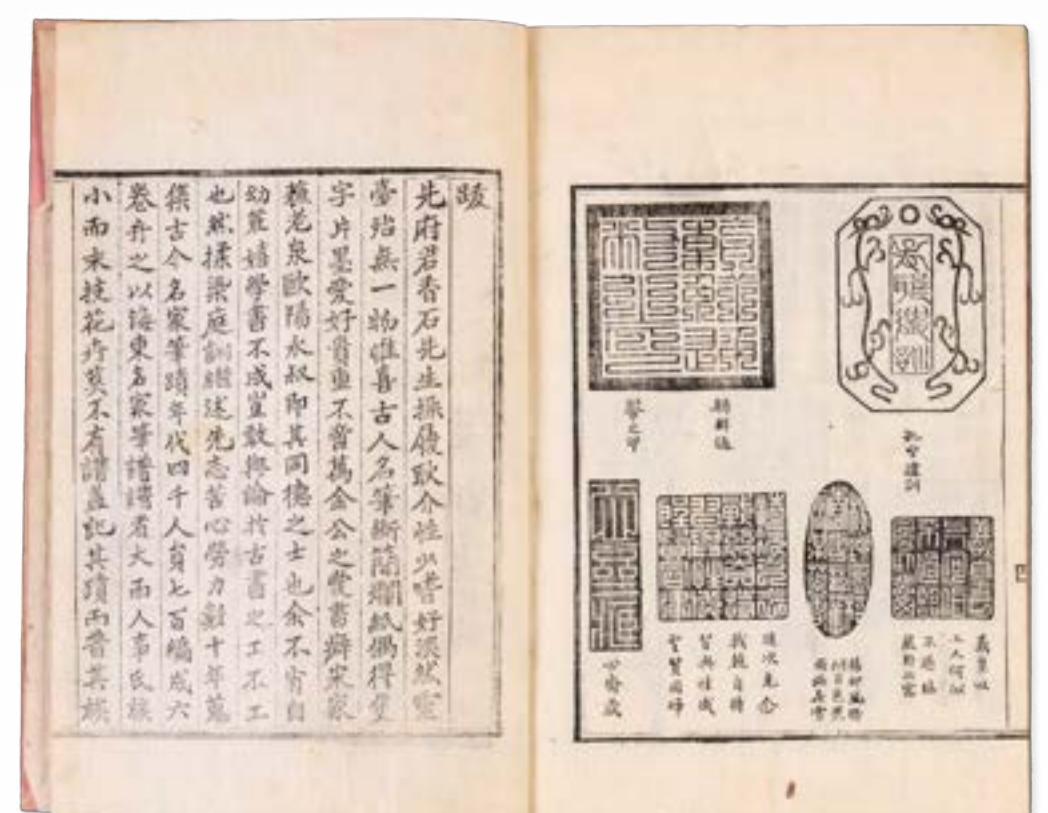
제1권 맨 앞에는 위창 오세창(葦蒼 吳世昌, 1864-1953)과 해강 김규진(海岡 金圭鎮, 1868-1933)의 제첨題簽이 있고, 이어서 백두용의 사진이 실려 있으며 다음에는 윤희구(尹熹求, 1867-1926)가 지은 서문이 붙어 있다.

서문에는 백두용이 선친 때부터 수십 년간 글씨를 수집하여 7백여 점을 모아 목판으로 판각하여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는 점과 필적을 두루 열람함으로써 선조들로부터 근대인에 이르기까지 흠모를 불일 수 있게 만들어준 것에 대해 칭송하는 내용이다.

각 권의 앞에는 목록을 붙여 놓았는데, 수록된 사람의 이름과 약전略傳을 기재하여 자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6권의 말미에는 역대 명인들과 백두용이 사용하던 인문印文 수십 방이 수록되어 있다. 이어 백두용이 직접 쓴 발문이 있는데, 부친인 향석 백희배(香石 白禧培, 1837-1911)가 고인의 명필을 좋아하여 많은 필적을 수집하였다는 것, 자신 또한 집안의 전통에 따라 수십 년 동안 명가의 필적을 수집하여 시대로는 4천 년, 사람으로는 7백여 명에 달하였다는 것, 이에 《해동역대명가필보》를 간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역대의 명필이 영원히 후세에 전해지기를 도모한다는 내용이다.

이 책이 비록 목판본이기는 하나 명가의 수적手蹟을 열람함으로써 서예사의 변천을 한눈에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1) 백두용의 본관은 임천林川, 자는 건칠建七, 호는 심재心齋이다. 백두용은 고서를 매매하는 동시에 출판사를 겸하였던 한남서림翰南書林의 주인이었다.



039

일호 남계우 1811-1890

一濠 南啓宇 Nam Kyaewoo

호접도 胡蝶圖 Butterflies

액자 Framed

종이에 수묵채색 Ink and Color on Paper

21×29cm

₩ 15,000,000-30,000,000

一濠戲筆, 呈石篆大兄雅覽.

일호가 장난삼아 그려서 석전石篆¹⁾ 대형께서 보아주십사 드리다.

1) 석전石篆은 정기명(鄭基命, 1819-1875)의 호이다. 본관은 동래東萊, 자는 성삼聖三으로 정원용(鄭元容, 1783-1873)의 아들이다.

[인문] 書□僅成墨□農, 一濠



畫_ 겸재 정선 1676-1759

謙齋 鄭敎 Jeong Seon

題_ 연객 허필 1709-1768

烟客 許弼 Heo Pil

여산초당도 廬山草堂圖 Thatched Cottage at Mount Lushan

액자 Framed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Color on paper

21.7×27.8cm

₩ 100,000,000-200,000,000

겸재 정선(謙齋 鄭敎, 1676-1759)은 조선 후기 진경산수도의 확립자로 평가받는 화가이며, 관념산수도와 고사인물도에서도 높은 완성도를 보였다.

본 작품 <여산초당도>는 겸재 정선이 당나라 시인 백거이(白居易, 772-846)가 중국 여산廬山에 초당을 짓고 은거하며 지내던 일화를 그린 고사인물도로, 정선의 문인적 소양과 회화적 역량이 집약된 작품이다. 여산은 중국 강서성江西省에 위치한 명산으로 광려산匡廬山, 광산匡山으로도 불리며, 예로부터 은일과 사색의 공간으로 인식되어왔다. 정선은 백거이의 「초당기」를 바탕으로 속세를 떠나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이상적 선비의 삶을 화면에 구현하였다. 초당 안팎으로 흐르는 물을 중심으로 좌우로는 멀고 가까운에 따라 농담을 조절한 울창한 수목의 표현이 특징적이다. 화면 우측 바위 위에 앉은 백거이의 모습은 한 여름 물가의 시원함이 느껴지는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자아낸다.

본 작품에는 조선 후기 문인 화가 연객 허필(烟客 許弼, 1709-1768)의 화체가 남아 있다. 허필은 표암 강세황(豹菴 姜世晃, 1713-1791)과 친밀하게 교유하며 시·서·화 삼절로 명성을 얻은 인물로, 그의 화체를 통해 이 작품이 백거이 고사를 주제로 한 그림임을 확인할 수 있다. 연객과 표암의 교유관계, 그리고 화면의 크기 등으로 보아 겸재정선박물관 소장 <피금정披襟亭>[참고도판 1], <조어釣魚>[참고도판 2]와의 짚은 친연성이 확인되며, 이는 동일한 화첩에 수록되었을 가능성을 짐작하게 한다. 동일한 형식과 화면 구성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본 작품은 해당 화첩의 성격과 제작 맥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주목된다.



[참고도판]

1. 겸재 정선, <피금정披襟亭>, 종이에 수묵담채, 21.1×27.7cm, 겸재정선미술관 소장.
2. 겸재 정선, <조어釣魚>, 종이에 수묵담채, 21.1×27.7cm, 겸재정선미술관 소장.



白家夏天床席 백거이 집의 여름날 평상
烟客 연객

謙齋 겸재

[인문] 鄭, 敎

본 작품의 주제는 간송미술관 소장의 <여산초당도>[참고도판 3]가 참고된다. 간송미술관 소장의 <여산초당도>가 응대한 산세 속 초당을 부감 시점으로 포착한 반면, 본 작품은 시점을 한층 낮추어 초당 내부로 가까이 끌어들인 구성을 취하고 있다. 아담한 초당에 웃음을 벗은 백거이는 자연에 몸을 맡기고, 은거자의 유유자적한 생활을 속 여유로움과 탈속적 태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필치에서는 나무 등치에 두 개의 볶을 같이 써 여러 선으로 그려내는 양필법과 미점으로 먹을 쌓아 올린 적묵법 등 정선의 진경산수도에서 자주 확인되는 필목 기법이 활용되어, 관념적 고사 장면임에도 정선만의 개성적인 경관묘사가 두드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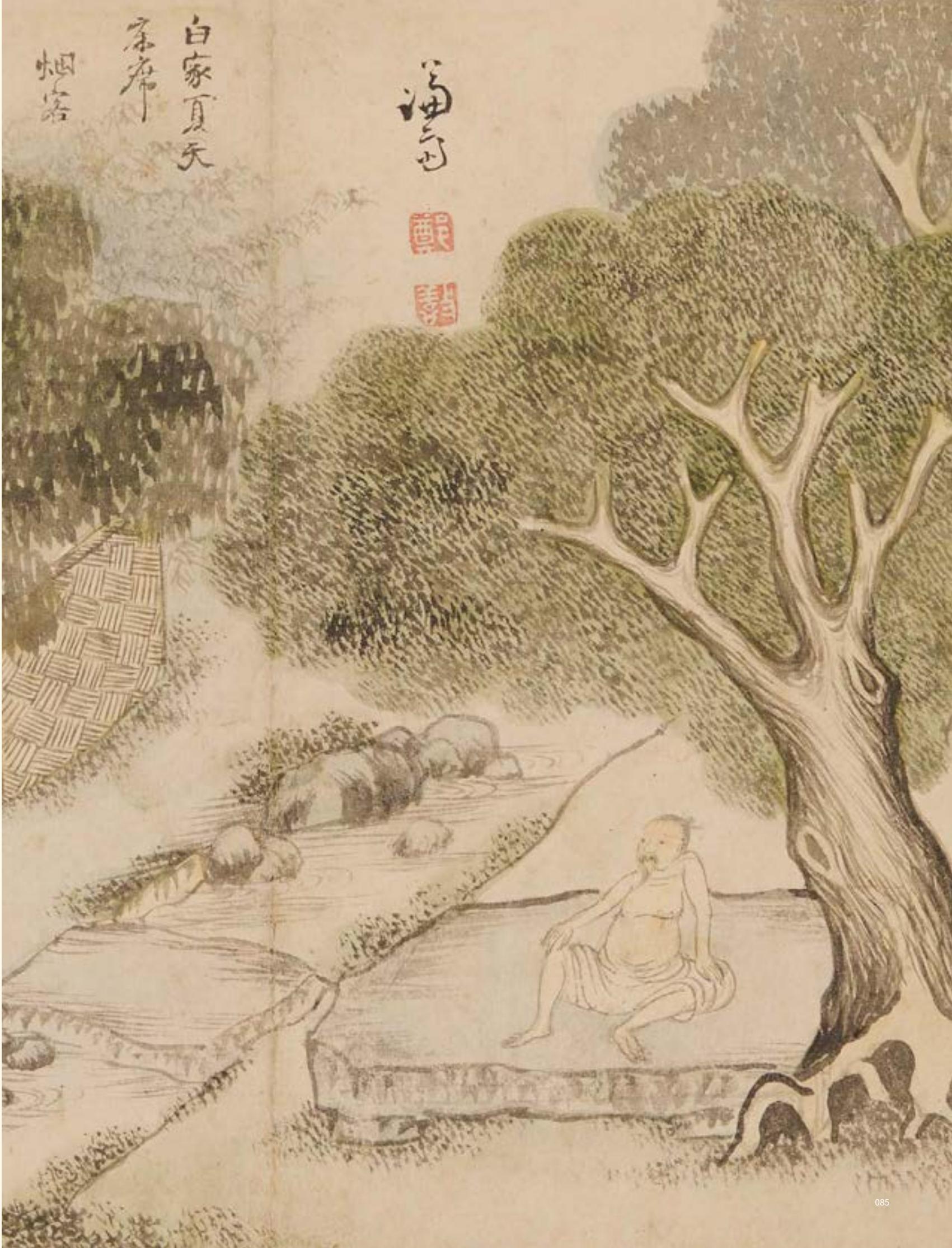
이와 같이 경재는 중국의 고사와 문인들의 일화를 주제로 한 작품을 다수 제작하였다. 이는 경재가 진경산수화뿐만 아니라, 고사인물화에서도 독자적인 회화 세계를 구축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참고도판]

3. 경재 정선, <여산초당도>, 조선 18세기, 125.5×68.7cm, 간송미술관 소장.

4. 경재 정선, <여산폭포도>, 조선, 100.4×64.1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덕수5597).



기야 이방운 1761-1823 이후
箕埜 李昉運 Lee BangWoon

하경산수도 夏景山水圖 Summer Landscape

족자 Hanging Scroll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Color on Paper
27×33.5cm

₩ 30,000,000-60,000,000

이방운은 산수화뿐 아니라 인물화와 화조화에 이르기까지 회화 전 분야에서 고른 역량을 발휘한 조선후기 문인화가이다. 본관은 함평咸平이며, 초명初名은 방훈邦勛, 자는 명고明考이다. 호는 기야箕埜 또는 箕野를 비롯하여 심재心齋, 순옹淳翁 등 다수의 아호가 전해진다. 문인 취향의 확산과 함께 남종화풍이 본격적으로 수용되던 조선 후기 회화사의 흐름 속에서 심사정, 강세황 등의 문인화가 맥을 같이 한다.

본 작품은 산에 은거하는 문인 삶을 주제로 여름 깊은 산세 속에 자리한 정자와 초가의 풍경을 담고 있다. 하경夏景은 문인 산수화에서 계절의 정취를 통해 자연 속 은거와 심리적 안온함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데 활용되었으며, 이 작품 역시 여름 풍경을 서정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화면에는 굽이굽이 펼쳐진 푸른 산, 초가를 감싸는 버드나무와 소나무, 산간을 따라 흐르는 폭포, 아담한 연못이 어우러져 한적하면서도 생동감 있는 자연의 모습을 이룬다. 작가 특유의 짧은 점과 선의 연속이 조화롭게 이어지며 가볍고도 섬세한 필치와 포근하고 맑은 색채 감각이 더해져 여름의 청량한 정서를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남종화법을 바탕으로 부드러운 필치로 경물을 소략하게 표현하고 청靑, 녹靑, 황黃 색의 투명하고 화사한 색감을 구사하였다. 본 작품은 단아하고 참신한 개성적인 화풍을 지닌 이방운 산수화의 개성적인 양식이 전형적으로 드러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박효정, 「기야 이방운의 『정미년丁未年 사계산수도첩四季山水圖帖』 연구」, 『미술사와 문화유산』 제4집, 명지대문화유산연구소, 2016.



[참고도판]

기야 이방운, 「시경詩經」의 「빈풍칠월편」, 조선, 비단에 수묵담채,
34.8×25.6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동원 2174).



[인문] 咸平之李, 防運箕野



042

노옹독조

老翁獨釣

An Old Man Fishing Alone

족자 Hanging Scroll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Color on Paper
63×40cm

₩ 8,000,000-15,000,000

[인문] 應學



한매서작·설죽황학

寒梅栖鶴·雪竹黃鶴

Birds with Plum Blossom and Bamboo

족자 Hanging Scroll

종이에 수묵담채, 먹 Ink and Color on Paper, Ink on Paper

180×160cm

₩ 30,000,000-50,000,000

족자 하단에는 태종의 둘째 아들인 효령대군(孝寧大君, 1396-1486)이 13세에 쓴 글씨 8자를 쌍구한 글자가 배꼽되어 있다. 효령대군은 세종대왕世宗大王의 친형으로 서울 서초구 효령로 135 묘소 아래에 대군을 제향하는 청권사淸權祠가 있다. 이곳은 50만 효령대군 후손들의 종친회 사무국이기도 하다. 작품의 상하단에 주역의 12제를 그려 넣어 흥미를 더한다. 작품 후면에는 시구가 적혀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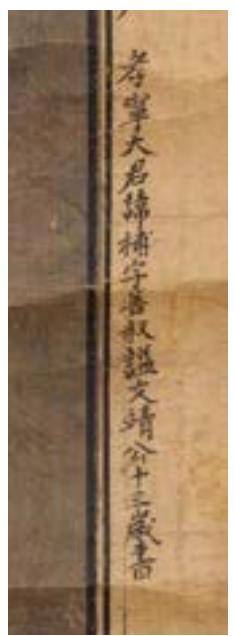


寒梅栖鶴 차가운 매화 가지에 까치가 깃들다.
梅月鶴 달빛에 린 매화와 까치



日飲聖賢酒 날마다 청주 탁주 실컷 마시고서
高枕夢羲皇 편안히 누워서 복희씨를 꿈꾸리니.

이 시는 송남수(松潭 宋柟壽, 1537-1626)가 지은 「題清坐窩 청좌와에다 쓰다」 중 결구에 해당되는 구절이다. 다만 송남수의 문집에는 음식자가 경향자로 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동일하다. 청좌와는 동춘당 송준길의 부친인 송이창(宋爾昌, 1561-1627)의 당호이다. 송남수는 모재 김안국의 문인문인 규암 송인수(圭庵 宋麟壽, 1499-1547)의 8촌 동생이다. 시문집『옥오재집玉吾齋集』을 쓴 송상기(宋相琦, 1657-1723)의 고조 고조이다. 송남수의 시구가 이면지에 기록된 것을 미루어 이 족자의 제작 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



孝寧大君諱補字善叔諡文靖公十三歲書
효령대군 휘 보 자 선숙 시 문정공 13세에 쓴 글씨



044

희원 이한철 1812-1893 이후

喜園 李漢喆 Lee HanCheol

노안도 蘆雁圖 Reeds and Wild Geese

족자 Hanging Scroll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Color on Paper

43×88cm

₩ 15,000,000-30,000,000



<후면>
李漢喆筆 蘆雁之圖 이한철 필 노안도

達城文庫藏 달성문고 소장



蘆花水淺
時鳴報霜
갈대꽃 피고 물이 얕은 곳에
때로 울어 서리를 알리네
希園 희원

[인문] □□, 李漢喆印

045

오원 장승업 1843-1897

吾園 張承業 Jang SeungYeop

영모도 8폭병풍 翎毛圖八幅屏風 Animals and Birds

병풍 Folding Screen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Color on Paper

각 114×33cm

₩ 70,000,000-150,000,000





조선 말기 대표 화가 오원 장승업(五園 張承業, 1843-1897)의 8폭으로 구성된 영모도이다. 그의 뛰어난 필력으로 자연 속 동물과 식물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였다. 사실적이면서도 운치 있는 구성, 산뜻한 색감이 돋보인다. 1폭에는 오동나무 아래에서 있는 우아한 자태의 단정학丹頂鶴, 2폭에는 분홍색 꽃나무를 사이에 두고 참새 한 쌍이 그려진다. 3폭에는 새 두 마리가 마주 보며 정다운 모습이다. 4폭에는 연지연池로 보이는데, 연잎 사이에 숨은 새 한 마리가 보이며 싱그러움을 더한다. 5폭에는 나뭇가지 위에 매 한 마리가 앉아 매섭게 바라보는 모습이다. 6폭에는 괴석과 풍성히 핀 국화 아래에 삼색고양이가 웅크리고 앉아있다. 7폭에는 노안도蘆雁圖가 펼쳐지며 그의 뛰어난 표현력을 여실히 보여준다. 마지막 8폭에는 빨간 꽃 앞에 앉은 새가 그려지며 ‘吾園 張承業 仿元人’이라 적혀있다. 본 작품은 장승업의 뛰어난 묘사력과 예술 세계를 유감 없이 보여주는 걸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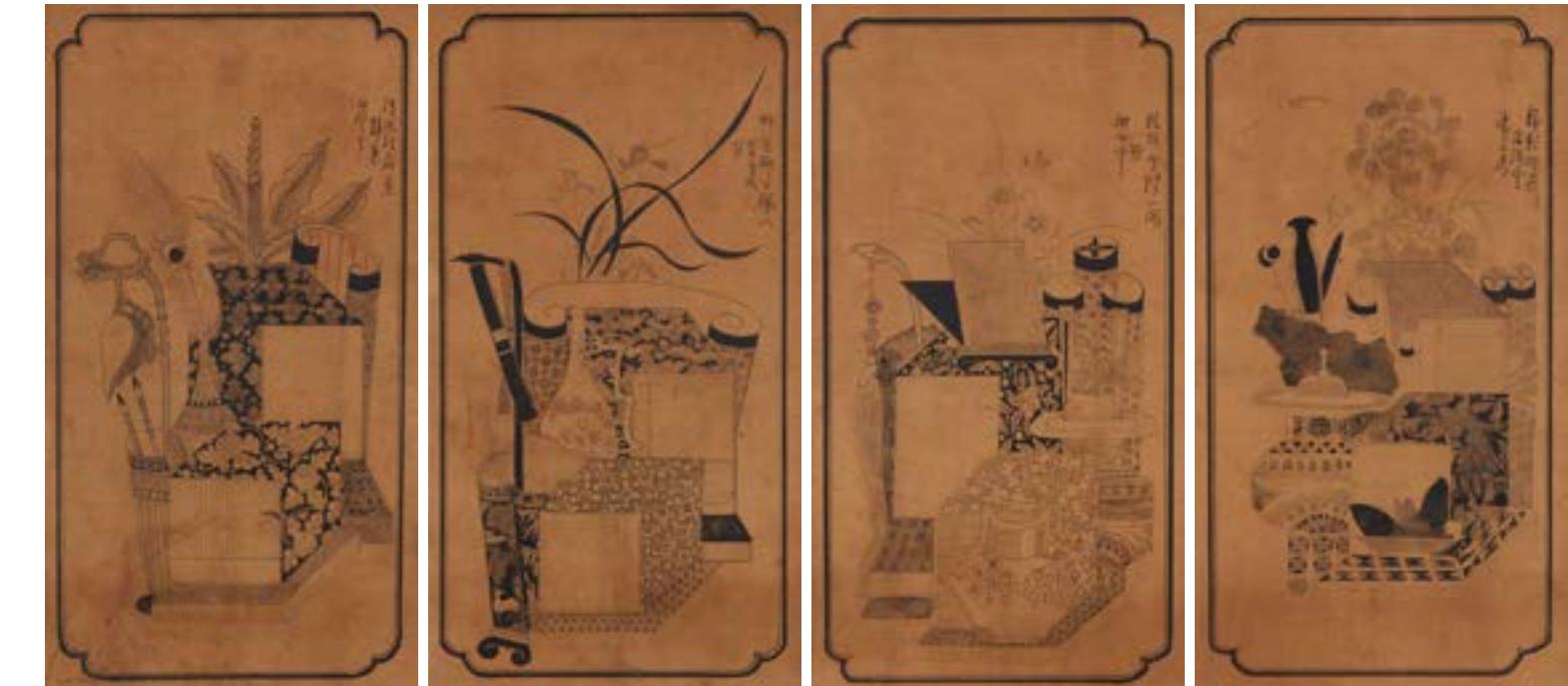
책거리 8폭병풍

冊巨里八幅屏風

Scholar's Utensils

병풍 Folding Screen
종이에 수묵 Ink on Paper
각 59×31.7cm

₩ 8,000,000-15,000,000



[3폭]
折莖聊可佩
줄기를 꺾어 허리춤에 차고서
몇 조각 인적 없는 계단들이
入室自成芳
방안으로 드니 절로 향기 나네.
보슬비 오는 중에 열어있네.

[2폭]
數點空階一
줄기를 꺾어 허리춤에 차고서
몇 조각 인적 없는 계단들이
閒凝細雨中
보슬비 오는 중에 열어있네.

[1폭]
靜影燈前落
고요한 그림자 등불 앞으로 지고
流雲席上看
흐르는 구름 자리에서 바라보네.

삼국지연의도 2폭

三國志演義圖二幅
Romance of the Three Kingdoms

액자 Framed
종이에 채색, 금니 Gold Ink and Color on Paper
각 97.5×49cm

₩ 10,000,000-20,000,000

삼국지연의도는 『삼국지연의』가 가지는 역사인식이 조선의 성리학적 개념과 상통하면서 일찍이 조선에 유입되어 크게 유행하였다. 특히 서울과 평양 등에 설치된 관왕묘로 미루어 보아 영향력이 커던 것으로 생각된다. 현전하는 삼국지연의도는 『삼국지연의』의 방대한 내용 중 일부를 병풍으로 표현하는데, 표현되는 장면들은 화가가 취사선택하여 그린 것으로 보여지며, 주문자의 취향을 반영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본 작품은 삼국지연의도의 두 장면을 표현하고 있다. 한 폭은 유비가 백성들을 이끌고 퇴각할 때 조조에게 추격당해 미처 유비의 부인과 아들을 데려가지 못하자 조자룡이 홀로 유비의 아들을 구하는 장면인 단기구주單騎救主에 속하는 장면으로 생각된다. 하단의 선박에는 유비의 아들을 안고 돌아온 조자룡이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 폭은 한중 왕에 즉위하는 유비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화면 좌측 상단 왕위에 오른 유비가 그려졌으며 그 앞으로 제갈량이 있고, 하단에는 장군들과 대신들이 표현되어 있다.



호렵도 8폭 병풍

胡獵圖八幅屏風
Hunting Scene of the Hu

병풍 Folding Screen
종이에 채색 Color on Paper
59×304cm

₩ 10,000,000-20,000,000



평양성도 8폭

平壤城圖八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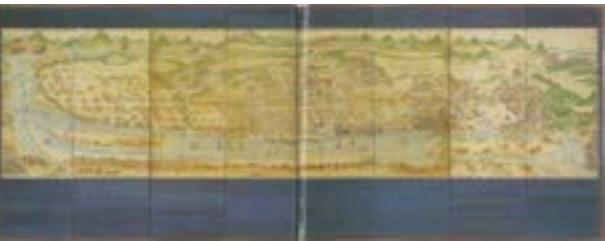
Pyongyang Fortress

액자 Framed

목판본에 채색 Hand-colored Woodblock Print on Paper

각 96.3×42cm

₩ 25,000,000-50,000,000



[참고도판]

1. <평양성도 8폭병풍>, 종이에 목판본, 채색, 87×354.7cm, 일본 개인 소장.
(대화문화관, 『이조의 병풍』, 1987.)

『조선왕조실록 朝鮮王朝實錄』 태조대의 기록에 따르면 “조선의 단군檀君은 동방東方에서 처음으로 천명天命을 받은 임금이고, 기자箕子는 처음으로 교화教化를 일으킨 임금이오니, 평양부平壤府로 하여금 때에 따라 제사를 드리게 할 것입니다.”라고 하여 평양의 역사적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다. 실제로도 평양은 단군과 기자조선을 지나 고구려의 마지막 수도였고, 고려의 서경으로 중요시되었으며, 아름다운 승경과 한양을 잇는 주요 교통로서 역사적·문화적·지리적 위상을 갖는 도시였다. 평양은 숙종(肅宗, 재위 1674-1720)대에 이룩한 급격한 상업 발달로 변화한 도시적 면모까지 갖추게 되었다. 특히 평양의 지리적 요건은 평양을 유람하거나 방문한 여러 문인들, 중국 명 사신 이 노래한 평양의 승경과 유적에 대한 시문과 글,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군대와 연합해 치른 격렬한 평양성 전투의 경험 등 평양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

이러한 평양을 그린 평양성도의 유행은 당시 시대적 분위기와 평양의 특수성이 맞물리면서 생겨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그림 병풍은 감상과 장식의 기능을 하면서도 실제 산수를 대신해 산수에 은거 또는 유람하고자 하는 문인의 바람을 충족해주거나 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대변해주었다.

본 작품은 19세기 전형화된 평양성도의 구성을 따르고 있다. 가옥이나 산의 표현은 목판본에 채색을 가미한 것으로 이는 단원 김홍도의 목판본 평양성도 병풍으로 전해지는 작품의 유형에 속한다.[참고도판1] 화면에는 1804년 평양에 큰 화재로 소실되고 1890년 중건된 애련당과 장대가 소실된 상태로 표현되어 있다. 애련당은 1909년 경 해체되어 일본으로 밀반출되었다. 또한 1881년 관풍전 옛터에 건립되었다는 서묘는 표현되어 있지 않다. 이로 보아 본 작품은 19세기 중반 경의 평양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1. 진준현, 『단원 김홍도 연구』, 일지사, 1999.
2. 박정애, 『朝鮮時代 關西關北 實景山水畫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미술사학전공 박사 학위논문, 2011.
3. 손명희, 『조선시대 평양성도를 통해 본 평양의 모습과 지역적 성격』, 『한국고지도연구』1(1), 한국고지도 연구학회, 2009.
4. 손명희, 『조선 후기 평양성도 병풍의 성격과 기능-역사·문화정체성의 표상이자 지도』, 『한국고지도연구』 14(2), 한국고지도연구학회, 2022.



050

박정희 1917-1979

朴正熙 Park ChungHee

휘호: 국토를 잘 보존하자 挥毫 Calligraphies

액자 Framed
종이에 먹 Ink on Paper
22.5 × 76.2 cm

₩ 8,000,000-15,000,000

0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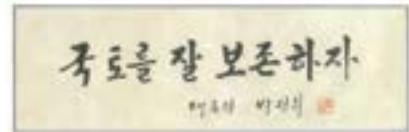
고군 김옥군 1851-1894

古筠 金玉均 Kim Ok Gyun

시고 詩稿 Poem

족자 Hanging Scroll
비단에 먹 Ink on Silk
25×18cm

₩ 2,000,000-4,000,000



[참고도판]
박정희, <휘호: 국토를 잘 보존하자>, 1970. (민족종
반전화재특집 휘호를 주시오고 - 1988. 3. 20.)

『박성희·내통령 위호를 중심으로』, 1989, p. 208.)

국도를 잘보존하자

福地小如笠 복된 땅이 삿갓처럼 작은데
秋來更喜炎 가을에 오니 햇볕이 더욱 기빠라
芭蕉栽滿戶 파초를 집안 가득 심어서
半榻得清恬 작은 결상이 맑고 편안하네

世界恁麼熱 세계가 이처럼 뜨거운데
四維一烘炎 사방은 온통 불꽃 속이로다
由來善勝者 예로부터 마음을 잘 간직한 자는
湯鑊得安恬 끓는 솔 속에서도 편안하였다네
錄在南島時作二絕句, 應田中君屬.
남도에 있을 때 지은 절구 2수를 적어 다나카[田中]
군의 부탁에 응하다.
古箋 고교

[인문] 金玉均印, 字伯溫

幅地小如笠秋来更著迷
芭蕉裁滿戶半楣得清涼
坐寒侵壁壁立回維一竹竿
由其直者左向難自寫情
絲之南窗時作蘋因念
月中孤居 真

동의보감 25책 완질: 개정판

東醫寶鑑 完帙 改訂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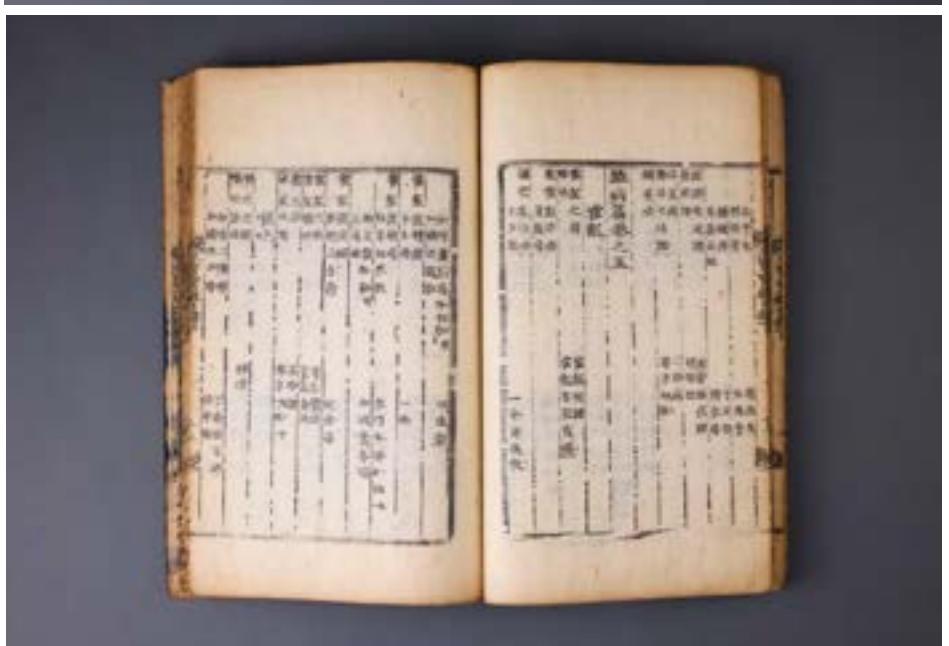
Principles and Practice of Eastern Medicine : revised edition

첩 Scrapbook

목판본 Woodblock Print on Paper

각 35×22.5cm

₩ 10,000,000-20,000,000



본 작품은 동의보감 東醫寶鑑 25권 25편의 완질로 ‘歲甲戌仲冬 内醫院校正 嶺營改刊 세갑술증동 내의원교정 영영개간’이라는 간기(年號)가 보인다. 동의보감은 1610년에 허준(許浚, 1539-1615)에 의해 완성되어 초간初刊된 의서이다. 1753년 9월 23일의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기사에는 동의보감을 영남감영·嶺南監營에서 개간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처음으로 등장한다. 이후 1758년의 기사에서도 영영·嶺營에서 간행하여 진상 하자는 것으로 보아 영영간본이 이 시기까지도 간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작품과 같은 갑술영영개간본甲戌嶺營改刊本은 1814년에 개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문헌]

박훈평, 「17-18세기 조선 간행 『동의보감』 목판본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 『한국의사학회지』(한국의사학회 제28권 제1호, 2015), pp. 26-28.

053

문방우도

文房友圖

Objects of the Scholar's Studio

액자 Framed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Color on Paper

43×45.5cm

₩ 2,000,000-4,000,000





PART 2

도자

陶磁

CERAMICS

Lot.054 - 084

054

백자청화초문선형연적

白磁青畫草紋扇形硯滴

Blue and White Porcelain Water-Dropper

高 2.5
底徑 7cm

₩ 1,500,000-3,000,000



055

백자청화수복국화문화형연적

白磁青畫壽福菊花紋花形硯滴

Blue and White Porcelain Water-Dropper

高 3
底徑 7.5

₩ 2,000,000-5,000,000



056

백자청화죽문팔각연적

白磁青畫竹紋八角硯滴

Blue and White Porcelain Water-Dropper

高 6.5
口径 11
底徑 6.8

₩ 2,000,000-4,000,000



057

백자청화성좌문무릎연적

白磁青畫星座紋膝形硯滴

Blue and White Porcelain Water-Dropper

高 8.5
底徑 5.5



[참고도판]

<백자청화팔괘성좌문무릎연적白磁青畫八卦星座紋膝形硯滴>,
高 7.5, 口徑 0.5, 국립중앙박물관 소장(검회 2393).



058

백자청화포도문시명필통

白磁青畫葡萄紋詩銘筆筒

Blue and White Porcelain Brush Holder

高 14

口径 8.7

底徑 8.5

₩ 15,000,000-30,000,000



059

백자청화칠보문필세

白磁青畫七寶紋筆洗

Blue and White Porcelain Brush Washer

高 3.5
口径 2.3
底徑 2.8

₩ 2,000,000-4,000,000



060

백자청화초화문화장기 3점 일괄

白磁青畫草花紋化粧器三點一括

Blue and White Porcelain Cosmetic Containers

高 4.5
口径 2
底徑 2.5 외

₩ 3,000,000-5,000,000



061

백자청화모란문소병

白磁青畫牡丹紋小瓶
Blue and White Porcelain Bottle

高 5
口径 1.5
底徑 2.5

₩ 2,500,000-5,000,000



124



125

062

백자약호

白磁藥壺

White Porcelain Jar

高 8
口径 4
底徑 5.5



₩ 1,200,000-3,000,000



Lot.100

나전주흑칠포도문약상

螺鈿朱黑漆葡萄紋藥床

Mother-of-Pearl Inlaid Lacquer Medicine Table



Lot.052

동의보감 25책 완질: 개정판

東醫寶鑑 完帙 改訂版

Principles and Practice of Eastern Medicine : revised edition

Lot.092

약통

藥桶

Medicine Container



063

백자청화초문유병

白磁青畫草紋油瓶
Blue and White Porcelain Bottle

高 8
口径 3
底徑 9

₩ 4,000,000-8,000,000



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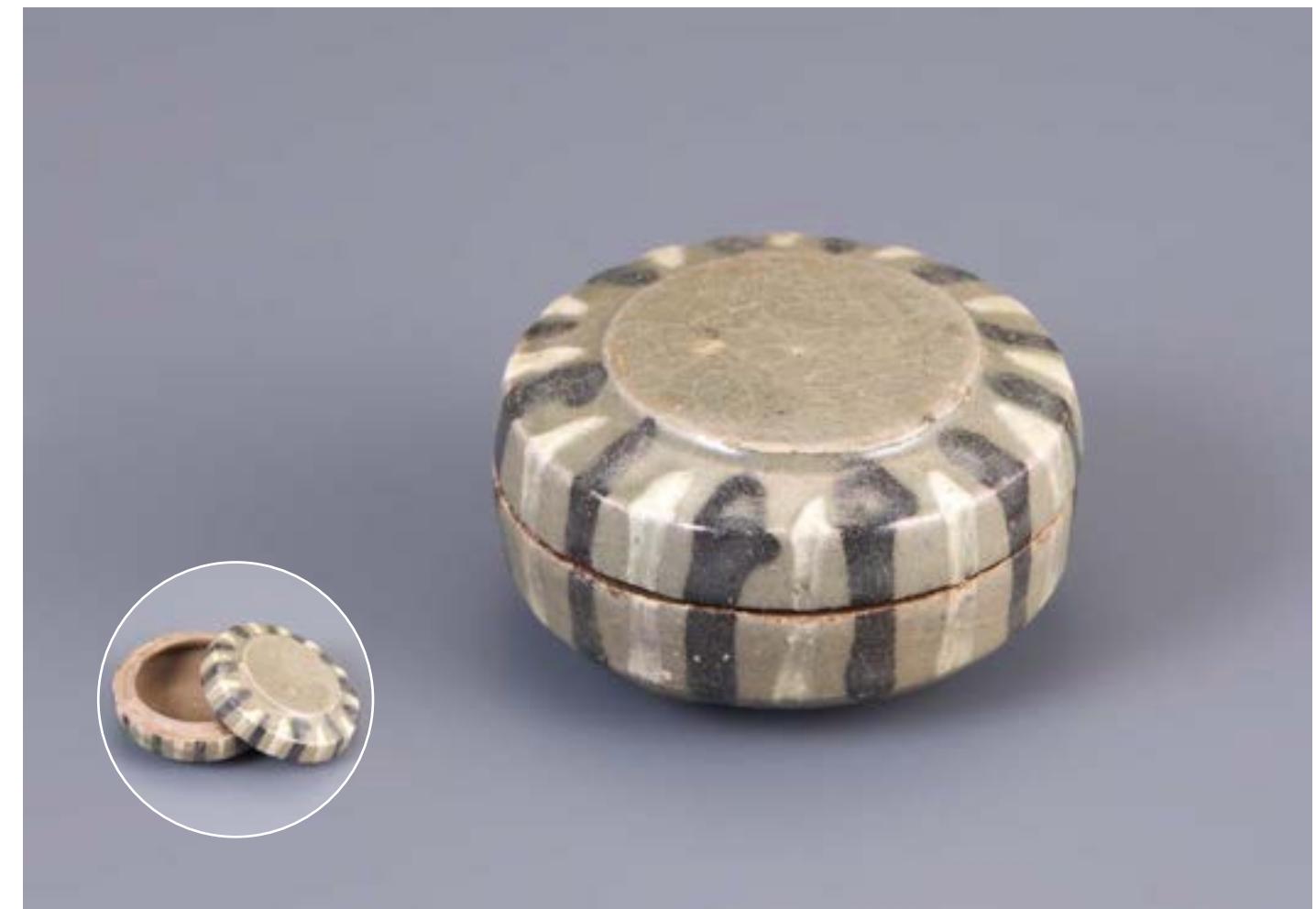
064

청자철화퇴화선문합

青磁鐵花堆畫線紋盒
Celadon Lidded Box

高 3.5
口径 6.5
底徑 3.2

₩ 5,000,000-10,000,000



129

065

청자상감운학문발

青磁象嵌雲鶴紋鉢
Celadon Bowl

高 7.3
口径 19.5
底徑 7

₩ 3,000,000-5,000,000



066

청자상감여지문발

青磁象嵌荔枝紋鉢
Celadon Bowl

高 6.5
口径 19.2
底徑 7

₩ 3,500,000-6,000,000



분청사기철화당초문장군

粉青沙器鐵畫唐草紋獐本
Buncheong Iron-Painted Bottle

高 17.2
口径 5.2
底徑 12.5

₩ 20,000,000-40,000,000



전면을 귀얄로 자유롭게 백토분장을 하여 철화기법으로 구연부 아래로 추상적인 당초문을 시문하였다. 철화 안료를 머금은 붓질은 힘차고 농담의 변화로 회화성이 돋보인다. 몸체 중앙에서 퍼지는 당초문은 좌우대칭을 이루면서도 변형을 주어 규격화되지 않은 유연한 구성을 보인다. 짧은 목과 두툼한 몸체, 안정적인 굽이 조화를 이룬다. 오른쪽 견부에는 문양을 생략하였으며 도공의 손자국이 남아있어 자연스러움이 강조된다.



분청사기철화삼엽문장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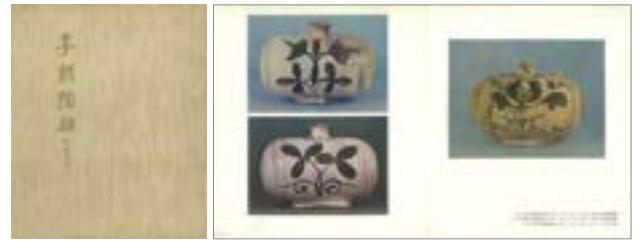
粉青沙器鐵畫三葉紋獐本
Buncheong Iron-Painted Bottle

高 25.8
口径 6
底徑 13.2

₩ 30,000,000-60,000,000



흰 분장 위에 짙은 철화의 발색이 현대적 미감을 느끼게 하는 당당한 조형의 본 작품은 전면에 귀얄붓으로 분장하고 철화로 삼엽초三葉草와 당초문을 그려 넣었다. 빠른 필치로 그려진 다른 분청사기의 문양과는 달리 매우 꼼꼼하고 단정하게 시문된 것이 특징이다.



[수록처]

1. 중앙일보, 『韓國의 美3 李朝陶磁: 紛青沙器篇』, 3판발행본, 1980.
2. 조선관묘박물관, 『조선도자수선』, 2002.



069

분청사기상감어문병

粉青沙器象嵌魚紋瓶
Buncheong Bottle

高 32
口径 8
底徑 11

₩ 40,000,000-80,000,000

구연부는 살짝 외반되어 있고 동체까지 유려한 곡선을 그리며 내려가다가 동체 저부에서 부풀는 모양이다. 목 부분에 기하학적인 선문의 문양대를 구성하여 둘렀다. 백색의 상감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동체의 전반에 물고기가 노니는 모습이 형상화 되어 있으며 추상적인 초문의 형태가 독특하다. 동체를 꽉 채우는 큼직한 어문과 초문은 간략한 선으로 표현되면서도 활달하여 해학성이 돋보인다.



분청사기박지조화어문편병

粉青沙器剝地彫花魚紋扁瓶

Buncheong Flat Bottle

高 22

口径 4

底徑 9.6

₩ 70,000,000-150,000,000

동체를 납작하게 눌러 만든 편병으로 주로 물이나 술을 담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굽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백토로 분장하였다. 전면에는 조화기법彫花技法을 사용하여 물고기 를 시문하였다. 두 마리의 물고기는 입에 연꽃과 같은 꽃대를 물고 유영하는 모습으로 배 치되어 있다. 소박하지만 유려한 선으로 그려 분청사기 특유의 자유분방한 미감을 잘 보여준다. 어문은 물과 생명의 이미지로 분청사기에서 매우 선호된 도상이다. 소성 과정에 서 자연스럽게 번진 유약과 분장의 흔적이 자연스러운 미감을 형성한다.



[참고도판]

<분청사기조화어문편병粉青沙器彫花魚文扁瓶>, 高 21, 口徑 4,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신수 12344).





071

분청사기상감모란포류학문장군

粉青沙器象嵌牡丹蒲柳鶴紋獐本

Buncheong Bottle

高 15

口径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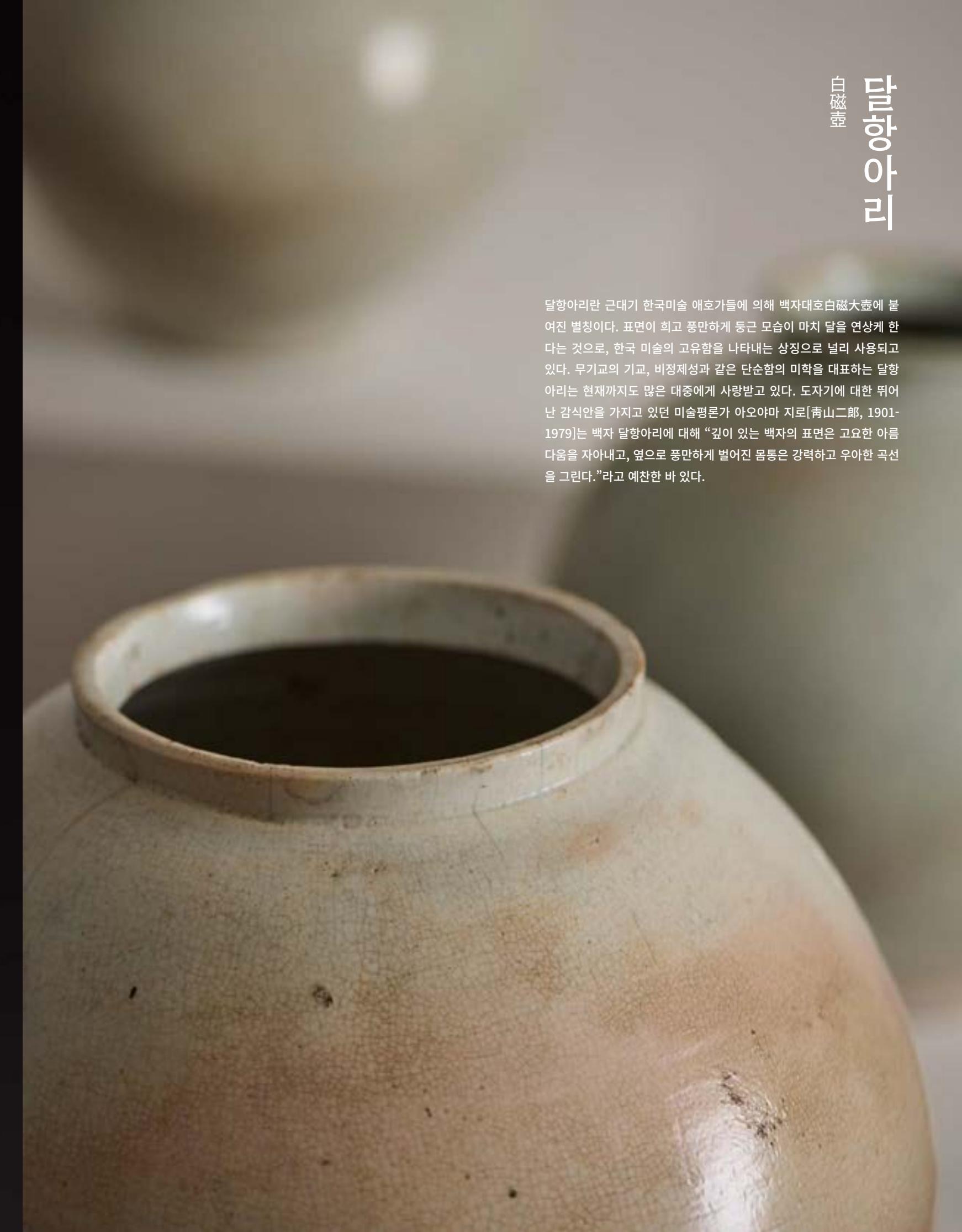
底徑 5.5

₩ 120,000,000-200,000,000

빈틈 없는 구성의 회화적인 상감이 돋보이는 분청사기 장군이다. 직립한 구연의 아래에는 선문을 기하학적으로 전개하여 장식하였다. 동체의 한 면에는 한 송이의 모란을 중심에 배치하고 이파리를 그 주위에 배열하여 면상감하였다. 반대편에는 새 두 마리가 교차하여 날아가는 모양을 시문하였다. 새의 몸체는 면상감하고 깃털은 선상감하여 그 섬세한 표현이 눈에 띈다. 본 작품의 백미는 장군의 바닥면에 위치한 문양으로, 한 면을 가득 채운 벼드나무에 한 마리의 새가 올라 앉아있다. 동체의 양 옆에는 연판문과 선문을 겹겹이 조합하여 둥글게 채워 넣었다.







달항아리란 근대기 한국미술 애호가들에 의해 백자대호白磁大壺에 불여진 별칭이다. 표면이 희고 풍만하게 둥근 모습이 마치 달을 연상케 한다는 것으로, 한국 미술의 고유함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무기교의 기교, 비정제성과 같은 단순함의 미학을 대표하는 달항아리는 현재까지도 많은 대중에게 사랑받고 있다. 도자기에 대한 뛰어난 감식안을 가지고 있던 미술평론가 아오야마 지로[青山二郎, 1901-1979]는 백자 달항아리에 대해 “깊이 있는 백자의 표면은 고요한 아름다움을 자아내고, 옆으로 풍만하게 벌어진 몸통은 강력하고 우아한 곡선을 그린다.”라고 예찬한 바 있다.

072

백자호

白磁壺

White Porcelain Jar

高 31

口径 14.5

底徑 15.5

₩ 30,000,000-50,000,000



073

백자호

白磁壺

White Porcelain Jar

高 33

口径 15.6

底徑 13

₩ 80,000,000-200,000,000



074

백자호

白磁壺

White Porcelain Jar

高 31

口径 13.8

底徑 13.5

₩ 80,000,000-200,000,000



075

흑유편병

黑釉扁瓶

Black Glazed Flat Bottle

高 23

口径 4

底径 9

₩ 7,000,000-20,000,000



076

백자철화덤벙각병

白磁鐵畫悶벙角瓶

White Porcelain Iron-Painted Deombeong Bottle

高 13.5
口徑 2.2
底徑 6.2

₩ 15,000,000-30,000,000



077

백자철화용문호

白磁龍紋壺

White Porcelain Iron-Painted Jar

高 25.5

口径 16.5

底徑 11



₩ 40,000,000-80,000,000



백자구형해시계

白磁龜形日晷

White Porcelain Sundial

高 10.8
徑 22.5

₩ 50,000,000-100,000,000

앙부일구仰釜日晷는 15세기 세종 재위 기간에 제작된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해시계이다.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 시간을 알 수 있게 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조선 후기까지 꾸준하게 사용되었다.

앙부일구는 오목한 가마솥 모양의 시계판이 하늘을 향해 있는 모양으로 해의 그림자를 이용해 절기선과 시각선의 눈금을 읽으면서 시간을 재는 시계이다. 금속, 목기, 석기, 도자기 등 여러 가지 재질로도 제작되었고 휴대용으로도 작게 만들어 사용되었다. 세종 때 제작된 앙부일구는 전해지는 것이 거의 없으며, 현존하는 조선후기 해시계 유물의 수도 매우 적다.

특히 도자기로 만들어진 해시계는 더욱 드물어 이 작품의 희소가치는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을 보면, 해시계를 등에 밟고 있는 거북이 형상은 정교하고 사실적이다. 얼굴의 눈, 수염, 이빨의 표현과 거북이 등껍질의 문양, 꼬리털, 다리의 비늘이 세밀하게 음각되어 있어 뛰어난 조형미가 돋보인다. 거북이는 평평한 받침 위에 올라 앉아있는데 수평을 잡을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거북이 자세는 엎드려 바닥에 네 다리를 붙이고 고개를 하늘로 들어 올리고 있다. 이러한 거북이는 조선시대 신도비 귀부龜趺의 모습이고 높은 수준의 도자 성형기법을 사용한 숙련된 기술자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시반, 영침, 지평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반구형의 시반時盤 내면에는 가로선으로 그려진 절기선節氣線과 세로선으로 그려진 시각선時刻線 있다. 영침影針은 해 그림자를 만드는 막대이다. 시반의 입술에 해당하는 지평면에는 절기 글자를 표기하였다. 북극고 37도 39분 15초北極高三十七度三十九分一十五秒라고 명문이 새겨져 있다. 위도 값이 1713년(숙종 39) 이후 처음 사용된 사실이 『국조역상고國朝曆象考』를 통해 확인되므로 제작시기 역시 1713년 이후로 추정된다.



[참고도판]

1. <백자구형해시계白磁龜形日晷>, 高 11.5, 直徑 28, 일본 고려미술관 소장.
2. <백자구형해시계白磁龜形日晷>, 高 11.4, 口徑 24.8, 국립중앙박물관 소장(건희 2127).



백자청화운룡문호

白磁青畫雲龍紋壺
Blue and White Porcelain Jar

高 37
口径 13
底徑 13

₩ 15,000,000-30,000,000

백자 호로 구연이 직립하였고 견부에서 부풀어 올라 저부까지 가파른 사선을 그리며 좁아진다. 구연에는 선문이 둘러지고 아래에는 간략화된 운문이 시문된다. 견부에는 여의두문을 돌렸고 동체를 가득 채운 운룡문이 인상적인 작품이다. 회화적으로 표현된 다양한 형태의 운문 사이로 한 마리의 용이 시문되었다. 용의 진행 방향은 왼쪽으로 오른쪽 앞다리를 앞으로 치켜들고 있다. 눈을 크게 뜨고 날아가는 용은 눈 아래에 수염이 나부끼고 있으며 입을 벌리고 있는 모양이다. 구불거리는 모양으로 날아가는 모습을 표현한 몸에는 청화의 농담으로 표현한 비늘이 인상적이다.

백자운룡문호는 조선시대 왕실 예기로 백자로 제작된 자기를 가운데에서도 그 위상이 독보적이다. 왕실의 크고 작은 연례宴禮와 제례祭禮에서 술을 담는 주준酒樽과 꽃을 장식하는 화준花樽으로 사용되기도 했으며 자기제로는 매우 드물게 의례서와 의궤에 수록되기도 했다. 용문은 그릇을 쓰는 사람의 권위나 신성함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주로 지배계층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다. 백자청화운룡문호는 임금의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는 기물로 왕실 존엄의 상징적 의미와 더불어 의례용기로서의 성격을 갖추고 있다.

[참고문헌]

1. 국립중앙박물관,『조선 청화 푸른빛에 물들다』, 국립중앙박물관, 2014.
2. 구혜인,『조선시대 주준(酒樽)용 백자용준(白磁龍樽)의 문양과 왕실 의례 와의 관계』,『미술사학보』48, 미술사학연구회, 2017.



[전시 출품 이력]
<Arts of Korea Gallery>, 미국 휴스턴미술관.



백자청화봉학문병

白磁青畫鳳鶴紋瓶

Blue and White Porcelain Bottle

高 24.3

口径 3.5

底徑 10.5



₩ 15,000,000-30,000,000



[참고도판]

<백자청화운학문병白磁青畫雲鶴紋瓶>, 高 26.8, 最大徑 16, 국립부여박물관 소장(부여 31924).



081

백자청화모란문병

白磁青畫牡丹紋瓶
Blue and White Porcelain Bottle

高 26
口径 4
底徑 10.6



₩ 4,000,000-8,000,000



[참고도판]
<백자청화모란문병 白磁青畫牡丹紋瓶>, 高 29.7, 口徑 4.2, 국립중앙박물관소장(덕수 6568).



082

백자청화국화문유개주자

白磁青畫菊花紋有蓋注子

Blue and White Porcelain Covered Ewer

高 15
口径 7.2
底徑 7.5



₩ 15,000,000-35,000,000



[참고도판]

<백자청화국화문주자白磁青畫菊花紋注子>, 高 16.4, 口徑 7.6, 국립중앙박물관소장(동원 215).



083

백자청화동화복숭아형유개주자

白磁青畫銅畫桃形有蓋注子

Blue and White and Copper-Painted Porcelain Peach-Shaped Covered Ewer

高 16

口径 7

底徑 6.5

₩ 3,500,000-10,000,000



084

백자청화불수감문호

白磁青畫佛手柑紋壺

Blue and White Porcelain jar

高 15

口径 10

₩ 3,000,000-5,000,000





PART 3

공예

工藝

CRAFTS

Lot.085 - 115

085

압록강재감

鵝綠江材鑑
Catalogue of Materials from the Amnok River

나무에 조각 Carved Wood
각 高 4.5, 4×1cm

₩ 2,000,000-4,000,000



압록강재감은 일제강점기 초기에 설치된 산림행정기구인 영림창營林廠이 제작한 목재 견본으로, 압록강 유역에서 벌목된 주요 수종을 직육면체 형태로 다듬은 작은 목재 조각들이다. 압록강재감은 통감부 영림창이 1907년 신의주에 설치된 이후 삼림 수탈과 제재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조선 북부의 삼림 자원을 시각적으로 기록·홍보하기 위해 만들 어진 것으로, 식민지 자원 통제와 삼림 수탈의 실상을 보여주는 상징적 유물이다. 상자에는 ‘신의주영림창新義州營林廠’ 표기가 남아있으나 ‘영營’ 자까지만 확인되고 나머지는 손상되었다. 상자 내부에는 ‘영림창관내중요수종재감營林廠管內重要樹種材鑑’이라는 인쇄표에 압록강 유역의 주요 수종과 용도를 한자와 일본어로 병기해 정리하였다.



086

만자문붓걸이

卍字紋筆掛
Brush Rack

나무에 조각 Carved Wood
17.5×19.5cm

₩ 1,000,000-3,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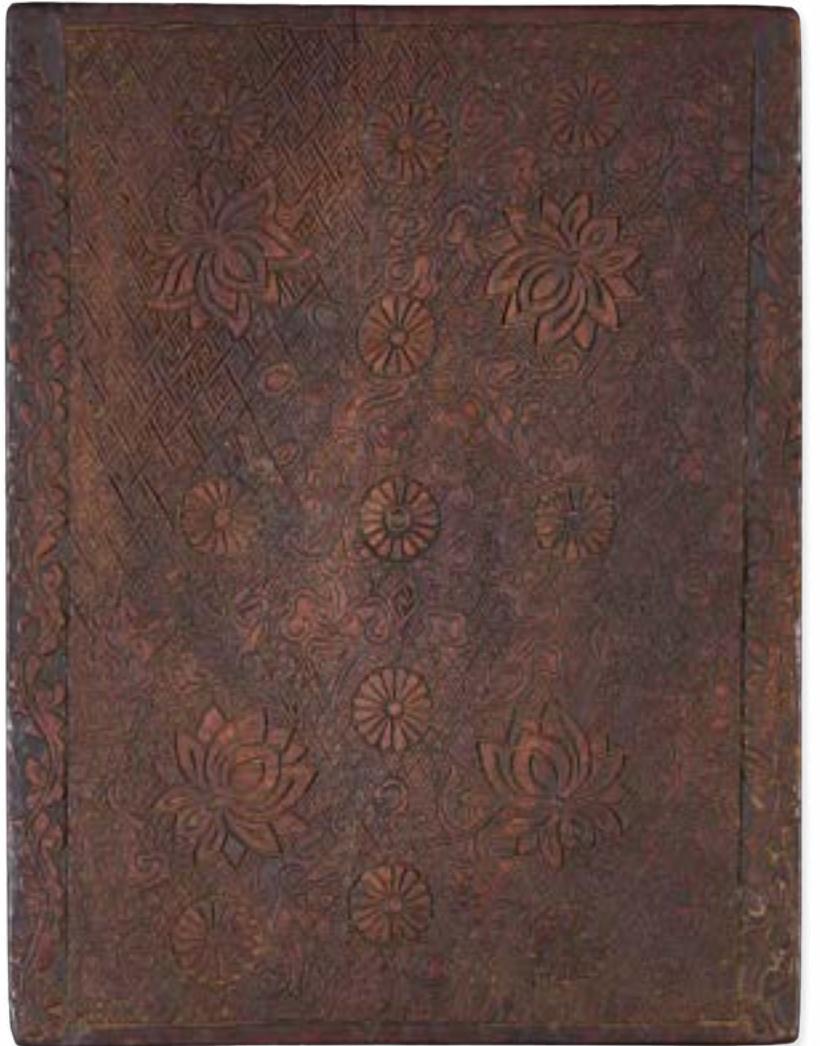
087

'대청가경팔년'명능화판

'大清嘉慶八年'銘菱花板
Pattern Block for Book Covers

1803
나무에 조각 Carved Wood
36.5×28cm

₩ 5,000,000-10,000,000



<후면>
大清嘉慶八年癸亥五月二十八日始至九月晦終
대청 가경 팔년(1803) 계해 5월 28일 시작하여 9월
그믐에 이르러 마쳤다.

088

추사 김정희 1786-1856

秋史 金正喜 Kim JeongHui

현판: 조효 造孝 Hanging Board
나무에 조각, 채색 Carved and Painted Wood
21×44.3cm

₩ 2,000,000-4,000,000

造孝 效에 나아가다.
阮堂 완당



089

추사 김정희 1786-1856

秋史 金正喜 Kim JeongHui

현판: 심석 Heart Stone Hanging Board

나무에 조각, 채색 Carved and Painted Wood
26.5×43cm

₩ 4,500,000-10,000,000

心石 심석
阮堂 완당

[인문] 阮堂

추사는 유배와 정치적 좌절 속에서도 학문을 놓지 않았고, 서예와 금석학을 통해 자기 내면을 더 단련했다. 시간과 시련에도 마모되지 않는, 돌처럼 단단한 마음의 중심을 뜻하며, 추사 김정희의 삶과 사유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문구라고 할 수 있다.

090

석파 이하응 1820-1898

石坡 李是應 Lee HaEung

현판: 단구무괴아심 但求無愧我心 Hanging Board

나무에 조각, 채색, 먹 Carved and Painted Wood with Ink
25.5×124cm

₩ 3,000,000-6,000,000



但求無愧我心 다만 내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기를 구할 뿐이다.

091

이화문표주박

李花紋瓢子
Gourd-shaped Vessel with Plum Blossom Design

나무에 조각 Carved Wood
長 9.5

₩ 1,000,000-3,000,000



092

약통

藥桶
Medicine Container

나무에 조각 Carved Wood
高 6

₩ 1,000,000-3,000,000



093

은제향합, 은제어형통 2점

銀製香盒, 銀製魚形桶

Silver Incense Box, Silver Fish-shaped Container

은에 조각 Carved Silver

향합_高 2.4, 6×6.4

어형통_長 13.5 외

₩ 1,000,000-2,000,000



094

은제주전자

銀製酒煎子

Silver Ewer

은에 조각 Carved Silver

高 14

口径 7.5

底徑 7

₩ 1,500,000-4,000,000



095

은제표형주전자

銀製瓢形酒煎子

Silver Gourd-shaped Ewer

은에 조각 Carved Silver

高 22.5

口径 3

底徑 6.3

₩ 2,000,000-4,000,000



096

청동작

青銅爵

Bronze Jue

청동에 조각 Carved Bronze

高 19

口径 16.5



<전면>
周式爵 주나라 식 작(술잔)

<후면>
李王家美術工場造 이왕가미술공장조



0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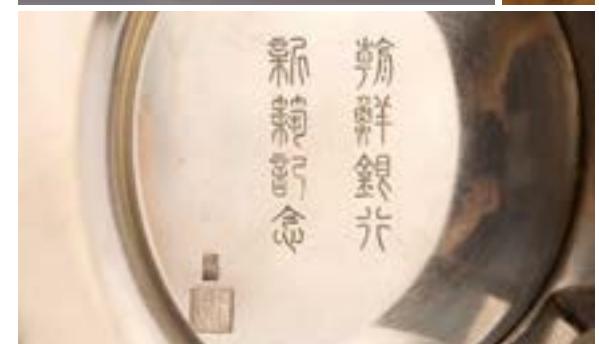
은제화병

銀製花瓶

Silver Flower Vase

은에 조각 Carved Silver
高 25
口径 10.2
底徑 12.5

₩ 5,000,000-10,000,000



<화병 내자>
朝鮮銀行 新築紀念 조선은행 신축기념
[인문] 純銀, 東京服部時計店謹製

<상자 전면>
銀製花瓶 은제화병

<상자 내면>
昭和式季拾月中旬 小瓦 2년(1927) 계절은 10월 중순



098

은제운이문화병

銀製雲螭紋花瓶

Silver Flower Vase with Cloud and Dragon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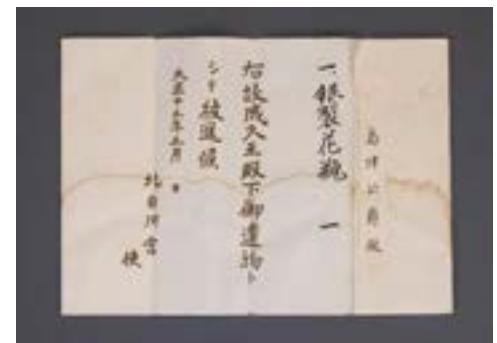
은에 조각 Carved Silver
高 23.2
口径 9.1
底徑 11.5

₩ 6,000,000-10,000,000

<상자 전면>
漢雲螭壺式華瓶 한나라 양식 운이룡문 항아리형 화병

<상자 후면>
李王家 美術工場謹造 이왕가 미술공장근조

大正十三年三月二十七日 大いしょ 13년(1924) 3월 27일
故北白川宮成久王殿下御遺物トシテ被進候 고 기타시라카와노미야 나루히사오우
[北白川宮 成久王, 1887-1923] 전하게 남기신 유품으로서 진상되었다.



島津公爵殿 시마즈 공작 전하

一. 銀製花瓶 1. 은제화병 1개

右故成久王殿下御遺物トシテ被進候
상기는 고 기타시라카와노미야 나루히사오우[北白川宮 成久王, 1887-1923] 전하게 남기신 유품으로서 진상되었다.

大正十三年三月〇日 大いしょ 13년(1924) 3월 〇일
北白川宮 使 기타시라카와노미야 가문의 대리인

099

은입사화로

銀入絲火爐
Silver-inlaid Brazier

백동에 은입사 Nickel Silver with Silver Inlay
高 17
19×19cm

₩ 15,000,000-30,000,000



100

나전주흑칠포도문약상

螺鈿朱黑漆葡萄紋藥床
Mother-of-Pearl Inlaid Lacquer Medicine Table

나무에 주칠, 흑칠, 나전장식 Wood with Red and Black Lacquer, Mother-of-pearl Inlay
高 21.5
29.5×29.5cm

₩ 7,000,000-15,000,000



나전베갯모 3쌍

螺鈿枕頭頂三雙
Mother-of-Pearl Inlaid Pillow Ends

나무에 나전장식 Wood with Mother-of-pearl Inlay
경 12.5 외

₩ 20,000,000-40,000,000



나전 베갯모는 조선 후기 나전칠기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보여주는 일상용 공예품이다. 19세기 이후 길상과 복을 기원하는 문자문과 민화적 요소가 결합된 문양이 유행하면서, 나전 장식은 가구와 문방용품을 넘어 안방의 생활용품으로까지 확산되었다. 흑칠 바탕 위에 시문된 나전은 빛에 따라 변화하는 색채 효과를 통해 화려한 장식미를 드러낸다. 제작 기법 또한 효율적인 방식이 널리 사용되며 대중화를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베갯모는 민간 신앙과 토속적 미의식이 반영된 조선 후기 공예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유물이다.



나전주흑칠모란당초문함

螺鈿朱黑漆牡丹唐草紋函

Mother-of-Pearl Inlaid Lacquer Bo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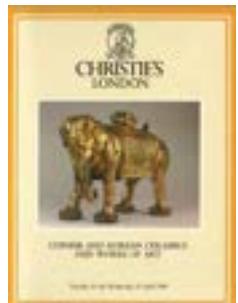
나무에 주칠, 흑칠, 나전장식 Wood with Red and Black Lacquer, Mother-of-pearl Inlay

高 12.5

34×40.5cm

₩ 60,000,000-100,000,000

본 작품은 활짝 핀 연꽃과 꽃봉오리, 잎사귀, 넝쿨 줄기 등 초화문草花紋이 둘 아가며 장식된 직사각형의 나전함이다. 몸체와 덮개로 구성되었으며, 덮개와 몸체의 문양들은 위아래로 서로 이어지며 화려하게 장식되어있다. 나전칠기는 조개를 얇게 만들어 여러 형태로 기물의 표면에 감입시켜 웃칠하여 꾸미는 칠공예로 조선시대 정교한 공예 기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 중 하나이다. 이 작품은 자개를 무늬대로 오려내고 망치로 때려 표현한 타찰법打擦法을 사용하여 장식하였는데 나전칠기 공예품 제작에는 많은 시간과 숙련된 기술이 요구되었기에 주로 왕실이나 상류 계층에서 사용되었다.



[출품 이력]

Christie's, London, Chinese and Korean Ceramics and Works of Art, 1984, Lot 357.



[참고도판]

<나전연당초문옷상자螺鈿蓮唐草紋衣箱子>, 조선 16-17세기, 高 12.7, 44.5×68.5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쌍학흉배관복 일괄

雙鶴胸背官服 一括

Set of Official Robes with Double Crane Rank Badge

길이 138.5cm
화장 97cm

₩ 30,000,000-80,000,000

조선의 복식과 장신구는 유교적 질서와 신분 체계를 바탕으로 형성되었으며, 관모와 의복, 장신구, 생활용품 전반에 상징성과 실용성이 함께 반영되었다. 사모와 단령을 중심으로 한 관복은 예와 격식을 중시 하는 성리학적 가치관과 신분적 위엄을 드러냈고, 허리띠인 품대와 띠돈 등은 착용자의 지위와 부를 나타내는 요소로 기능하였다.

본 작품은 사모紗帽, 전후면에 쌍학 흉배가 부착된 짙은 청색의 단령, 품대 등과 함께 관복 안에 입었던 옷들과 기물들이 일괄로 구성되었다. 본 작품의 소장이력을 참고하면 1865년 경 서울에서 구입된 것이며, 이후 2-3회의 소장자가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보아 조선에서 구입된 관복 일괄에 더 해 중국으로 생각되는 유물 몇 점이 후에 추가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작품은 19세기 중반 조선의 관복 구성을 살필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소장이력이 기록되어 역사적,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본 작품의 부채에는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탕조현(湯肇賢, ?-?)이란 사람이 금당(錦堂, ?-?)이란 사람에게 쓴 시가 있다. 두 사람 모두 미상이다.
내용은 송宋 소식(蘇軾, 1037-1101)의 <목욕계성승사 여조덕린해후沐浴啓聖僧舍與趙德麟邂逅>, <유씨 이외생 구필적柳氏二外甥求筆跡>이란 두 수의 7언 율시이다.



'대황제하사'명곡병운검

'大皇帝下賜'銘曲瓶雲劍

Curved Staff and Sword Inscribed "Gift from the Emperor"

금속에 복합재료 Mixed Materials on Metal
長 76.5

₩ 50,000,000-100,000,000



大皇帝下賜 大황제하사

본 작품은 굽은 손잡이에 손을 보호하는 가드가 달려있는 형식으로 서양 도검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1816년 영국 이양선이 마량진에 들어온 이후, 철종대에는 이미 어도의 형식으로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중반에 이르면 곡병자루에 가드가 달리고, 버튼식 잠금장치가 달린 신형 환도는 군영의 무관들에게 제한적으로만 지급되어 병사들의 실전용 환도와 차이를 두었다. 이렇게 곡병자루, 가드, 버튼식 잠금장치가 완비된 검의 형식은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참고도판1]이 참고되며, 또한 본 작품은 검신에 '大皇帝下賜'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어 주목된다.

[참고문헌]

이석재, 「조선시대 도검변천사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문화유산학협동과정 박사학위 논문, 2024.



[참고도판]

<사어피 곡병 운검>, 18세기 말 이후, 길이 72.5cm, 국립고궁박물관 소장(고궁3993).



인물장식기마형토기

人物裝飾騎馬形土器

Earthenware Horse with Human Figure

高 17
口径 9.5
底徑 8.5

₩ 50,000,000-100,000,000



[참고도판]
<서수형토기>, 백제, 높이 16.4cm, 만의총 1호분 출토, 국립나주박물관 소장(나주11979).



[수록처]
국립나주박물관, 『고대 영산강 사람과 동물』, 2022.



석제개구리형연적

石製蛙形硯滴
Frog-shaped Stone Water Dropper

돌에 조각 Carved Stone
長 7

₩ 3,000,000-5,000,000



여의두문경상

如意頭文經床
Writing Table

나무에 조각, 금속장식 Carved Wood with Metal Decoration
高 29
30.2×73cm

₩ 8,000,000-15,000,000



포도원숭이문일월연

葡萄猿紋日月硯

Inkstone

돌에 조각 Carved Stone

高 2.5

32×18.5cm

₩ 8,000,000-15,000,000



추사 김정희 1786-1856

秋史 金正喜 Kim JeongHui

인장 2과, 인장함 印章二顆, 印章函 Seals, Seal Box

돌에 조각 Carved Stone
高 6 외



[인문] 秋史墨緣, 金正喜印

₩ 12,000,000-25,000,000



원형편복문촛대

圓形蝙蝠紋燭臺
Circular Candlestick with Bat Design

백동에 조각 Carved Nickel Silver
高 85 외

₩ 10,000,000-20,000,000



[참고도판]
<백동촛대>, 조선, 경기도박물관 소장(소장 2443).



나비형연봉장식촛대

蝶形蓮峯裝飾燭臺

Butterfly-shaped Candlestick with Lotus Bud Decoration

금동에 조각 Carved Gilt Bronze
高 47 외

₩ 25,000,000-50,000,000



[참고도판]

- <나비형 불후리 유기 촛대>, 조선, 지름 16cm, 높이 45cm, 한국등잔박물관 소장(등잔58).
- <촛대>, 조선, 높이 42cm, 국립민속박물관 소장(민속3456).



십이각구족반

十二角狗足盤

Twelve-sided Tray with Dog-leg-shaped Legs

나무에 조각 Carved Wood
高 19
40×40cm



₩ 2,000,000-4,000,000

사각만자문구족반

四角卍字紋狗足盤

Square Tray with Dog-leg-shaped Legs

나무에 조각 Carved Wood
高 25
22.7×45.7cm



₩ 8,000,000-15,000,000



114

은입사송하호문팔걸이

銀入絲松下虎紋腕枕

Silver-inlaid Wooden Object with Tiger Motif

나무에 조각, 삼베, 은입사 Carved Wood with Silver Inlay and Hemp Cloth
高 16.5
15.5×30.5cm



₩ 3,000,000-6,000,000



[참고도판]

<은입사장생문팔걸이>, 高 28, 28×68.8cm, 남가람박물관 소장(목가구10).

115

문갑

文匣

Document Chest

나무에 조각, 금속장식 Carved Wood with Metal Decoration
高 30
28×61.5cm



₩ 4,000,000-8,000,000



응찰등록신청서

BIDDING APPLICATION FORM

응찰방법 Bidding Method	<input type="checkbox"/> 현장 응찰 Open Bidding	<input type="checkbox"/> 서면 응찰 Bidding in Writing
	<input type="checkbox"/> 전화 응찰 Telephone Bidding	<input type="checkbox"/> 비공개 응찰 Confidential Absentee Bidding

소속 Company	
---------------	--

성명 Name	Membership No.
------------	----------------

생년월일 Birth of Date	M F
-----------------------	-------

주소 Address	
---------------	--

No.	Lot No.	작가명 Artist	작품명 Title	응찰가격 Bid Price
1				
2				
3				
4				
5				
6				
7				

낙찰수수료 불포함 Buyer's Premium is not included

NOTICE

1. 상기 경매 물품에 대하여 기재한 응찰가격까지 본인을 대리하여 (주)마이아트옥션이 응찰하는 것을 위임하며, 경매 참여에 대하여 (주)마이아트옥션 경매 약관의 적용을 받는 것임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2. 공개(현장)응찰 또는 서면응찰 또는 전화응찰의 응찰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서면, 공개(현장), 전화 응찰자 순위로 낙찰에 대한 우선권이 있고, 서면응찰이 동일한 가격으로 경합하는 경우에는 본 응찰등록신청서를 먼저 제출한 분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3. 비공개 응찰은 경매일에 공개되므로 응찰자는 입찰 자격을 부여받은 후 입찰금액을 직접 작성하여 봉인 상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시가 된 해당 물품은 입찰 방식으로만 응찰하며 동일한 금액으로 경합하는 경우에는 응찰등록번호 순위로 낙찰에 대한 우선권이 있습니다.

4. 경매의 성립에도 불구하고 낙찰자가 낙찰을 부득이하게 철회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경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명확히 하고 낙찰가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마이아트옥션이 서면 및 낙찰철회비용을 수령하는 즉시 경매는 취소됩니다. 위약금과 별도로, 낙찰철회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당사는 낙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5. I delegate the bidding of the MYART Auction on behalf of myself to the bidding price described in the auction Lot.
I agree that the auction participation is subject to the MYART Auction terms.

6. If the bidding price is all the same by open (saleroom) bidding or writing and telephone bidding, there is a priority of winning bidding in the order of writing, open (saleroom), and telephone. If the bidding in writing competes at the same price, the person who first applied for the bidding registration has a priority.

7. Since the confidential absentee bidding is disclosed on the auction date, the bidder must submit the bidding price directly after being granted the qualification for the bidding and submit it in a sealed state. ◆marked Lot is bid only by the bidding method. If it competes with the same price, there is a priority for the winning bid by the bidding registration number.

8. Not with stan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auction, if the successful bidder inevitably withdraws the winning bid, the auction shall be made clear in absentee within 7 days from the auction date. Need to pay 30% of the hammer price for the penalty. Apart from the penalty, if the withdrawal of the winning bid causes damage, we can claim damages to the successful bidder. The auction will be canceled once the MYART Auction receives the absentee and winning withdrawal fee.

Date 20

신청인
Name

서명
Signature

접수자
Receptionist



03146 B1/5F/6F, Chunghun Bldg. 62-5, Insadong-gil, Jongno-gu, Seoul, Republic of Korea
T.02-735-1110 F.02-737-5527 http://www.myartauction.com myart@myartauction.com

회원가입 신청서

MEMBERSHIP APPLICATION

회원 Member	<input type="checkbox"/> 정회원 VIP Member	<input type="checkbox"/> 준회원 Regular Member
--------------	--	--

성명 Name	
------------	--

생년월일 Birth of Date	M F
-----------------------	-------

주소 Address	
---------------	--

관심분야 Interest	<input type="checkbox"/> 고화 Korean Traditional Art	<input type="checkbox"/> 고서 Ceramic	<input type="checkbox"/> 도자기 Folk Art	<input type="checkbox"/> 민예품 Modern & Contemporary Art	<input type="checkbox"/> 근현대 미술 Foreign Art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	--	---------------------------------

정보수신 Receive Information	<input type="checkbox"/> 문자메세지(SMS)	<input type="checkbox"/> E-mail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TALK ()	<input type="checkbox"/> 수신거부 Unsubscribe
-----------------------------	-------------------------------------	---------------------------------	------------------------------	-----------------------------------	--

소속 Company	
---------------	--

연락처 Direct Number	
----------------------	--

이메일 E-mail Address	
-----------------------	--



마이아트옥션 회원가입 3가지 방법 MYART Auction membership three ways

01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등록 [www.myartauction.com]
Register through online at MYART website [www.myartauction.com]

02 회원가입 신청서를 접속 팩스로 접수 [F.02-373-5527]
Apply membership application form by stealing fax [F.02-373-5527]

03 당사 또는 프리뷰 전시장에서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Register at our company or at the preview showroom

국내 거주 Oversea Residence

연회비 KRW 100,000
은행명 농협은행
계좌번호 317-0009-8112-11
예금주 (주)마이아트옥션

OVERSEA RESIDENCE

Annual Fee KRW 200,000
Name of Bank NONGHYUP BANK
Account Number 452 0016 6793 01
Account Name MYART AUCTION
Swift Code NACFKRSE

*계좌 입금 후 마이아트옥션으로 연락 바랍니다.

정회원 VIP Member

회원 가입 및 연회비 납부를 마치면 경매 도록과 함께 각종 정보를 제공 받게 되고 경매에 자유롭게 응찰하실 수 있으며, 수장고 이용료 및 감정수수료의 10% 할인 혜택도 부여됩니다.

Registering for membership and paying the annual fee will allow you to bid without limitation and get the auction's catalog with various information.

준회원 Regular Member

회원 가입을 마치면 경매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받게 되고 마이아트옥션 서비스의 이용 정도에 따라 경매 도록까지 제공 받으실 수 있으나, 경매 응찰은 제한됩니다.

Registering for membership and paying the annual fee will get various information and the auction's catalog depending on your service use. However, you will get a limitation on bidding.

Date 20

신청인
Name

서명
Signature

접수자
Receptionist



03146 B1/5F/6F, Chunghun Bldg. 62-5, Insadong-gil, Jongno-gu, Seoul, Republic of Korea
T.02-735-1110 F.02-737-5527 http://www.myartauction.com myart@myartauction.com

주식회사 MYART AUCTION 경매약관

본 약관 조항을 주의 깊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아트옥션 오프라인 경매 및 매매계약은 아래 내용에 의거하여 진행되며, 경매 또는 계약에 참여하는 자들은 모두 본 약관에 동의하며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 목적

본 경매약관과 관련하여 경매도록 등에 포함된 유의사항은 다음의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1.1 ㈜마이아트옥션(이하 "마이아트옥션"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오프라인 경매의 절차와 제반기준 및 관련자들의 권리·의무 단, 마이아트옥션과 위탁자간의 위탁 계약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위탁계약서에서 규정한다.

2 정의

2.1 "경매"라 함은 경매약관과 경매도록 등에 따라 마이아트옥션에 실시하는 오프라인 경매를 의미한다.

2.2 "물품"이라 함은 경매 및 일반적인 형태의 매매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물품, 미술품, 창작물 등과 이용권, 고환권 등의 권리로 의미하고 "경매물품"이라 함은 마이아트옥션 경매에 출품되거나 경매 전 또는 후 세일, 상설 판매의 대상이 되는 모든 물품을 의미한다.

2.3 "경매도록"이라 함은, 마이아트옥션 경매와 관련하여, 마이아트옥션이 발간하는, 마이아트옥션 경매에서 경매될 예정인 경매물품에 관한 설명과 정보가 실린 도록(전자도록 포함)을 의미한다. "경매도록 등"이라 함은, 경매도록 및 해당 경매와 관련하여 마이아트옥션이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자료(홈페이지,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스마트폰 앱, 리스토브, 브로셔, 컨디션리포트, 제안서, 리서치자료, 경매장의 스크린, 홍보물, 광고물, 인쇄물 등을 포함하여,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를 의미한다.

2.4 "경매일"이라 함은, 경매물품이 경매에 부쳐지는 일자를 의미한다.

2.5 "경매기간"이라 함은, 마이아트옥션 경매가 실시되는 일자 또는 기간을 의미한다.

2.6 "응찰자"라 함은, 마이아트옥션 경매에 응찰하기 위하여 마이아트옥션에 응찰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마이아트옥션이 그 신청을 접수했거나 만약 적용 가능하다면, 경매약관과 경매도록 등에 따라 마이아트옥션으로부터 서면 확인서를 수령한 사람을 의미한다.

2.7 "경입일"이라 함은,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월曜일을 말한다.

2.8 "낙찰자"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경매약관에 따라 경매에 의해 최고가 응찰자로 결정된 사람을 의미한다.

2.9 "낙찰철회비"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낙찰자가 낙찰 받기를 포기함으로써 마이아트옥션에 지급하여야 하는, 낙찰자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2.10 "낙찰자비용"이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마이아트옥션, 그 관리자, 직원, 피용인, 대리인이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에 따라 경매물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지출한 환수수료, 보관료, 포장, 인도 및 보험료를 포함한 모든 세금, 경비, 수수료 또는 비용으로서 낙찰자가 마이아트옥션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2.11 "구매수수료"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경매약관에 따라 경매물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낙찰자가 마이아트옥션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2.12 "위탁자"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마이아트옥션 경매 시작일 이전에 경매물품을 마이아트옥션 경매에 출품하기 위하여 마이아트옥션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탁한 사람을 의미한다.

2.13 "추정가"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경매를 통한 판매의 특성을 반영하여 마이아트옥션에게 위임된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결정된 경매물품의 추정된 가격을 의미한다.

2.14 "시작가"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경매를 통한 판매의 특성을 반영하여 마이아트옥션과 경매사에게 위임된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결정된 경매물품의 경매 시작 가격을 의미한다.

2.15 "낙찰가"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경매가격으로서, 경매사에 따라 경매사가 경매봉을 두드리고 최고가 응찰자의 때를 번호를 지정함으로써 확정된 최고 응찰가를 의미한다.

2.16 "구매가"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낙찰가에 구매수수료를 합한 가격을 의미한다.

2.17 "내정가"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경매물품의 경매 이전에, (만약 위탁자가 매도인인 경우) 위 경매 물품의 매도인과 마이아트옥션 간에 서면으로 합의된, 또는 (만약 마이아트옥션이 매도인인 경우) 마이아트옥션에 의해 결정된 경매물품의 경매 시작 가격을 의미한다.

2.18 "매도가"라 함은, 경매 등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마이아트옥션 또는 위탁자를 의미한다.

2.19 "계열회사"라 함은 마이아트옥션, 자회사 또는 마이아트옥션에 의해 지배되거나 마이아트옥션과 같은 지배 하에 있는 회사를 말한다.

3 대리인 또는 매도인으로서의 마이아트옥션

마이아트옥션은 매도인인 경매물품의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가 위탁한 경매물품을 경매함에 있어 마이아트옥션은 위탁자(즉, 매도인)의 대리인으로서 행위한다. 경매물품의 매매 계약은 매도인과 낙찰자 간에 성립한다.

4 전시회

4.1 마이아트옥션은 경매에 출품 예정인 경매물품에 관한 전시회를 개최한다. 본 전시회는 공중에 개방되고 무료이다. 단, 마이아트옥션은 자신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따라, 전시회에의 입장 이전에 전시회 입장장을 희망하는 자에게 자신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신원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입장장을 거부할 수 있다.

4.2 마이아트옥션은 마이아트옥션 홈페이지 또는 경매도록 등에 전시회의 장소, 일시 및 기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마이아트옥션은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따라, 그리고 사전 공지 없이, 전시회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전시회의 장소, 일시,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마이아트옥션은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따라 관련 전시회에 전시된 경매물품을 경매에 부치지 않을 것을 결정할 수 있다.

5 응찰 등록

관련 경매기간의 시작일 이전에 마이아트옥션과 서면으로 합의되지 않은 이상, 경매에 처음 응찰하는 응찰 희망자를 포함한 응찰 희망자는 관련 경매도록 등에 따라 위 경매도록 등에 명시된 해당 응찰등록신청서와 이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와 마이아트옥션에 서면으로 요구하는 기타 보증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함으로써 응찰 등록을 한다. 응찰 희망자의 경매 참가 등록과 서면응찰 또는 전화응찰 신청은 관련 경매도록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실시된다. 마이아트옥션은 경매 참가 등록과 서면응찰 또는 전화응찰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단, 위 등록 또는 신청의 불시행, 시연 또는 위 등록 또는 신청과 관련한 마이아트옥션, 그 관리자, 직원, 피용인 및 그 대리인의 어떠한 오류와 누락에 대해서도 마이아트옥션은 그 사유를 불문하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6 추정가

6.1 마이아트옥션은 당해 경매물품의 관련 경매기간에 각 경매물품에 대하여 낮은 추정가를 한국원화, 미국달러, 일본엔화로 경매도록 등에 제공한다. 추정가는 공지 없이 각 경매물품의 경매 이전에, 경매물품의 판

매가 위탁자의 궁극적 이익에 부합하는 점을 고려하여 마이아트옥션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추정가는 구매수수료 및 낙찰자가 마이아트옥션에 지급하여야 하는 낙찰자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마이아트옥션에 의해 제공된 추정가는 단지 응찰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경매물품의 실가나 낙찰가를 의미하지 않는다. 마이아트옥션은 추정가가 대외적으로 인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6.2 경매도록 등에 한국원화, 미국달러, 일본엔화로 표시된 추정가는 단지 응찰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별도로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모든 응찰과 대금지급은 한국원화(KRW)에 의한다. 경매도록에 표시된 추정가와 관련하여, 한국원화로 표시된 추정가를 미국달러, 일본엔화로 환산하기 위해 이용된 환율이 관련 경매도록 등에 명시된다. 위 환율은 경매도록의 이전 가장 최근의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 이후 변경되었을 수 있을 것을 본다. 경매도록 등에 표시된 미국달러 또는 일본엔화 등으로 표시된 어떠한 금액도 한국원화 금액을 정확히 반영한다. 보장하지 않으며, 또한 위 금액이 특정한 환율로 계산된 경우의 한국원화 금액(또는 그 역)을 반영하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응찰 희망자는 정확한 환율을 계산할 의무를 스스로 부담한다. 마이아트옥션은 한국원화로 표시된 추정가의 미국달러, 일본엔화로의 환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어떠한 오류나 누락에 대해서도 그 사유를 불문하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7.1.2 경매물품과 관련된 위험과 책임은

(i) 해당 경매물품의 낙찰일로부터 7일이 초과된 날 및
(ii) 낙찰자에 의한 위 경매물품의 인수일 중 먼저 도달하는 날에 낙찰자에게 이전된다.
본 항의 기간 계산에 있어 낙찰일 당일은 산입되지 않는다. 그러나 낙찰자가 경매약관과 경매도록 등에 따라 (마이아트옥션은 추정가에 대한 채무로서) 마이아트옥션에 대금을 원납하지 않거나 제10.6조에 따라 마이아트옥션에 민족할 만한 수준의 서류를 제공받지 못하여 마이아트옥션에 경매물품의 인수를 거절한 경우를 불문하고, 낙찰자가 위 기간 이내에 경매물품을 인수하지 않은 경우, 낙찰자는 해당 경매물품마다 위 기간 이 도과된 날로부터 인수될 때까지 보관비용(운송료, 보험료 포함)을 부담하며, 이 때의 보관비용은 마이아트옥션에 운영하고 있는 보관을 위한 창고의 1일 이용료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10.9 낙찰자에 의해 회수되어 할 경매물품이 당해 경매물품의 낙찰일로부터 21일 이내에 그 사유를 불문하고 낙찰자 또는 그 권한있는 대리인에 의해 회수되지 않는 경우, 마이아트옥션은 당해 경매물품에 대한 어떠한 손해나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본 항의 기간 계산에 있어 낙찰일 당일은 산입되지 않는다.

11 수출/수입 허가증

경매물품의 해외 반출/반입에 필요한 면허 및 허가(이하 "허가"라 한다)를 취득해야 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다. 낙찰자는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마이아트옥션은 낙찰자의 비용과 위원회부담 하에 낙찰자에게 필요한 허가 취득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에 부당하거나 제10조에 따라 낙찰자가 마이아트옥션에 대한 채무로서 마이아트옥션에 지급하여야 하는 총 대금 지급의 거절 또는 지연의 정당화 사유가 되지 않는다. 경매물품에 대한 허가는 발급 거부 및 지연은 낙찰자에 의한 애수 취소 또는 제10조에 따라 낙찰자가 마이아트옥션에 대한 채무로서 마이아트옥션에 대한 허가 취득에 있어 마이아트옥션에 대한 책임은 어떠한 책임도 부당하지 않는다. 특히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및 유물 등을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응찰자는 이 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응찰 및 낙찰에 임해야 한다.

12 경매 전, 경매 후 세일

12.1 관련 경매에서 최고응찰자가 내정가에 이르지 않아 경매물품이 유찰된 경우(이하 "경매후 경매물품"이라 한다), 마이아트옥션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2.1.1 위 경매후 경매물품에 대하여 내정가에 의한 애수 취소 또는 제12.1.2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경매물품에 대한 허가 거부 및 지연은 낙찰자에 의한 애수 취소 또는 제10조에 따라 낙찰자가 마이아트옥션에 대한 책임은 어떠한 책임도 부당하지 않는다.

12.1.2 제12조에 따른 최고가 응찰자의 응찰 수락

단, 마이아트옥션은 자신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관련 응찰자가 종전에 부당하거나 제12.1.1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경매물품에 대한 허가 거부 및 지연은 낙찰자에 의한 애수 취소 또는 제10조에 따라 낙찰자가 마이아트옥션에 대한 책임은 어떠한 책임도 부당하지 않는다. 12.2 경매후 경매물품에 관하여 응찰 시, 응찰자는 마이아트옥션에 서면으로 요구하는 대로 수령하는 사항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경매물품은 낙찰자에게 전달된다.

12.3 경매후 경매물품의 경매는, 마이아트옥션에 위치한 경매장에서 행해지며, 경매장에서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1.1에 따른 허가 거부 및 지연은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1.2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2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3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4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5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6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7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8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9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10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11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12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13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14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15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16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17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18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19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20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21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22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23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24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25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26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27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28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29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30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31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32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33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34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35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36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37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38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39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40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41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42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43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44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45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46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47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48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49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50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51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52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53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54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55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56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57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58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59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60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61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62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63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64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65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66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67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68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69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70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71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72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73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74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75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76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77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78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79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80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81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82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83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84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85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86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87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88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89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에게 부당하거나 제12.90에 따른 허가 취득과 함께 낙찰자

사유를 기재한 서면 (이하 "청구 서면"이라 한다)을 마이아트옥션에 제시하고,
(ii) 경매물품의 판매 당시와 같은 상태로 위 경매물품을 마이아트옥션에 반환해야 한다. 본 항의 기간 계산에 있어 낙찰일 당일은 산입되지 않는다.

14.4 낙찰자와 마이아트옥션 사이에 제한보증에 근거한 낙찰자의 청구 사유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마이아트옥션은 낙찰자의 비용으로 마이아트옥션과 낙찰자 모두가 용인할 수 있는 두 명의 전문가의 서면 의견을 받을 것을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마이아트옥션은 낙찰자에 의해 제공된 서면 의견에 구속되지 않으며, 당사의 비용으로 다른 전문가로부터 추가적인 의견을 구할 수 있다.

14.5 낙찰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경매물품에 관하여 제한보증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14.5.1 낙찰일 당시에 관련 표제사항이 학자 또는 전문가의 일반적인 의견이었던 경우;

14.5.2 관련 표제사항에 대하여 학자 또는 전문가의 반대 의견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경매도록 또는 경매장 전시된 판매실 공지에 표시된 경우; 또는

14.5.3 경매도록의 출판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방법 또는 비현실적으로 고가의 비용이 드는 방법이나 경매물품에 훼손을 가하는 방법으로부터 제한보증 위반이 증명되는 경우.

14.6 제한보증 위반이 있는 경우, 마이아트옥션은 경매물품의 경매를 취소하고, 낙찰자에게 경매물품에 관하여 낙찰자가 지급한 구매가를 환불한다.

14.7 경매물품에 관하여 제한보증 위반이 있는 경우, 마이아트옥션 및 매도인이 대한 낙찰자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구제 방법은 경매의 취소 및 위 경매물품에 관하여 낙찰자가 지급한 구매가의 반환청구이다. 마이아트옥션 및 매도인은 이익 또는 이자의 손실을 포함한, 어떠한 특별하고 간접적이며 후속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의문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마이아트옥션은 이를 지급할 책임 또는 환율 변동 등에 의해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4.8 낙찰자는 제한보증으로 부여받은 이익을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마이아트옥션과 낙찰자 간에 별도의 서면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승장에 표시된 낙찰자 또는 그 상속인만이 제한보증 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위 낙찰자 또는 그 상속인은 경매물품과 관련된 이익을 제3자에게 처분하지 않고 경매물품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4.9 위탁자를 대신하여 마이아트옥션에 제한보증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여 이와 유사한 책임을 부담한 경우, 위탁자는 해당 경매물품과 관련하여 마이아트옥션으로부터 자금받은 모든 금융원을 즉시 마이아트옥션에 반환하여야 하며, 그 외에 마이아트옥션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4.10 마이아트옥션은 경매 물품에 대하여 위탁자로부터 보증서 또는 감정서 등을 제출받아 이를 낙찰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마이아트옥션은 위탁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서 또는 감정서 등이 낙찰자에게 제공되는 보증서 또는 감정서 등과 동일하다는 사실에 대하여만 이를 보증한다. 마이아트옥션은 위탁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서 또는 감정서의 진위 또는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15 제한 책임

15.1 상기 제13조 및 제14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경매물품과 관련하여 본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응찰자 또는 낙찰자가 마이아트옥션 및 매도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하고 배타적인 구제 방법은, 해당 경매물품의 구매가를 상한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이다. 마이아트옥션이나 매도인은 모두 이익 또는 이자의 손실을 포함한, 특별하고 간접적이며 후속적인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의문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마이아트옥션은 이를 지급할 책임 또는 환율 변동 등에 의해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5.2 본 경매약관의 어떠한 사항도 마이아트옥션, 그 관리자, 직원, 피용인, 이들의 대리인의 경매의 실시 및 경매물품의 경매와 관련한 직위·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기, 사망 또는 인적 손해에 대하여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밝혀지는 경우 마이아트옥션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16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의 개정

16.1 마이아트옥션은 자신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어느 때나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개정 경매약관은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일반적인 내용의 경우에는 효력발생일 7일 전까지,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중요한 내용의 경우에는 30일 이전까지 공지하고, 경매도록 등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16.2 마이아트옥션은 자신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어느 때나 경매도록 등을 포함한 경매도록 상의 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본 변경 사항은 관련 경매기간동안 마이아트옥션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17 정보 보호 관련

17.1 위탁자, 응찰 희망자, 응찰자, 낙찰자는 경매에서의 응찰 및 경매물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개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 요구될 수 있고, 위탁자, 응찰 희망자, 응찰자, 낙찰자는 본 경매약관에 동의함으로써 그 개인 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모든 개인 정보는 다음의 목적에 이용될 수 있다.

(i) 마이아트옥션 사업의 관리와 경영 및 마이아트옥션 서비스의 홍보와 제공에 관한 모든 문제

(ii) 대한민국 안팎으로 이루어진 정보를 전달

(iii) 모든 법령, 규칙, 법원명령 또는 규제기관의 시지에 대한 준수와 관련된 목적.

17.2 모든 개인 정보, 개인정보, 경매정보, 경매물품에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로 보유되며, 위탁자, 응찰희망자, 응찰자, 낙찰자, 기타 대리인 등은 그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내외에 존재하는지를 불문하고, 다음의 범인 또는 개인에게 공개 또는 그에 의하여 관련된 정보를 이용될 수 있다.

(i) 마이아트옥션, 마이아트옥션의 계열회사 및 그룹

(ii) 마이아트옥션 및 계열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마이아트옥션 및 계열회사의 모든 관리자, 직원 또는 피용인;

(iii) 모든 대리인, 계약자, 제3의 서비스 제공자 또는 행정, 통신, 컴퓨터, 보험, 운송, 또는 그룹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룹에게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을 그룹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람;

(iv) 신용조사기관 및 기한이익의 상설 시 미수금회수기관;

(v) 그룹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기타 사람

(vi) 법령, 규칙, 법원명령 또는 규제기관의 시지에 따라 그룹이 정보공개의 의무를 부담하는 모든 사람.

17.3 일반적으로, 특정한 면제 대상을 제외하고, 위탁자, 응찰 희망자, 응찰자, 낙찰자는 다음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제17.3 (i)조 와 제17.3 (ii)조의 경우 마이아트옥션은 그 청구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정해야 한다.

(i) 개인 정보의 입수 청구;

(ii) 개인 정보에 대한 정정 청구;

(iii) 정보 입수 또는 정정이 거부되거나 40일 이내에 제공/정정되지 않은 경우 그 이유의 제공.

17.4 위탁자, 응찰 희망자, 응찰자, 낙찰자는 개인 정보의 입수, 정정, 혹은 마이아트옥션의 정보 보호 정책과 실례 및 마이아트옥션이 보유하는 정보의 종류에 대한 문의를 제18.7조에 따라 할 수 있다. 마이아트옥션은 정보 입수 청구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의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다.

17.5 위탁자, 응찰 희망자, 응찰자 또는 낙찰자가 범인인 경우 마이아트옥션은 위 범인이 정보수집 당시 정보주체에게 통지한 목적 또는 위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마이아트옥션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 위 범인은 제공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는다. 위 범인은 관련 응찰등록신청서에 서명날

인함으로:

(i) 일반적 또는 구체적인 통지를 불문하고, 마이아트옥션은 정보주체에게 그 개인 정보가 제17.1조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통지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ii) 위 범인의 상기 (i)에 규정된 통지를 불이행함으로써 마이아트옥션에 초래한 모든 손실 또는 손해를 보상 또는 배상할 것에 동의한다.

18 기타

18.1 다음의 경우 마이아트옥션은 해당 시점까지 마이아트옥션의 관리하에 있는 위탁자와 낙찰자의 물품을 점유할 수 있다.

18.1.1 위탁자 또는 낙찰자가 마이아트옥션 또는 계열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전액 지불하는 시점까지

18.1.2 경매물품의 소유권 또는 기타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음을 마이아트옥션에 인지하게 되거나 전품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까지

18.1.3 마이아트옥션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수준으로 고객 확인 및 등록절차를 완료하는 시점까지

18.1.4 관련 법령에 따라 또는 정부 조례로 인해 해당 물품을 마이아트옥션에 유통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필요한 시점까지, 이 경우 마이아트옥션은 해당 위탁자 또는 낙찰자에게 보관료와 보험료를 부과하거나 제3자 또는 마이아트옥션 참고로 물품을 이동시키고 운송료, 보관료 및 보험료를 부과 할 수 있다.

18.2 위탁자 또는 낙찰자가 마이아트옥션 또는 계열회사에 특정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마이아트옥션은 마이아트옥션은 보유중인 위탁자 혹은 낙찰자의 물품을 마이아트옥션의 판단 하에 합리적인 방식으로 예각할 수 있다.

18.3 위탁자 또는 낙찰자는 마이아트옥션 또는 계열회사가 위탁자 또는 낙찰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다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한다.

18.3.1 위탁자 또는 낙찰자는 마이아트옥션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의 지불

18.3.2 위탁자 또는 낙찰자를 대신하여 계열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의 지불

18.4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에 따른 모든 대금의 지급은 한국원화(KRW)에 의한다. 만약 낙찰자가 한국원화가 아닌 다른 통화(마이아트옥션 및 위탁자에 대한 채무로서) 마이아트옥션에 대금을 지급하거나, 마이아트옥션 이 자신에게 한국원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대금을 지급할 것을 마이아트옥션과 낙찰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낙찰자는 행수수료 및 경매수수료를 포함하여 그로 인해 추가된 비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모든 환전은 지급일에 서울외국환증개에 의해 제공된 한국원화 환율에 의하며, 위 환율과 관련한 마이아트옥션의 증명은 최종적이다. 의문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마이아트옥션은 환율 변동 등에 의해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18.5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에 따른 모든 대금의 지급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수표, 은행계정송금을 포함하는 현금과 동등한 방식에 의해 하자 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그 지급은 본 경매약관과 경매도록 등에 따른다.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에 따른 모든 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그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이 지급기일로 간주된다.

18.6 만약 본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의 일부가 법원에 의해 무효, 위법 또는 집행불가능하다고 판명되는 경우, 그 일부만이 효력을 상실하며, 본 경매약관 그리고/또는 경매도록 등의 나머지 부분은 법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고, 집행가능하다.

18.7 모든 공지, 요청, 청구, 요구 및 경매약관과 경매도록 등에 따른 마이아트옥션에 대한 통신은 한글 또는 영문 서면 형식이어야 하며, 인편, 등기우편, 접수확인서가 첨부된 팩스 (등기우편에 의한 원본의 송부), 마이아트옥션으로부터 담신을 받은 이메일 (등기우편에 의한 원본의 송부)로 다음의 주소로 행해진다 (그리고 도달로 인해 행해졌다 고 간주된다).

마이아트옥션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62-5, 5, 6층 601호 (관훈동, 충훈빌딩)
전화번호: 02) 735 1110
팩스: 02) 737 5527
이메일: myart@myartauction.com

응찰자 및 낙찰자 등 관련자에 대한 통지는 관련 등록서류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하거나 전자통신망(이메일, 문자메세지, sns 등)으로 제공한다. 관련자는 주소 및 연락처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마이아트옥션에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기로 한다. 만약 관련자가 이를 게시하여 마이아트옥션의 통지 등이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이아트옥션의 통지가 보통 도달하여 할 때 도달한 것으로 보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18.8 본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에 언급된 일시, 기간 및 본 경매약관이나 당사자들간의 서면 합의에 따라 대체될 수 있는 일시와 기간에 관하여, 시간은 본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에서 본질적인 사항이다.

18.9 마이아트옥션의 또는 마이아트옥션을 위한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 상의 어떠한 권리 포기도 반대당사자와의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에 의한 나머지 의무의 완전이행을 면제하지 않는다. 마이아트옥션은 경매약관이나 경매도록 등에 의한 자신의 권리, 권한 또는 구체 권리와 전제적 또는 부분적으로 행사, 불행사, 지연행사 하거나 마이아트옥션은 반대당사자에게 그 의무이행의 기한을 연기해주는 것이 경매약관이나 경매도록 등에 의한 자신의 권리, 권한 또는 구체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이를 침해, 또는 제한하지 않으며, 마이아트옥션은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의 위반에 대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후속 또는 연속 위반에 대한 권리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18.10 본 경매약관에 따라 개정된, 본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은 전체 계약 및 법에 내포되고 계약에 의해 배제될 수 있는 조항의 배제에 관한 당사자들 간의 이해를 구성하여, 본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한 당사자들 간의 어떠한 사전 서면 또는 구두 합의를 대체한다. 본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에 명시되지 않은 진술 또는 보증에 의하여 어떠한 당사자도 본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에 동의하도록 강제되지 않았음이 합의되었다.

18.11 국문, 영문, 중국 상의 어떠한 모순이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국문이 우선한다.

19 관할권과 준거법

본 경매약관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에 관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관한 소송은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적 관할이 있다. 모든 당사자는 재판의 송달절차 또는 다른 법원에서의 절차와 관련된 기타 서류에 대하여 팩스, 인편, 우편, 또는 대한민국법에 의해 허용되는 송달방법으로 마이아트옥션에 통지된 당사자의 최후주소지 또는 기타 통상적인 주소로의 송달에 대하여 취소 불가능한 동의를 한다.

(i) 개인 정보의 입수 청구;

(ii) 개인 정보에 대한 정정 청구;

(iii) 정보 입수 또는 정정이 거부되거나 40일 이내에 제공/정정되지 않은 경우 그 이유의 제공.

17.4 위탁자, 응찰 희망자, 응찰자, 낙찰자는 개인 정보의 입수, 정정, 혹은 마이아트옥션의 정보 보호 정책과 실례 및 마이아트옥션이 보유하는 정보의 종류에 대한 문의를 제18.7조에 따라 할 수 있다. 마이아트옥션은 정보 입수 청구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의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다.

17.5 위탁자, 응찰 희망자, 응찰자 또는 낙찰자가 범인인 경우 마이아트옥션은 위 범인이 정보수집 당시 정보주체에게

MYART AUCTION 경매 출품 안내

경매일정 2026년 6월

작품위탁일정 2026년 4월-5월

출품방법

Homepage www.myartauction.com

E-mail myart@myartauction.com을 통한 사진 자료 송부

우편 03146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62-5 6F

(주) 마이아트옥션으로 사진 송부

Tel 02-735-1110 (대), 735-9938을 통한 상담

Fax 02-737-5527

* 고객님께서 편리하신 방법으로

작품 사진(jpg 파일 또는 인화사진)과 작품정보, 출품희망가, 연락처(성명, 전화번호, 이메일)를 보내주시면 정성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작품 위탁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본 개정 약관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MAINSTAY ART AUCTION

03146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62-5 5F, B1 03146 5F, B1 62-5 Insadonggil, Jongno-gu, Seoul, KOREA

Tel +82 2 735 9938 Fax +82 2 737 5527 Homepage www.myartauction.com E-mail myart@myartauction.com